

Collection of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월정사성보박물관 도록



月精寺 聖寶博物館

월정사성보박물관 도록

Collection of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월정사성보박물관 편



월정사성보박물관 도록

격려사

불교의 역사는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무의식 속에 많은 소중한 문화가 사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방치되어 잊혀져가며, 도난당하고 훼손당하는 불교 문화제가 역사의 암흑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의 적극적인 노력만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는 것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는 643년 자강율사의 창건 이래 선종을 지켜오며 뛰어나신 선사들의 법등을 이어온 한국 불교의 성지입니다. 일제 강점기 한국 불교의 의연한 선종을 지키신 한암스님과 한국 불교 교학에 큰 족적을 남긴 탄허스님의 유혼이 그대로 전해지는 사찰입니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1999년 설립된 이후 본말사 유물의 안전한 관리와 전시 뿐만 아니라 수 차례 소장 유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또한 매년 학술 세미나와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성보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다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명품도록의 간행으로 강원도 문화계의 전체적인 조사와 연구가 1차적인 완성을 이루었다는 점, 그리고 월정사성보박물관의 박물관으로서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는 점에서 더욱 경하할 일입니다. 이는 월정사성보박물관 관장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주지스님이신 현해스님의 원력과 본말사 스님들의 관심과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월정사의 가람 수호와 성보 보존에 전력을 다하시는 모습은 여타 교구의 모범이 될 가히 선구적인 업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월정사성보박물관의 정진을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합장

Words of Encouragement

Throughout the long history of Korea, Buddhist culture flourished, and the wisdom and sermon of Buddha has long been a guiding light for all people. But today, unfortunately, much of the precious heritage are not to be seen anymore. Numerous Buddhist cultural assets are becoming victims of theft or demolition. In the midst of such deterioration and drawbacks, only the hard efforts of Buddhist believers can protect and preserve the precious culture which is, by all means, indispensable to us all. Such needed salvation has been given by Woljeong-sa Temple. Founded in 643 at Odae-san Mountain by Jajang yulsa, Woljeong-sa Temple has been the heart and soul of Korean Buddhism. In particular, Korean Buddhism was able to survive the dark age of Japanese Colonial Rule (1910-1945) through the lessons taught by the great Hanam (1876-1951) and the contribution mad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Buddhism studies by the wise Tanheo (1913-1983). Such valuable legacy has been inherited by the Seongbo Museum at Woljeong-sa Temple, which was first founded in 1999. Ever since its birth, Seongbo Museum has successfully and safely stored and displayed myriads of Buddhist cultural assets. On top of that, various researches and studies were conducted on the Buddhist cultural assets the museum retained. With this aim, many seminars and special exhibitions has been held each year. Without a doubt, Seongbo Museum has magnificently carried out its duty as the heir and successor of Korean Buddhism. And such efforts of the Museum is surely appreciated. As part of its endless and continuous efforts to develop Korean Buddhism, the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is now proudly publishing the Museum Catalogue, which marks the completion of the initial research and studies on cultural assets of Gangwon-do Province. And this will enable Seongbo Museum to elevate into another level, which is why the Museum deserves a celebration. Undoubtedly, this kind of marvelous accomplishment was only made possible due to the great efforts, resolve and commitment put into by Hyunhae, the chief priest of Woljeong-sa Temple, and other great Buddhist monks. Their continuous efforts to protect, preserve and develop the traditions and heritage of Woljeong-sa Temple are truly a great example to all Buddhist believers. Before I conclude, I would like to wish all the success in the world for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Thank you very much.

The most of Ven. Jeongdae. The president of the Jogye order

간행사

1600여 년 전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후 사찰은 수행과 포교의 도량으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유구한 역사가 흐르는 동안 불교가 가지는 독특한 신앙과 의례는 사찰의 건립과 불탑의 봉안, 그리고 불전의 장엄 등 그 어느 나라와도 다른 불교 문화를 가꾸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교 문화의 소산인 성보문화재는 다른 문화재들과는 달리 오랫동안 스님들과 불자들의 원력과 신심으로 더욱더 소중히 간직되고 지켜져서 현존하는 문화재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교 문화를 제외하고는 한국 문화를 설명할 수 없고, 성보문화재를 배제하고는 한국의 문화 유산을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각 사찰에 모셔지고 또 보관 중인 성보들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과학적 보존 처리가 어려운 현실이고 또한 성보의 조사 연구 및 전시도 미비한 실정이기에 성보박물관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교계 안팎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오대산 월정사에서는 월정사 성보박물관을 설립하여 성보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그리고 유물의 조사·연구는 물론 특별 전시와 학술 세미나 등 많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금번에는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왔던 박물관 소장 성보문화재 도록이 간행되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도록의 간행은 불자들에게는 불교 문화를 이해하여 신심을 더욱 돈독하게 하며, 불교 미술에 관심 있는 분들과 연구자들에게는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벌써 박물관 개관이 3년째 접어들고 또 도록을 간행하면서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성보문화재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여 불교 문화의 올바른 계승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포교 역할을 꾸준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박물관 개관 및 개관 이후 박물관 발전에 인연을 맺은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금번 도록에 관심과 도움을 주신 강원도 김진선 지사님과 도관 감수를 해주신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심껏 유물 해설을 해주신 박도화, 송일기 교수님, 성실히 간행 작업을 맡아주신 도서출판 예경의 한병화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그리고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학예연구실 연구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월정사성보박물관장 현해 합장

Acknowledgements

Korean Buddhism was born some 1,600 years ago when Buddhism was first introduced to the country. And ever since, Buddhist temples have been the heart of Buddhism. Throughout the long and glorious history of the nation, Korean Buddhism has evolved into something quite unique, which has been manifested through temple constructions, Buddhist Sculptures and sarira. By all means, Korean Buddhism created a culture that is far different from any other culture of the world. For centuries, Buddhist monks and Buddhist believers strived to preserve the precious Buddhist cultural assets, among other things. And because of their efforts, the current collection of Seongbo Museum has been inherited to the current generation. And now the collection of Seongbo Museum is taking a big part in the preservation of Buddhist cultural assets in Korea. By all means, Buddhism is essential to Korean culture, and much part of that culture has been inherited by Seongbo Museum. Unfortunately, however, safe maintenance and scientific preservation of Buddhist cultural assets are not being achieved. Furthermore, researches, studies and displays are hardly done in Korean Buddhism. Hence, the need for active and progressive management on Buddhist cultural assets has been more and more emphasized. In response,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was established and has successfully preserved and managed Buddhist cultural assets. At the same time, Seongbo Museum has incess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studies as well as held special exhibitions and seminars. As part of these glorious efforts, the Seongbo Museum Catalogue is finally being published after some delay. Although belated, the Catalogue shall enable Buddhist believers to enhance their level of understanding on Buddhism and ultimately strengthen their belief. Furthermore, I expect the Catalogue would be of great study material for researchers and all people interested in Buddhism. Already in its third year of operations, Seongbo Museum, without a doubt, shall function as the center of Buddhism research way into the future now as the Catalogue is being published. And all people shall be the beneficiaries because we can all appropriately inherit and propagate our religious beliefs. Before I conclude, I wish the blessings of Buddha be with all the people related to the publication of the Museum Catalogue.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express my gratitude to Gangwon-do Province governor Kim Jinseon for offering his help and to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Moon Myungdae for carefully proofreading the text. I also offer my sincere thanks to CEO Han Byunghwa and his staff of Yekyong Publication Co. for a job well done. Moreover, I thank professor Park Dohwa and Song Ilgi for providing comments on the cultural assets. For last but not least, I convey a word of gratitude to members of the Arts & Science Research Team.

Woljeong-sa Temple Chief Priest Hyunhae

총론 :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유물의 성격

문명대(동국대학교 교수)

I. 월정사성보박물관의 특징

월정사는 오대산의 중심 사찰이자 조계종 제4교구 본사로서 강원 남부 일대 사찰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 불교 최대 사찰의 하나이다. 오대산은 삼국 말 통일신라 초기부터 불교 신앙의 중심지였고, 그 후 불교 진리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주처한다는 문수신앙의 중심 성지로 크게 각광받아 오고 있다. 즉, 불보佛寶의 중심인 통도사, 법보法寶의 중심인 해인사, 승보僧寶의 중심인 송광사와 함께 신앙信仰의 중심인 월정사는 중국의 4대성지처럼 한국의 4대성지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래에 접어들면서 교구 본사 제도가 정립되면서 강원 남부 일대 사찰을 관할하는 제4교구 본사로 불교 행정의 중심 사찰이 되고 있다. 이처럼 월정사는 신앙의 중심이자 행정의 본사라는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월정사성보박물관도 이 두 가지의 성격을 그대로 간직하는 독특한 성보박물관이 되고 있다.

II. 성보유물의 성격

이처럼 한국 사대성지四大聖地 가운데 특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앙의 성지이므로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신앙적인 유물, 특히 문수신앙 관계의 성보 유물을 진열, 전시하는 것이 하나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월정사는 6. 25 전쟁 때 전소되었으므로 문수신앙 관계 유물이 모두 없어진 상태이다. 그러나 상원사上院寺에는 조선 세조 때 조성된 문수동자상과 복장, 석탑 잔편 및 전적 등이 현존하고 있어서 조선시대의 문수신앙 관계 유물들은 다소 현존하고 있다. 물론 신라시대나 고려시대의 문수신앙 관계 유물이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은 편이나 조선 세조 때의 문수신앙 유물은 그 이전의 것을 어느 정도 계승했다고 보여지므로 크게 중요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월정사성보박물관 유물은 교구말사들의 성보 유물을 대거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영원사의 불상과 불화, 신흥사의 불상과 불화, 보덕사의 불화 및 업경대, 구룡사의 불화와 목패, 보현사의 불화, 수타사의 불연 등 많은 유물이 교구 내 각 사찰의 성보들인 것이다. 현재 전시 보관된 유물 외에도 각 사찰에서 봉안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즉시 이안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증가될 것이므로 강원 남부의 불교 성보들이 총집합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독특한 불교 문화재들의 친견이나 연구를 위해서는 월정사성보박물관이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박물관이 있는 월정사의 성보도 본 박물관의 중요한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월정사의 전소로 불교 전적 같은 이동이 용이한 성보 이외에는 지상에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으므로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사리 유물이 월정사 성보의 대종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1970년 석탑 해체 때 수습된 은제불상, 사리병, 청동거울, 향낭 등 각종 사리구와 2000년 이후 탑 주위 발굴 때 출토된 다량의 석탑 관계 유물들이 월정사 석탑의 성격을 잘 알려주는 성보들이다. 이들 유물들도 고려시대 초기에 조성된 것이므로 탑의 성격 뿐만 아니라 월정사의 역사와 사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높이 평가된다고 하겠다. 또한 탑 주위의 발굴이 확대 실시 된다면 월정사의 창건과 역사적 변천을 알 수 있는 다량의 유물이 발굴될 것이므로 이 발굴 유물은 월정사성보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전시품이 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강원 남부의 각 사찰과 사지의 발굴도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과 연계 실시하여 일정한 비율의 유물을 확보하는 것도 급선무라 하겠다.

III. 성보유물의 도상 특징

월정사성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성보 유물들의 구체적인 형식과 양식의 특징을 불상, 불화, 불탑사리 등 예배 대상과 종, 목패 등 불구, 그리고 불교 전적과 고승 유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상은 주로 목불상들인데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세조대왕의 딸 의숙공주와 공주의 부군 정현조 부부가 세조대왕이 친행한 상원사 중창 불사를 기려 문수신앙의 핵심인 문수동자상을 목조로 조성한 것이다. 세조대왕의 원이 서려 있는 이 상은 긍정 미술답게 우아하고 화려 정교하며 세련된 당대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외에 18세기 전반기의 불상들부터 19세기 말까지의 목불상들인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좌상(1710년)이나 신흥사 목조아미타불상(1791년), 1895년에 중수된 중대 사자암 목조불상들이 시대별 양식 변천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귀중한 예들로 조선시대 조각사 연구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장치에서 발견된 은제불입상도 다소 이국적인 이목구비를 느끼게 하지만 대좌나 광배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비교적 섬세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고려초기의 불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불화도 4교구 안에 봉안되어 있던 여러 가지 그림들을 모아 전시하고 있는데 모두 조선 후반기의 불화들이다. 이 가운데 조선조 불화를 대표하는 1727년의 구룡사삼장보살도, 1759년 영원사감로왕도 및 비로자나후불탱화, 1788년작 범일국사진영, 그리고 1856년작 영은사괘불탱화 등이 크게 주목된다. 특히 구룡사삼장보살도나 영원사감로왕도 등은 희귀한 종류의 불화로서 구도나 색감 등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걸작으로 주목된다. 더구나 1790년에 조성된 관음보살도는

검은 바탕에 금선묘로 된 특이한 관음수기도觀音授記圖로서 소개 자체는 물론 지나치게 긴 손의 형태와 흑색 바탕의 금선묘는 희귀한 예로 평가된다. 그 다음 불구佛具도 관심의 대상이 될 만하다. 불구 가운데는 사리기가 가장 주목되는데, 고려초기의 석탑인 월정사팔각구층석탑에서 수습된 이 사리기에는 청동외합, 은제내합, 금동합, 자수향낭, 수정사리병, 청동거울 4점 등을 위시해서 은제불입상과 전신사리경까지 정교한 장엄구들이 장치되어 있었다. 석탑을 조성 발원한 의미가 보장되어 있는 이 불구들은 고려 공예의 일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당대 조형 기법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수정사리병 안에는 사리 14과가 들어 있어서 열렬한 사리 신앙의 일단을 알 수 있게 한다.

박물관에는 불교 전적이 대량으로 전하고 있는데 사찰 자료와 불교 경전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사찰 자료 가운데 상원사증창권선문(1464년), 상원사증창사적기(1833년), 오대산사적(1307~1902년) 4종, 적멸보궁불량문, 오대산사고등록(1901년) 등은 월정사와 상원사의 역사 연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 귀중한 문헌들이다. 특히 상원사증창권선문은 세조대왕이 직접 쓴 대왕 친필 상원사증창모금문이므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료일 뿐더러 서예사 사료로서도 희귀한 예로 평가된다. 경전류는 1614년간(後刷) 경덕전등록, 1442년간 광흥사판 금강경오가해, 1459년간 월인석보(보물745호), 1574년간 청룡사판 법화경, 1686년간 화엄경소(5·6권, 1718년), 1527년간 광흥사판 법화경, 1698년 영정사판 법화경, 1591년 부모은중경 등 많은 예들이 수장되어 있다. 특히 월인석보는 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끝으로 월정사에 주석했던 근대 고승 두 분의 유품이 정리되어 주목된다. 한암漢菴스님의 유품인 사곡병풍, 발우, 가사, 금관 가사 등이 유명하며, 탄허스님의 인장, 벼루, 두루마기, 10곡병풍 등이 주목된다. 근래 최고의 선승인 한암스님과 최고 학승인 탄허스님은 한국 근대 불교계의 쌍벽으로 상원사와 월정사의 조사스님이었으므로, 이 두 분의 유품이야말로 월정사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상원사 동종(국보 제36호),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풍탁, 금강저, 바라, 업경대, 목패 등 모두 주목되는 불교 공예품들이라 하겠다. 특히 희귀한 목패들이 상당수 확보되어 중요시되며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거울 등은 역시 불교 공예의 백미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월정사성보박물관은 한국 문수신앙의 중심 도량으로서 문수신앙을 상징하는 정보들이 전시되어 있고, 오대산 일대인 강원 남부지역 불교 사찰의 성보 유물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유일한 박물관인 것이다. 앞으로 현대적인 전시 방법과 과학적인 유물 관리, 체계적인 연구가 더 짜임새 있게 진행된다면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우리나라 최고의 알찬 박물관으로 성장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이다.

Collection of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Moon Myungdae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1.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There is an endless list that explains the significance of Woljeong-sa Temple. For instance, the Temple is the main temple of Odae-san Mountain and of the Fourth Buddhist parish of Jogye order. It is also one of Korea's largest temples as well as the headquarters of temples in south Gangwon-do Province. But this strong and eminent presence of Woljeong-sa Temple was not built overnight. In the late Three Kingdom Period (late 3C~ late 7C) to the early Unified Silla Dynasty (AD 668-935), Odae-san Mountain was the heart of Buddhism. Accordingly, it is only natural that Woljeong-sa Temple has been the home of Manjusri Buddhism in Korea.

The presence of four major temples are strongly felt in Korea. There are the Tongdo-sa Temple which is the center of Buddha, Haein-sa Temple which is the core of Dharma, Songgwang-sa Temple which is the heart of Sangha, and, to complete the list, there is the Woljeong-sa Temple which is the pivot of Korean religious belief. Much like the holy grounds in China, these four Korean temples form the great Buddhist sacred grounds in Korea.

In recent years, a new system of temple administration has gone into effect, and Woljeong-sa Temple has become the main temple for the Fourth Buddhist parish of Jogye order. As Woljeong-sa Temple holds these unique traits, Seongbo Museum is most likely to inherit such heritage.

2. The Future of Seongbo Museum

Seongbo Museum must focus on displaying Buddhist relics because Woljeong-sa Temple is beloved by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Buddhist cultural assets related to Manjusri should be the focal point of their display.

Seongbo Museum can achieve this goal by displaying Buddhist cultural assets related to Manjusri that are in Sangwon-sa Temple. Because all of the Manjusri-related relics at Woljeong-sa Temple were destroyed in a fire that took place

during the Korean War (1950~1953), Seongbo Museum should show the relics associated to Manjusri that are to be found in Sangwon-sa Temple. These relics offer a glimpse of Buddhist cultural assets built in the Joseon Dynasty (1392~1910) such as Sculpture of Manjusri as a Young Boy, sarira, stone pagoda etc. The importance of these relics become even more great when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is no inherited Buddhist relic relating to Manjusri created during the Silla Dynasty (BC 57 - AD 935) or Goryo Dynasty (AD 918 - 1392). Therefore, the Manjusri-related relics of Sangwon-sa Temple provides hints to what Buddhist relics relating to Manjusri were like in the time before the Joseon Dynasty. Another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Seongbo Museum's collection is that it has collected most of the relics from related temples. To name just a few, there are the Buddhist Sculpture and Buddhist Paintings of Yeongwon-sa Temple and Sinheung-sa Temple, Buddhist Paintings and Karma Mirror Stand of Bodeok-sa Temple, Buddhist Paintings and Wooden Votive Tablet of Guryong-sa Temple, Buddhist Paintings of Bohyeon-sa Temple, and Buddhist Sedan Chair of Suta-sa Temple. Furthermore, other Buddhist cultural assets in various temples will be needed to be transferred to Seongbo Museum due to the difficulties in preservation. Therefore, Seongbo Museum will become the center of researches and studies on the Buddhist cultural assets of the Gangwon-do Province.

Among the numerous assets Seongbo Museum preserves today and will attain tomorrow, above all, the Buddhist cultural assets from Woljeong-sa Temple should be the foundation of the Museum. Other than some assets that were able to be removed, all relics were destroyed during the fire that burnt down the Woljeong-sa Temple. Accordingly, the sarira related relics are all that were left. So it was very much fortunate for us all that a silver Buddhist Sculpture, a sarira bottle, bronze mirrors, incense pockets and other sarira reliquary were recovered in 1970 when the pagoda was dismantled. Adding to the richness of the Museum, many relics were found once again near the pagoda in year 2000, which offer an insight on what the pagodas of Woljeong-sa and Buddhist culture in the Goryo Dynasty were like. Obviously, if an extended excavation takes place around the Temple, more assets will be recovered. Then, they will form another important part of the Seongbo Museum. In addition to the above, it is

my firm belief that Seongbo Museum must form an excavation team, in conjunction with government agencies, so as to retrieve precious Buddhist relics in south Gangwon-do Province.

3. The Collection of Seongbo Museum

The collection of Seongbo Museum holds myriads of characteristics, which is why millions of adjectives can be used to describe the collection. However, for the purpose of discussion, the collection of Seongbo Museum shall be categorized, in this paper, into religious objects such as Buddhist sculptures, Buddhist paintings and pagoda sarira; Buddhist altar fittings such as bells and wooden votive tablet; and, finally, remaining possessions of priests.

1) Buddhist Sculptures

Most Buddhist sculptures were made of wood. One of the most prominent of them all is the Wooden Sculpture of Manjusri as a Young Boy which was commissioned by Princess Uisuk and her husband Jeong Hyeon-jo in an effort to help her father King Sejo to cure his skin disease with a little help from Manjusri. This Sculpture boasts the beauty, sophistication and gorgeousness of the palace art in the Joseon Dynasty.

There are plenty of other fine pieces of art. The Wooden Seated Sakyamuni from Woljeong-sa Temple Bukdae Goun-am (1710), the Amitabha Buddhist Sculpture from Sinheung-sa Temple (1791) and the Wooden Seated Vairocana from Jungdae Saja-am (restored in 1895) show a panorama of the changes in trends from the early 18th century to the late 19th century. Naturally, there are valuable assets to the studies on sculptures made in the Joseon Dynasty.

Then, there is the Gilt Silver Standing Buddha found among the sarira reliquary of the Octagonal Nine-storied Pagoda of Woljeong-sa Temple. The Standing Buddha is sculpted in relatively great detail that includes the pedestal and mandorla, showing the major trends in sculpture during the Goryo Dynasty.

2) Buddhist Paintings

Mountain (1901) etc. In particular, the Writings on the Reconstruction of Sangwon-sa were written by King Sejo himself, which is why the Writings are of great value for tracing the past of both Korea and calligraphy.

Buddhist Sutras

There are also various Buddhist Sutras well stored and displayed at Seongbo Museum. For instance, there are the Kyeongdeokjeon-deungrok (1614), Diamond Sutra Kwangheung-sa edition(1442), Song of the Moon's Reflection on the Thousand Rivers and Biography of the Buddha (1459, Treasure of Korea No. 745), Lotus Sutra, Cheongryong-sa edition (1574), Commentary on the Avatamsaka Sutra (1686, Volume 5~6 were produced in 1718), Lotus Sutra Kwangheung-sa edition (1527), Lotus Sutra Yeongieong-sa edition (1698), Filial Piety Sutra (1591) etc. In particular, the significance of Song of the Moon's Reflection on the Thousand Rivers and Biography of the Buddha was recognized and has been designated as a Treasure of Korea.

5) Remaining Possessions of Priests

Two outstanding virtuous priests left big footsteps in the history of Woljeong-sa Temple. The contribution that these two Buddhist monks made has laid the foundation that enabled Woljeong-sa Temple to continuously leap forward towards progress and development. One of them is Hanam who left with us his Four-fold Screen, Set of Wooden Buddhist Bowls, Ritual Robe , Ritual Robe with gold Embroidery etc. The other great priest is Tanheo, and he left his descendants with his Seal, Inkstone, Overcoat, Ten-fold Screen and much more.

Hanam and Tanheo are, literally, the founders of Sangwon-sa Temple and Woljeong-sa Temple. Hence, what they have left with us are equivalent in value as the very spirit of Woljeong-sa Temple.

6) Others

The upper-described list does NOT mention all the collection of Seongbo Museum. In fact, it doesn't even come close. For instance, there are the Bronze Buddhist Bell of Sangwonsa (National Treasure No. 36), Copper

일러두기

- 본 도록은 칠정사성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품으로 구성하였다. ●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중대 사자암 비로자나불좌상·상원사 동종은 원 소장처가 수장하고 있으며 본 도록에서는 사진만을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 유물 해설의 경우 표지 부분은 박도화(인천광역시 문화재감정관,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 전문위원), 송일기(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 전문위원)가 공동 집필하였고, 법보 부분은 송일기가, 승보 부분과 기타 정보는 박도화가 맡아서 집필하였다.
 - 유물의 해설은 유물 명칭과 해설을 각 면에 실었으며 각 도판에는 한글 유물명칭, 한문 유물명칭, 시대, 크기(cm), 지정문화재 순으로 기재하였다. ● 전격류는 학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글 유물명칭, 한문 유물명칭, 간년, 판식, 반파, 유·무제, 어미, 간격을 기재하였다. ● 유물의 크기는 세로×가로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

Triratna

Triratna, or the 'Three Treasures' refer to the Buddha, Dharma (the Law), and Sangha (the Order). The Three exist where there is Buddhism, and Buddhism is born with the embrace of the Three. They are essential components of prime importance to Buddhism.

The trinity divide up again into three kinds: that of the times of the historical Buddha, that after his death, and that of unity as one. During the time of the historical Buddha, Buddha himself is the Buddha, his teachings the Law, and his disciples the Order. After Sakyamuni's death, his images became the venerated subjects, the carved or printed sutras the Law, and the priestly monks the Order. The last interprets the Three as one unity, i.e. monks as manifestations of the Law, and as mediators of the Buddha and the Law. Generally speaking, Triratna refers to the first kind.

This catalogue intends to present the collection of the Seongbo Museum at Woljeong-sa Temple under these three categories.

삼보三寶

삼보三寶는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행의 귀의 대상인 불보佛寶·법보法寶·승보僧寶를 가리키는 것으로 불佛·법法·승僧이라고도 일컫는다. 불교가 있는 곳에는 삼보가 갖추어져 있고, 불교도로서의 출발은 삼보에 귀의함으로써 시작되며, 또 최후까지 삼보에 귀의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삼보를 가장 신성한 존재이며 동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다.

삼보는 현전삼보現前三寶, 주지삼보住持三寶, 일체삼보一切三寶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전삼보現前三寶는 부처님 생존 당시의 삼보를 뜻한다. 석가모니 자신이 불보佛寶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법보法寶이며, 부처님의 제자로서 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와 같은 출가자들이 승보僧寶이다. 주지삼보住持三寶는 불멸佛滅 후 불교에서의 삼보로서, 불보佛寶는 불상이나 불화 등 예배의 대상을 가리키며, 법보法寶는 관각한 경전經典이나 인쇄된 경권서책經卷書冊 등의 불교성전을 말하고, 승보僧寶는 비구·비구니 등으로 구성된 출가교단을 가리킨다. 일체삼보一切三寶는 철학적 이론으로, 삼보를 별개가 아닌 하나로 해석한다. 즉, 부처의 교법教法은 승리에 의해 그 가치와 의의가 나타나고, 승리를 통하여 부처와 법의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므로 승리는 불, 그리고 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삼보라고 할 때에는 이상의 세 가지 가운데 현전삼보現前三寶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본 도록에서는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의 정보문화재를 삼보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I. 불보 佛寶

불보佛寶, 즉 불佛은 불교의 개조인 석가모니불釋迦牟尼佛이 대표적이지만 역사상 정토교淨土敎의 아미타불阿彌陀佛, 밀교密敎의 대일여래大日如來 등 교법敎法을 설하며 신행의 귀의대상이 된 모든 부처님을 불로 보고 있다. 그리고 불멸 후 예배의 대상이 되었던 금속이나 목재, 석재, 흙 등으로 조성된 불상이나 종이, 직물 등에 그려진 불보살들도 불로 불리워졌다. 이들 불상이나 불화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조성되어 숭배되었다. 특히 부처님의 불족적佛足跡이나 탑塔, 사리舍利가 불보로 참배됨에 따라 각 사찰마다 탑이 세워지고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셔 신행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 유물 가운데 국보 제48호 월정사팔각구층석탑에서 발견된 사리구, 국보 제221호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그리고 강원도지역 전통 사찰에 봉안되었던 불·보살상과 그 복장유물 및 불화들을 이 불보의 개념 속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과 사리구 月精寺八角九層石塔과 舍利具

월정사팔각구층석탑에서는 1970년 해체복원시 1층 탑신과 5층 옥개석에서 다양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었다. 5층 옥개석에서는 길이 13.2~14.2cm, 너비 16~16.5cm, 깊이 16cm의 방형 사리공에서 은제도금여래입상이 발견되었고, 1층 탑신에서는 지름 32cm, 깊이 19cm의 원형사리공에서 비단보자기에 싸인 사리구가 출토되었다. 보자기 안에는 4매의 청동거울이 밑면과 주변을 감싸고 그 안쪽으로 보자기에 싸인 청동사리의합靑銅舍利外盒이 있었고, 그 안에는 은제사리내합銀製舍利內盒과 금동방형향합金銅方形香盒, 그리고 사각수라향낭四角繡羅香囊이 있었다. 이 중 은제사리내합 안에는 사리 14과가 들어 있는 수정사리병과 『전신사리경全身舍利經』이라 묵서표제墨書表題한 경축經軸이 들어 있었으며, 이 외에도 향목숯木이 다수 발견되었다.

The Octagonal Nine-storied Pagoda of Woljeong-sa and The Sarira Reliquary from it - The Octagonal Nine-storied Pagoda of Woljeong-sa, National Treasure no. 48, unearthed varied sarira reliquaries from the first level of the pagoda and the fifth-level cover stone when it was dismantled in 1970. A standing Buddha gilded in silver was discovered from the fifth story, and a sarira reliquary wrapped in silk from the first story. Inside the silk wrap was found a bronze case encased by four bronze mirrors, and inside the case, a silver sarira case and a rectangular gilt-bronze incense case. Inside the sarira case were a crystal sarira bottle and a sutra scroll. Other fragrant wood pieces were also found there.

1. 월정사팔각구층석탑과 사리구



월정사팔각구층석탑

국보 제48호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은 고려 초기 석탑을 대표하는 다각다층 석탑이다. 팔각 기단 위에 갑석甲石이 놓여 있는데 하대 갑석에 조각한 복련伏蓮과 기단 중석에 새겨진 안상眼象에서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이 엿보인다. 9층으로 된 탑신塔身과 옥개석屋蓋石은 15.2m에 달하는 탑의 높이에 비해서 안정된 느낌을 주며, 모서리의 반전과 팔각 옥개석 처마에 달린 풍경의 율동, 그리고 급격한 제감비에서 오는 강한 역동감 속에서도 안정감을 잃지 않고 있다. 완전히 남아 있는 상륜부相輪部는 노반露盤·복발覆鉢·양화仰花·보문寶輪은 석재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의 보개寶蓋·수연水煙·용차龍車·보주寶珠·칼주刹柱는 금동으로 장식되어 있다. 고려시대 화려한 귀족 불교 미술의 일면을 보여주는 월정사의 대표적인 문화재이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은제도금여래입상

5층 옥개석 상면의 방형 사리공에서 발견되었다. 불신佛身은 양련仰蓮과 복련伏蓮으로 이루어진 연화좌 위에 서 있으며 화려한 전신광배를 등지고 있다. 광배는 별도로 주조하여 끼운 것으로 두광 부분은 앞쪽으로 휘어져 있다. 광배의 외연에는 활달한 화염문火焰文이 조각되었고 내부에는 연주문蓮珠文으로 두광과 신광을 구분하였으며, 두광에는 연화문蓮花文을 선각하였다. 불상은 시무의施無畏·이원인輿願印의 자세이나 각기 엄지와 장지를 맞대고 있으며, 둥글고 풍만한 얼굴에 원만한 상호相好가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머리에는 나발髮鬘이 큼직하게 묘사되어 있다. 법의法衣는 양 어깨를 덮은 봉견通肩으로 옷주름이 반원형을 이루며 아래로 내려오고 있다. 작지만 불신·광배·대좌가 모두 갖추어져 있으며, 정교하진 않으나 비교적 섬세한 조각술과 사실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통일신라시대의 전통적인 불상 양식을 계승한 불상이다.



2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은제도금여래입상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銀製鎏金如來立像
고려시대(10세기), 높이 9.7cm, 폭 4.5cm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사용문경

청동쌍룡문경에 비해 작고 문양 부분의 구조가 정확하지 않다. 외연에 새겨져 있는 명문은 다음과 같다.

光遠素日 寶重玄精 澄空鑿水 照過款清 終古永固 曼此心靈



3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사용문경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青銅四龍文鏡
고려시대(10세기), 지름 11.9cm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사동문경

연주문으로 내연과 외연을 구분하여 외연에는 보상당초문寶相唐草文, 내연에는 운룡문雲龍文을 새겼다. 구불구불 휘어진 몸체, 날카로운 받침, 용과 함께 흐르는 듯한 구름무늬 등 역동적이고 힘찬 조각술과 구조술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는 수작秀作이다.



4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사동문경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青銅雙龍文鏡
고려시대(10세기), 지름 19.5cm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파문경

내·외연의 구분이 없이 산山 모양의 물결무늬가 전면에서문되어 있다. 간결하지만 세련된 모습이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무문경

문양이 없이 중앙에 꼭지만 있는 단순한 형태로 고려 이전으로 제작 연대를 올려볼 수 있는 고식古式의 거울이다.



5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파문경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青銅波文鏡
고려시대(10세기), 지름 11.3cm

6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무문경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青銅無文鏡
고려시대(10세기), 지름 11.6cm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은제사리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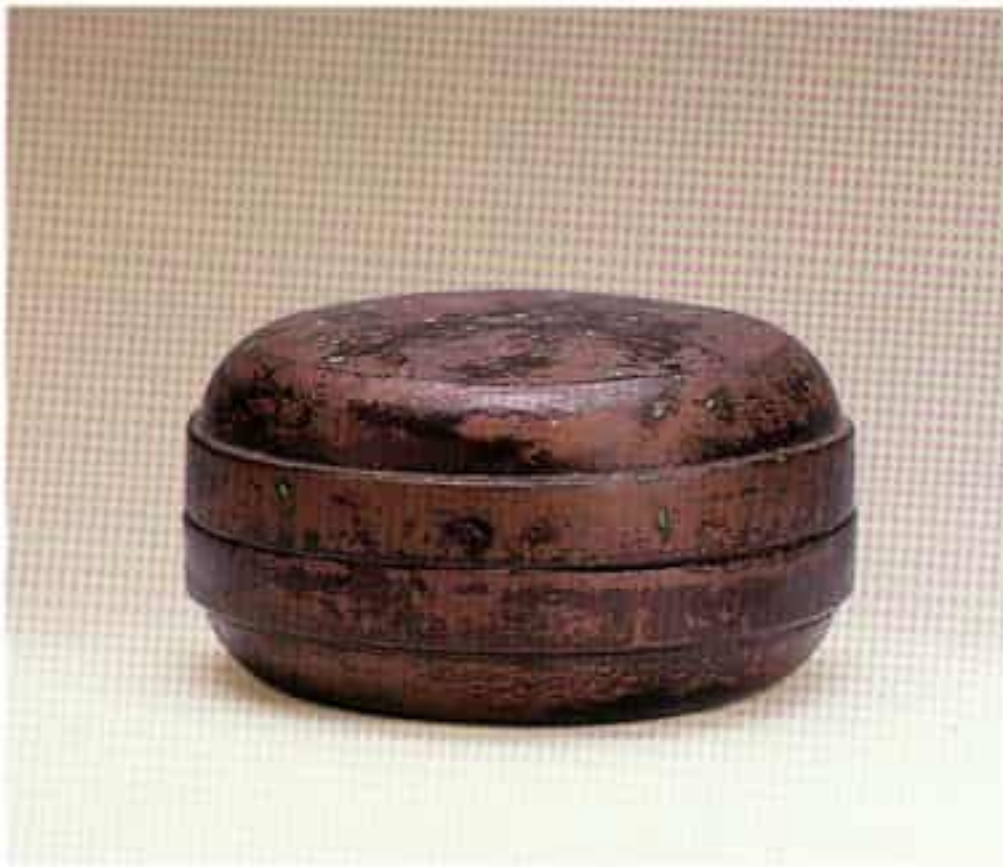
원구형의 내합으로 표면에 아무런 문양이나 장식이 없는 안정감 있는 모습이다.



7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은제사리내합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銀製舍利內盒
고려시대(10세기), 높이 5.6cm, 지름 9.2cm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사리외합

상하면이 편평하고 표면에 문양이나 장식이 없는 소박한 형태이다.



8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사리외합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靑銅舍利外合
고려시대(10세기), 높이 10.0cm, 지름 18.4cm





91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전신사리경 月精寺八角九層石塔舍利具 全身舍利經
고려시대, 상하폭 5.7cm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전신사리경

이 경의 원 이름은 『일체여래심비밀전신사리보협인다라니경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藏印陀羅尼經』으로, 줄여서 『전신사리경全身舍利經』 혹은 『보협인다라니경寶藏印陀羅尼經』이라 불린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탑경造塔經典이다. 목심속에 감겨 있는데 발견 당시 고착되어 있었으며, 보존처리하지 않아 현재까지 원래의 상태 그대로 있으므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단지 두루마리의 겉에 세로로 『전신사리경全身舍利經』이라고 묵서되어 있어 경의 제목은 알 수 있으나, 목관본인지 필사본인지의 여부, 본문 내용이나 제작과 관련된 사항 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 경은 대력大曆 7년(772) 불공不空이 한역하였으며, 오월국 元曉가 8만 4천기의 탑에 이 경을 넣어 유포한 사실은 유명하다. 고려와 오월과의 밀접한 관계로 미루어 보아 월정사의 전신사리경은 그 이후 간행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개성 총지사본總持寺本(1007년 간행)의 존재가 알려져 왔다. 이 사리경을 보수하여 내용이 확인된다면 팔각구층석탑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사각수라향낭

함께 출토된 금동방형향합을 넣었던 주머니로 생각되며, 두 명의 아가동자가
연꽃에 둘러싸여진 모습이 수놓아져 있다.

10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사각수라향낭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白角繡羅香囊
고려시대(10세기), 15.3×6.9cm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금동방형향합

상하면에 각기 2구씩 사천왕四天王을 선각하였고, 측면에는 꽃무늬와 인왕상 仁王像을 각 2면씩 선각하였다. 사천왕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모두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든 무장의 모습이다. 바위로 보이는 대좌를 힘차게 밟고 있는 당당한 자세와 균형잡힌 체구, 부릅뜬 눈과 강렬한 표정, 유연하게 흐르는 천의 등이 활달하게 선각되어 있다. 바탕과 테두리에는 어자문魚子文을 둘러 마감하고 있다. 측면에 새겨진 인왕상은 연화좌 위에 서 있는데 하체에만 군의鎧衣를 두르고 상체는 거의 나신裸身이다. 양감 있는 신체와 삼굴三屈 자세, 한 손은 올리고 한 손은 아래로 내린 모습, 흘러내린 보발寶鬚과 유연한 천의天衣 등 뛰어난 조각 솜씨를 보여준다. 다른 두 면에는 역시 작은 어자문을 배경으로 큼직한 꽃송이가 마치 구름이 피어나는 듯한 모양으로 유연하게 새겨져 있다. 각 상들은 매우 작은 면에 놀라우리만치 정교한 새김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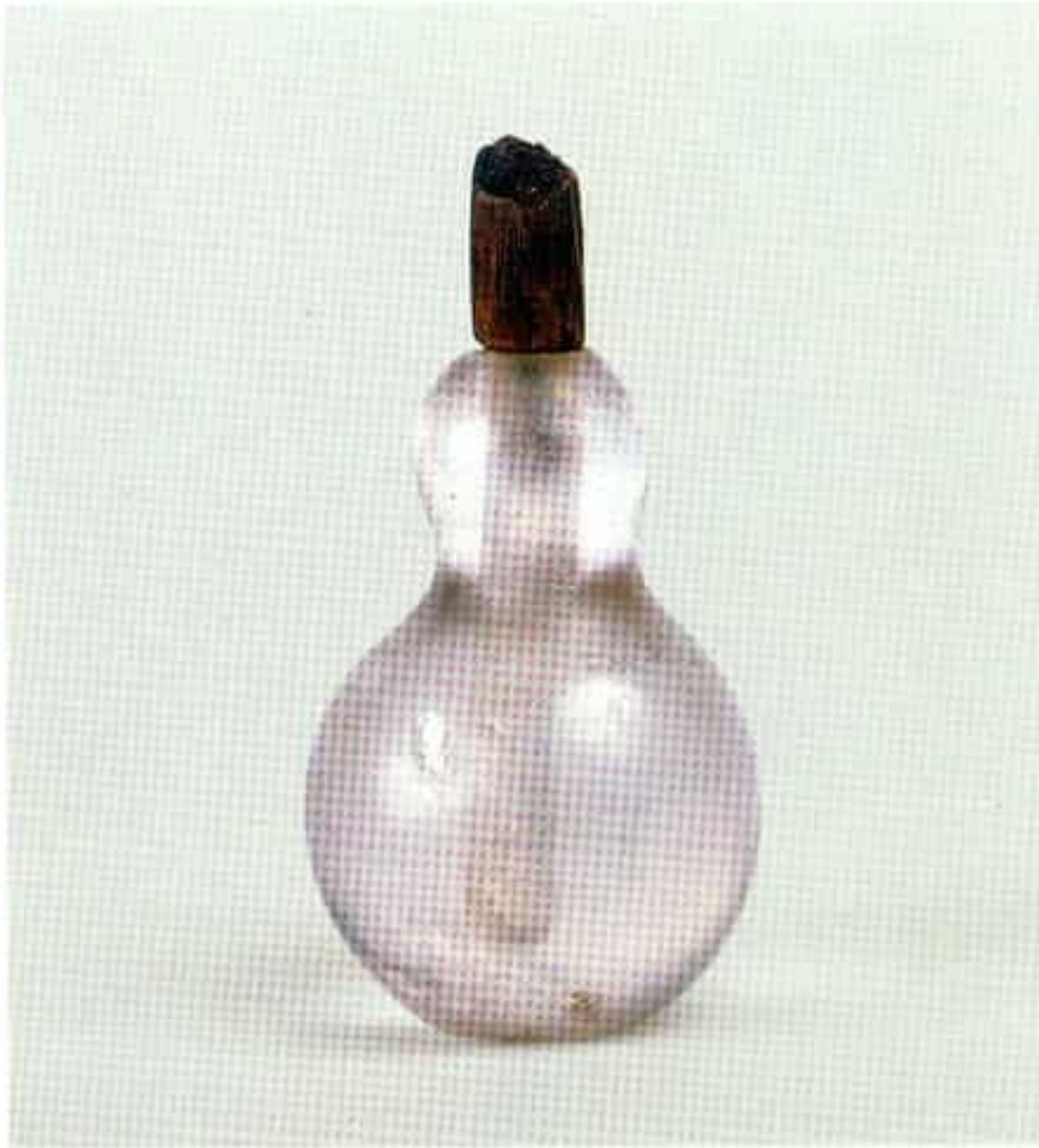
11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금동방형향합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金銅方形香盒 (뒷면)
고려시대(10세기), 4.35×4.1×0.6cm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금동병함(쌍립)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金銅方形香盒 (비단면과 앞면)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수정사리병

표주박 모양의 수정사리병으로 안에 담홍색 사리 14과가 들어 있었고 향나무로 마개를 만들어 밀폐하였다. 997년 건립된 안성 장명사長命寺 5층석탑에서 출토된 사리병과 같은 모양이다.



12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수정사리병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水晶舍利瓶
고려시대(10세기), 높이 5.5cm, 지름 1.5cm

2. 상원사목조문수등자좌상과 복장유물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북장발원문에 의하면 세조의 딸인 의숙공주懿淑公主와 남편인 정현조鄭顯祖 부부가 발원 조상하였으며, 문수보살의 영험으로 세조의 피부병을 치료했다는 전설에 의거하여 조성한 동자형의 문수보살상이다. 동자상의 전형적인 머리모양인 양쪽으로 묶은 쌍계雙髻머리를 하였으며, 볼륨있으면서도 천진스러운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감돌고 있다. 설법인을 위한 손가짐과 오른쪽 다리를 밖으로 둔 우시상右師相의 편안한 모습은 절제된 양감이 표현된 신체 표현과 조화를 이루어 안정감 있는 자세를 이루고 있다. 특히 자연스러운 양손의 위치와 지극히 사실적인 손가락의 표현이 뛰어난 세련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인체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는 유연한 옷주름선 등이 예리하면서도 세련된 조각술로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등 당대 최고의 조각술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고려후기의 단아하고 안정감 있는 불상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조선 초기 왕실 발원의 세련되고 아름다운 동자상으로 국보 제221호로 지정되었다.



15 | 상원사목조문수동자죄상 복장 의숙공주발원문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寶藏 懿淑公主發願文
寫年: 조선시대(1466년), 朱砂寫, 크기: 31.5×24.0cm, 낱장 1枚, 材料: 明織深青色, 보물 제793-1호

상원사목조문수동자죄상 복장 의숙공주발원문

이 발원문은 세조 12년(1466)에 세조의 둘째딸인 의숙공주懿淑公主와 그의 남편 정현조鄭顯祖가 당시 임금인 세조 및 왕실의 수복壽福을 기원하고, 그의 득남得男을 위해서 석가여래, 약사여래, 아미타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십육응진, 천제석왕의 상을 조성하여 오대산 문수사에 봉안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본문의 내용은 청색 계통의 명주에 경면주사鏡面朱紗로 9행에 걸쳐 쓰여져 있다.

願文

朝鮮國 河城尉鄭顯祖 懿淑公主李氏 伏爲 主上殿下 王妃殿下 世子邸下 萬歲萬歲萬萬歲 亦願己身 速得智慧之男 敬成釋迦如來 彌師如來 阿彌陀佛 文殊菩薩 普賢菩薩 彌勒菩薩 觀音菩薩 地藏菩薩 十六應真 天帝釋王 伏安于五臺山文殊寺 伏願 衆聖 各運慈悲 同加攝受 以達弟子區區懇願 成化二年 二月日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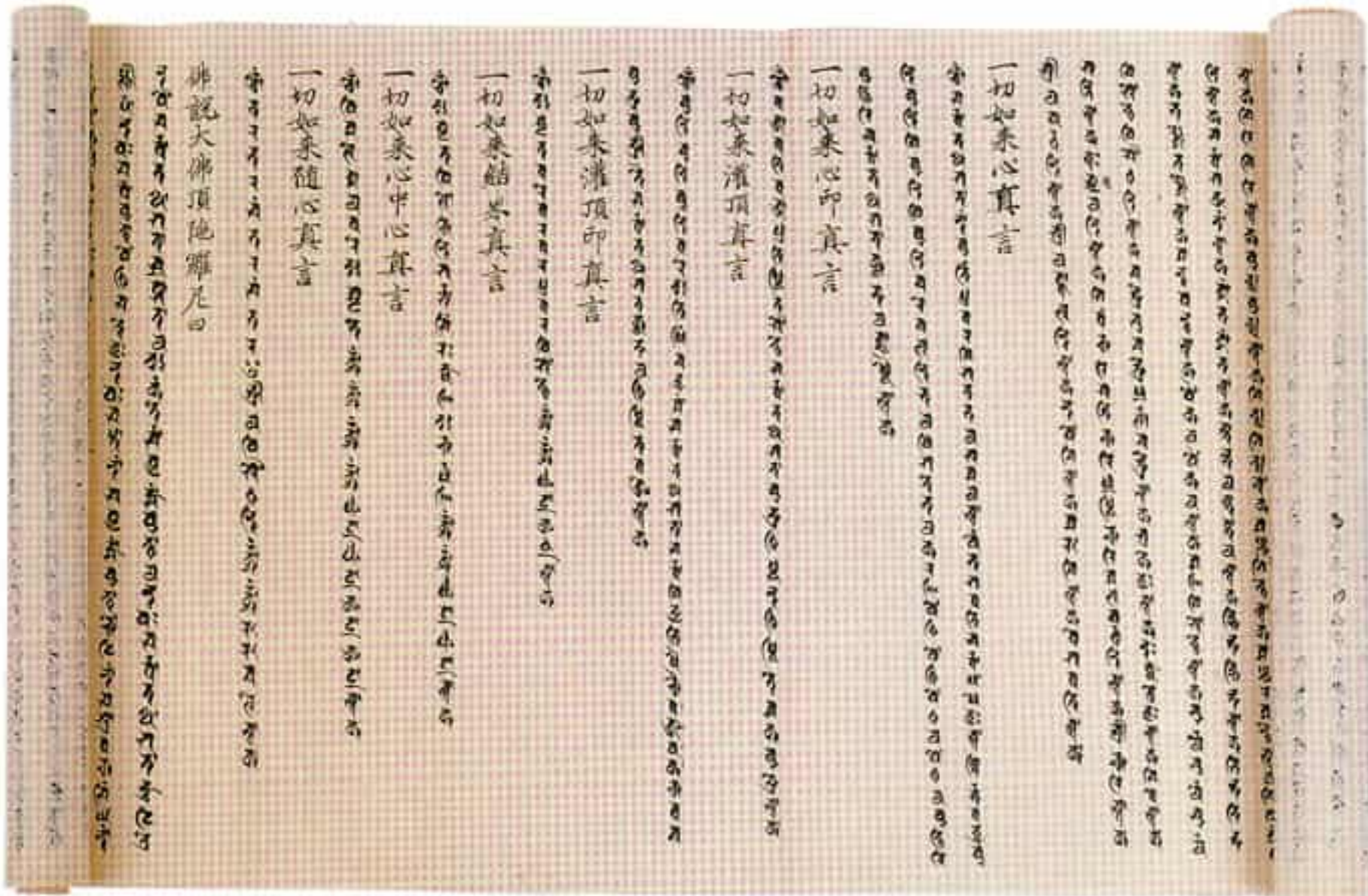
皇明萬曆己亥五月日緣化比丘智雲本寺大衆普明等
 同發菩提之心重修
 童子文殊一尊老文殊一尊十六聖衆華嚴會圖西方會
 圖圓覺會圖彌陀會圖毗盧會圖靈山會圖靈
 山會圖達磨真儀懶翁真儀安于福地以此良緣
 大誓發願
 主上殿下壽萬歲山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秋國泰民安
 佛日重輝法界舍靈超生極樂亦願戒定勤修三毒永斷
 超生極樂親見彌陀頂授記廣度迷倫大小隨喜
 皆發菩提普共人天廣緣無窮
 證明一學畫師釋俊元悟持殿戒淳供養主學寶貝
 學明跋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등 중수발원문

이 발원문은 1599년에 지운智雲과 보명普明이 함께 발원하여 2구의 문수상, 16
 구의 나한상과 탱화 7폭, 조사진영 2폭을 중수한 사실을 밝혀주는 내용이다. 본
 문은 내용은 녹색계통의 명주에 경면주사로 쓰여져 있다. 이 중수는 일학一學
 이 증명하고 석준釋俊과 원오元悟가 화사로 참여하였으며, 학명普明이 이에 관
 한 발문을 기록했다. 그리하여 이 발원문을 통해서 문수동자상, 문수보살상, 16
 구의 나한상과 탱화 7폭(화엄회도, 서방회도, 원각회도, 미타회도, 비로회도, 영
 산회도 2폭), 달마와 나옹의 진영 2폭을 중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지난 1980
 년에 발견된 복장유물 중에는 이때 추가로 복장된 전적도 일부 보이고 있다.

16 |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등 중수발원문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等 重修發願文
 寫本: 조선시대(1599년), 朱砂紙, 크기: 34.8×29.1cm, 낱장 1매, 材料: 明綠染綾色, 보물 제793-2호

題文
 皇明 萬曆己亥五月日 緣化比丘智雲 本寺大衆 普明等同發菩提之心 重修 童子
 文殊一尊 老文殊一尊 十六聖衆 華嚴會圖 西方會圖 圓覺會圖 彌陀會圖 毗盧
 會圖 靈山會圖 靈山會圖 達磨真儀 懶翁真儀 安于福地 以此良緣 大誓發願 主
 上殿下壽萬歲山 王妃殿下壽齊年 世子邸下壽千歲 國泰民安 佛日重輝 法界舍
 靈 超生極樂 亦願戒定勤修 三毒永斷 超生極樂 親見彌陀 頂授記 廣度迷倫 大
 小隨喜 皆發菩提 普共人天 廣緣無窮 證明 一學 畫師 釋俊元悟 持殿 戒淳 供養
 主學寶 學明跋



상원사목조문수동자퇴상 복장 백지묵서제진언

백지에 묵서로 『관세음보살월정마니수진언觀世音菩薩月精摩尼手眞言』을 비롯한 66개의 대소진언을 필자梵字로 필사한 두루마리이다. 말미에 주사朱砂로 쓴 필사가가 있어 선종선사 내호乃浩에 의해서 세조 9년(1463)에 사성寫成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보존 상태는 양호하나, 마지막 여백 부분이 30×50cm 크기로 잘려져 나갔고 앞부분이 일부 결실되어 있다. 내용으로 보아 『대비심다라니大悲心陀羅尼』 즉 42개 수관세음보살다라니手觀世音菩薩陀羅尼 가운데 8개의 다라니가 떨어져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 두루마리에는 오대진언의 내용이 전부 수록되어 있고, 뒷부분에 존승대심주尊勝大心呪 등 19개의 팔막한 진언과 마지막으로 문수진언이 실려 있다. 종이는 양질의 중국 종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국내의 종이 사정이 좋지 않았던 때이므로 특별히 복장용으로 사성寫成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17 | 상원사목조문수동자퇴상 복장 백지묵서제진언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復藏 白紙墨書眞言
寫年: 조선시대(1463년) 寫, 크기: 41.8×51.8cm 13條 연결, 총길이 41.8×679.3cm,
卷子1軸, 寫記: 天順七年癸未 七月 初八日 梵書釋宗釋師 乃浩與手梵書檀首拜手, 보물 제790-3호

十明品第二十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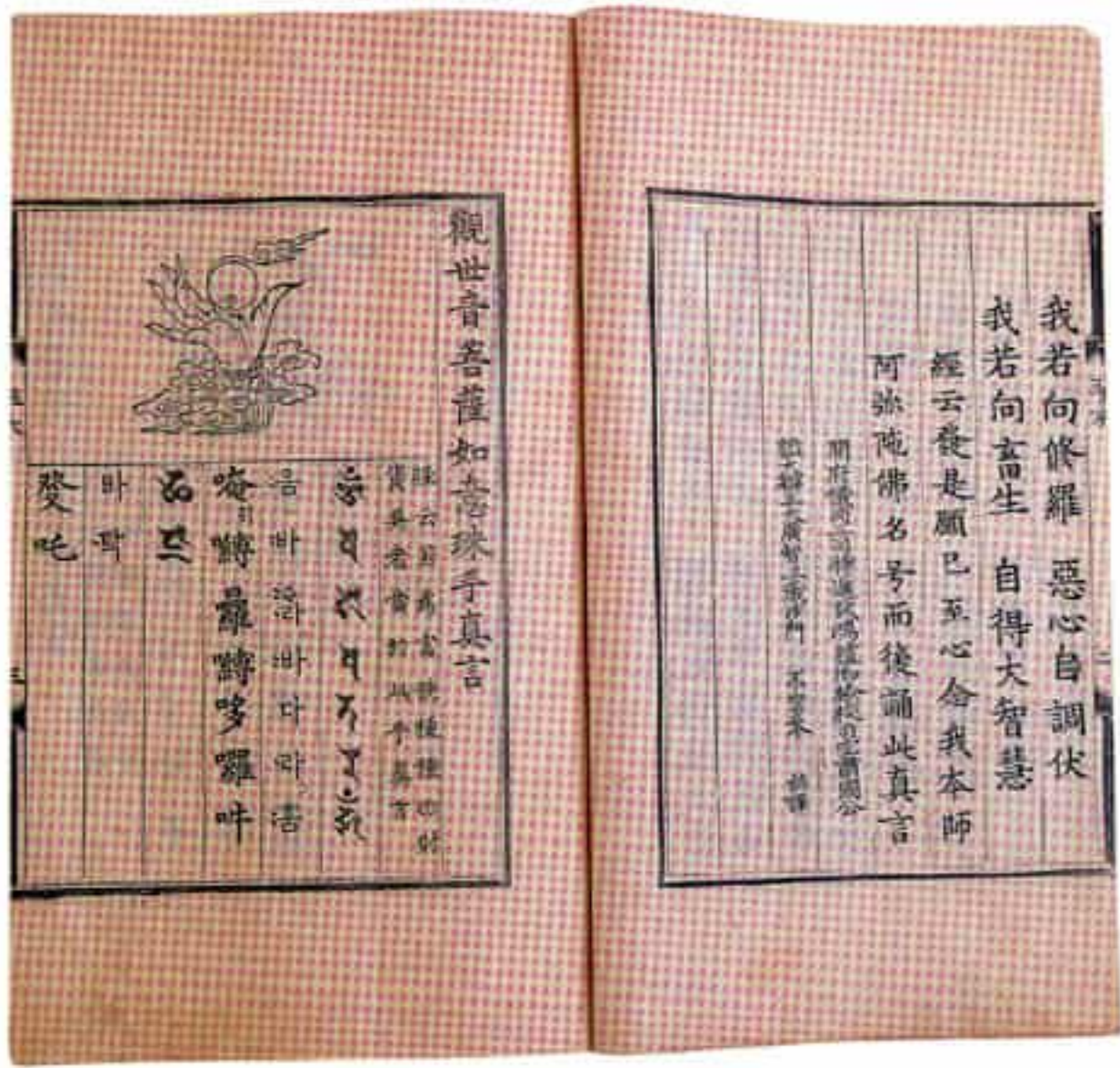
南時普賢菩薩摩訶薩告諸菩薩言佛子菩薩摩訶薩有十種明何等為十此菩薩摩訶薩志知三千大千世界眾生心念所謂善心不善心無記心廣心欸心惡心勝心順生死心背生死心聲聞心緣覺心菩薩心聲聞行心緣覺行心菩薩行心天心龍心夜叉心乾闥婆心阿脩羅心迦樓羅心緊那羅心摩睺羅伽心人心非人心地獄心畜生心餓鬼心閻羅處眾生心諸難處眾生心如是等無量種種眾生心我分別知如是等百世界千世界百千世界億世界百億世界千億世界百千億世界乃至百千億那由他世界廣說乃至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眾生能分別知其心念佛子是為菩薩摩訶薩其善知他心智明佛子菩薩摩訶薩志知無量無數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眾生生死此彼善惡諸趣若好若醜若垢若淨若黑若白如是等無量種種眾生天龍夜叉乾闥婆阿脩羅迦樓羅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微細眾生小眾生中眾生大眾生勝眾生如是等無量種種眾生生死此彼菩薩摩訶薩以無障礙明淨天眼能照見隨其業報所受善樂種種業種種行種種思願種種見如業境界如所迴轉悉能親見佛子是為菩薩摩訶薩第二無礙天眼智明佛子菩薩摩訶薩憶宿命事或自或他悉能憶念無量無數不可說不可說佛刹微塵數世界眾生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대방광불화엄경 권28

화엄경은 우리나라 화엄종의 근본 경전으로 한국 불교의 소의경전 가운데 하나이다. 아울러 불교 전문강원의 대교과 과정에서 학습되어왔던 불교 최고의 경전이다. 현재 한역본으로는 권수에 따라 불타발타라 번역의 진본(善本) 60화엄과 실차난타 번역의 주본(周本) 80화엄, 반야 번역의 정원본(貞元本) 40화엄 등 삼본(三本) 화엄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와서 이 경전을 기본으로 한 화엄학이 정립되고 아울러 화엄종이 성립되었으며, 전국에 화엄 10대 사찰이 건립되어 화엄사상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라 이래 화엄경이 사성(寫成) 또는 개판(開板)되었다.

목판본으로는 고려시대 11세기 초엽에 현화사(玄化寺)에서 이미 삼본(三本) 화엄이 간행된 사실이 전하고 있으며, 영주의 부석사에는 삼본(三本) 화엄경판(善本華嚴經板)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그밖에 현존본으로 '수창(壽昌) 4년' (고려 숙종 3년, 1098)의 간기가 있고 이필선(李必先)에 의해 간행된 판본을 비롯하여 지리산 증광사본(增光寺本) 등 비교적 전본(傳本)이 많은 편이다. 수창본의 동일본으로 현재 경주의 기림사(祇林寺) 비로자나불 복장에서 발견된 권10·권53의 2책이 있으며, 조병순(권4와 권28), 김민영(권15), 김찬호(권38) 소장본은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본은 수창본의 특징과 유사하나, 절장본(切裝本)인 것으로 보아 13세기 이후에 복각(復刻) 간행되었던 판본으로 보인다.

18 |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대방광불화엄경 권28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華嚴 大方廣佛華嚴經 卷二十八
 刊年: 고려시대(13세기 중반), 格式: 上下單邊, 紙高 23.2cm, 無界, 1葉 24行17字(1行6字), 보물 제793-4호



여의주수 如蓮持手



보일수 寶鉢手

견석수 顯藥手

바이라수 跋陀羅手

보검수 寶劍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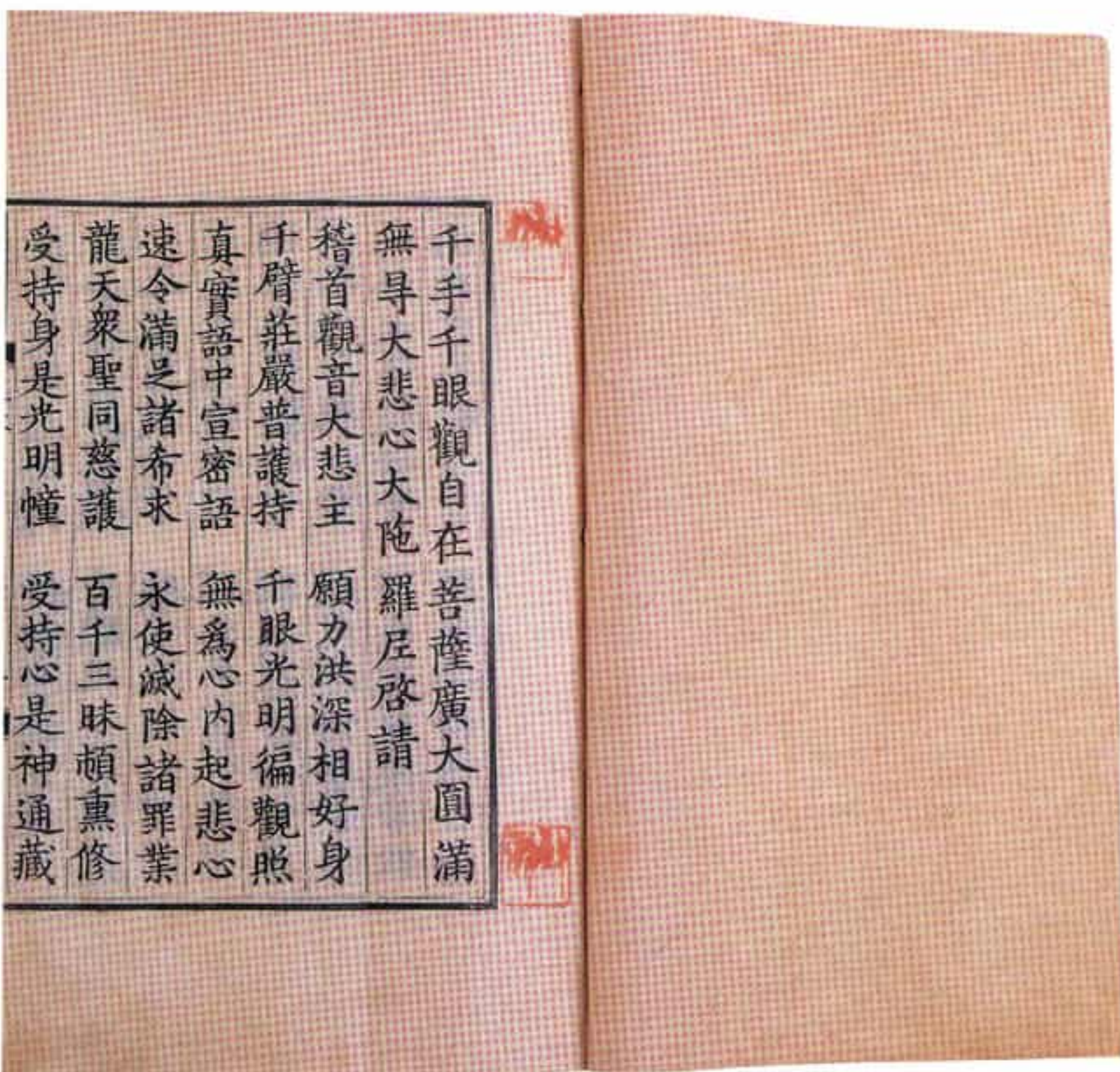
시무외수 施無畏手

금강저수 金剛刺手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오대진언

밀교의 경전인 다섯 종류의 진언을 범자梵字로 적고 한자의 음역을 범문과 언문으로 병기한 책이다. 내용은 <대비심대다라니大悲心大陀羅尼>·<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대수구대명왕대다라니大請求大明王大陀羅尼>·<불설대불정다라니佛說大佛頂陀羅尼>·<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 등이 차례로 수록되어 있다. 이 한문본은 조선초기에 간행되었는데, 여기에 한글의 음역을 추가로 편입하여 간행한 한글본 『오대진언』이 또한 전하고 있다. 그 책에 있는 학조學祖의 발문에 인수대비의 명에 따라 일반 백성이 진언을 쉽게 익혀 암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간행되었다고 한다. 현존 최고본은 한문본으로,

간기는 없으나 발문의 연대인 1485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후반에 『영험약초靈驗略抄』가 합철되어 있다. 이 밖에도 3종의 한문본이 전래되고 있으며, 언해본으로는 1531년에 지리산 철굴鐵窟에서 개관된 것을 비롯하여 모두 임진왜란 이전 본 3종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본래 상원사의 문수동자상에서 나온 복장물로 현존 최고의 유일본이다. 특히 이 책에는 『영험약초靈驗略抄』를 한글로 번역하여 첨부하고, 음해소자乙亥小字로 인출印出한 것이 합철되어 있다. 권말에는 성화成化 21년(1485)에 쓰여진 학조學祖의 발문이 첨부되어 있으며, 특히 종이는 조선초기의 극상품 인경지印經紙를 사용하였다.



受持身是光明幢	受持心是神通藏	龍天衆聖同慈護	百千三昧頰熏修	速令滿足諸希求	永使滅除諸罪業	眞實語中宣密語	無爲心內起悲心	千臂莊嚴普護持	千眼光明徧觀照	稽首觀音大悲主	願力洪深相好身	無尋大悲心大陀羅尼啓請	千手千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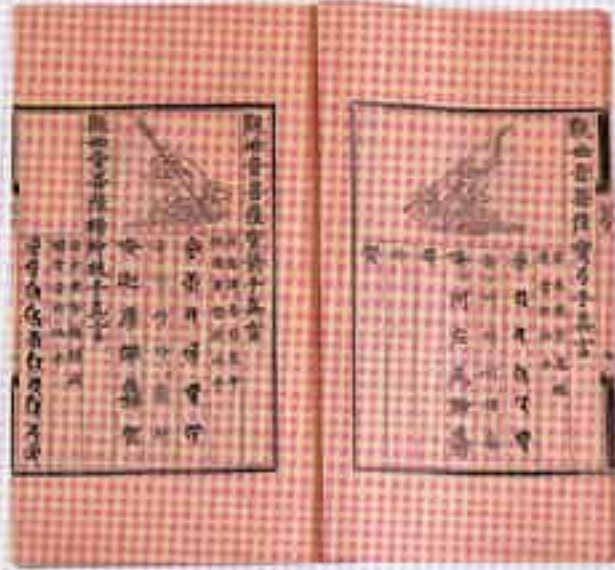
19 |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오대진언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護藏 五大真言
 刊年: 조선시대(1485년), 版式: 函筒雙邊, 半部 18.1×12.2cm, 有背, 半葉 8行15字, 上下大界口; 上下內向魚尾.
 款文: 成化二十一年乙巳孟夏 山人臣學祖敬跋, 合編: 靈驗略抄木板本, 靈驗略抄諸解乙亥小字, 보물 제793-5호



일정미니수월精摩尼手



일정미니수월精摩尼手



보진수寶震手



보공수寶弓手



백불수白佛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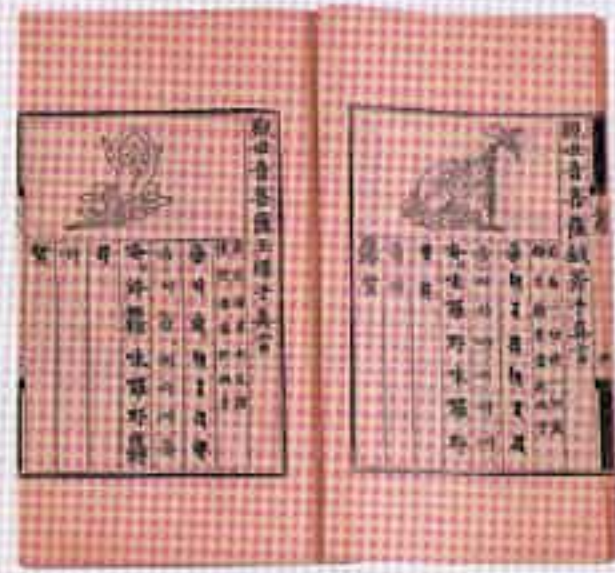
일류지수精柳枝手



발대수防牌手



보명수寶明手



옥천수玉泉手



일부수鉢浮手



청연희수靑蓮華手



백연희수白蓮華手



자연희수紫蓮華手



보경수寶鏡手



오색은수五色雲手



보암수寶巖手



홍연희수紅蓮華手



군지수觀蓮手



보리수寶螺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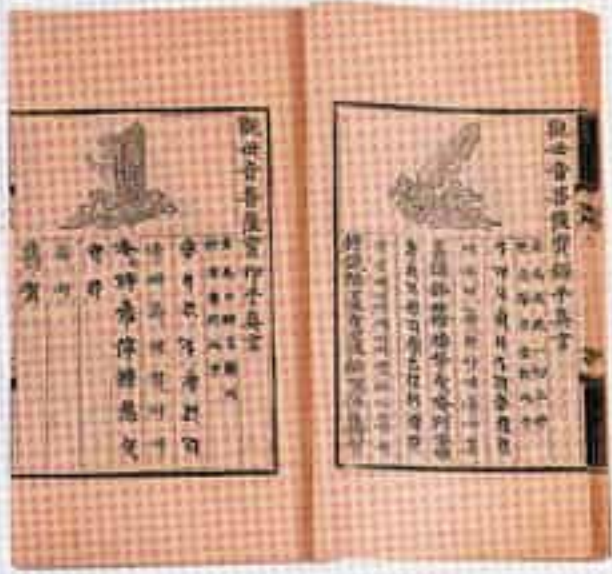
보리수寶螺手



수주수數珠手



솔부침수高麗杖手



보연수寶印手



보리수寶螺手



석장수巖杖手



구시합구수俱尸兼手



화합수化佛手



합장수合掌手



보경수寶經手



화공전수化宮殿手



정상화합수頂上化佛手



불적금문수不測金輪手



강로수甘露手



오도수奧道手



홍심전비수鴻心殿千寶手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소자본 묘법연화경 권1-7

이 책은 법화경이 전7권으로 부피가 크고 휴대하고 다니면서 독경 또는 열람이 불편하여 소자小字로서 매우 정교하게 간행한 것이다. 이 책은 해린海麟이 정천익鄭天益과 이양李樞의 시주금으로 정종 1년(1399)에 판각板刻하였으며, 이와 동일한 판본으로 우왕 9년(1383)에 평양의 법흥산 백련암에서 간행된 판본이 현존하고 있다. 권말에는 1382년에 이색李穡이 쓴 발문이 있어 이를 통해 상원사복장본은 이때 개관된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복장에서 나왔으나, 권1에 주사朱抄로 구결口訣을 단 흔적이 보이므로 불복佛腹에 넣기 전에 사용하던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불복용佛腹用으로 판각板刻되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소자本小字本이며, 종이 또한 아주 얇게 뜬 지지楮紙를 사용하여 더욱 그 부피를 줄였다. 권말에는 1399년에 남계南在가 쓴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어, 이 무렵에 간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현재 동일 계통의 판본을 이화근(보물 제960호)과 송성문(보물 제1081호) 등이 소장하고 있으며, 근래 영광 불갑사의 복장본에서도 1책(권1-3)이 발견된 바 있다.



妙法蓮華經要解序

前住福州正生禪院祖沙門

及南 撰

諸佛出興唯為一事千經百論無有餘乘直以妙法而明一
 心即幻華而示實相則妙法蓮華經者諸佛之本宗千經之
 轄一心之元鑑實相之妙門也秦譯已還垂八百載訓辭釋義
 代有哲人而責備求全序有侍失信口滿世間之營于如板沙
 之善薩盡思慮量莫知少不故雖多歷講解有所未盡而潤色
 討論不非來者滋慶慶意環師深究一乘得探真說研說探要
 為之辨別宜和已之初學不鄙命子致證既又適實宗而務與
 佛心趣丙午接會于南山討味尋經於詳再四照若如蔓繁蔓
 使入佛知見者無摘葉尋枝之原有新勸乘坊之觀是真發登
 期秘要之藏也或者扣師七軸之中何處為正說妙法口十經
 其論唯恐此事直一席板有異談世尊以是而開示摩達以
 是而悟入火宅以是而出離寶所以是而前進若寺多劫以辛



21 | 상원사목조문수동지하삼 복장 서소자본 묘법연화경 권 1-7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細小字本 妙法蓮華經 卷一一七
 刊年: 조선시대(1404년 1405년) 冊式: 上下單邊, 板高 18.5×8.5cm, 葉界, 半葉 12行29-31字, 全高 24.3×43.0cm, 刊記: 永樂二年甲申十月日誌 同願 龍津大禪師 萬曆 年, 보물 제79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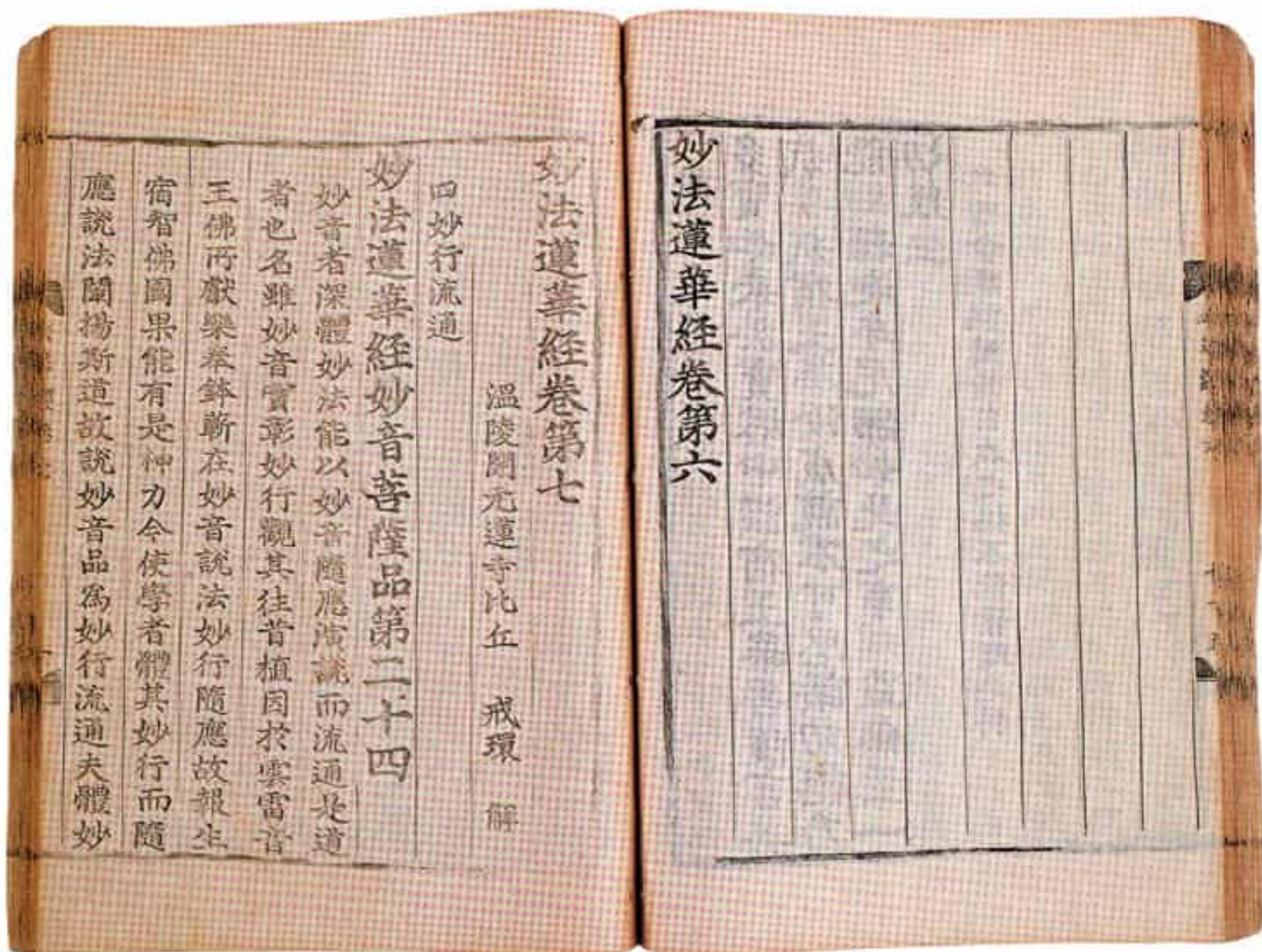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세소자본 묘법연화경 권 1-7

이 책은 앞서 조선 정종 원년(1399)에 간행된 소자본과 비교하여 한 행에 6자 이상이 추가된 29~31자씩 배자되어 글자의 크기가 더욱 작아진 판본이다. 이 판본의 간행은 태종 4년(1404)에 용담龍潭과 전거轉居 등의 발원으로 추진되었다. 일반적으로 집장본摺裝本の 판식版式은 권자본卷子本과 흡사하나, 이 책은 행간 0.1~0.2cm 인데 비하여 절간折間 부분은 0.4~0.5cm로 비교적 여유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서사書寫할 때 이미 집장摺裝을 염두에 두고 간행된 희귀한 목판본임을 알 수 있다. 표지는 별도의 감지紺紙로 처리하고, 표계에 「묘법연화경합부妙法蓮華經合部」라고 금니金泥로 쓰여 있으며, 권두卷頭에는 17×42.5cm 크기의 변상도變相圖가 있다.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에서 발견된 복장본 중에 유일하게 표지가 온전하게 남아 있는 책이다. 판각의 새김이 비교적 정교하며 얇은 종이에 인출하여 법화경 7권을 모두 1책으로 집장摺裝한 것이다. 많은 법화경 판본 중에 이러한 형식은 유일한 판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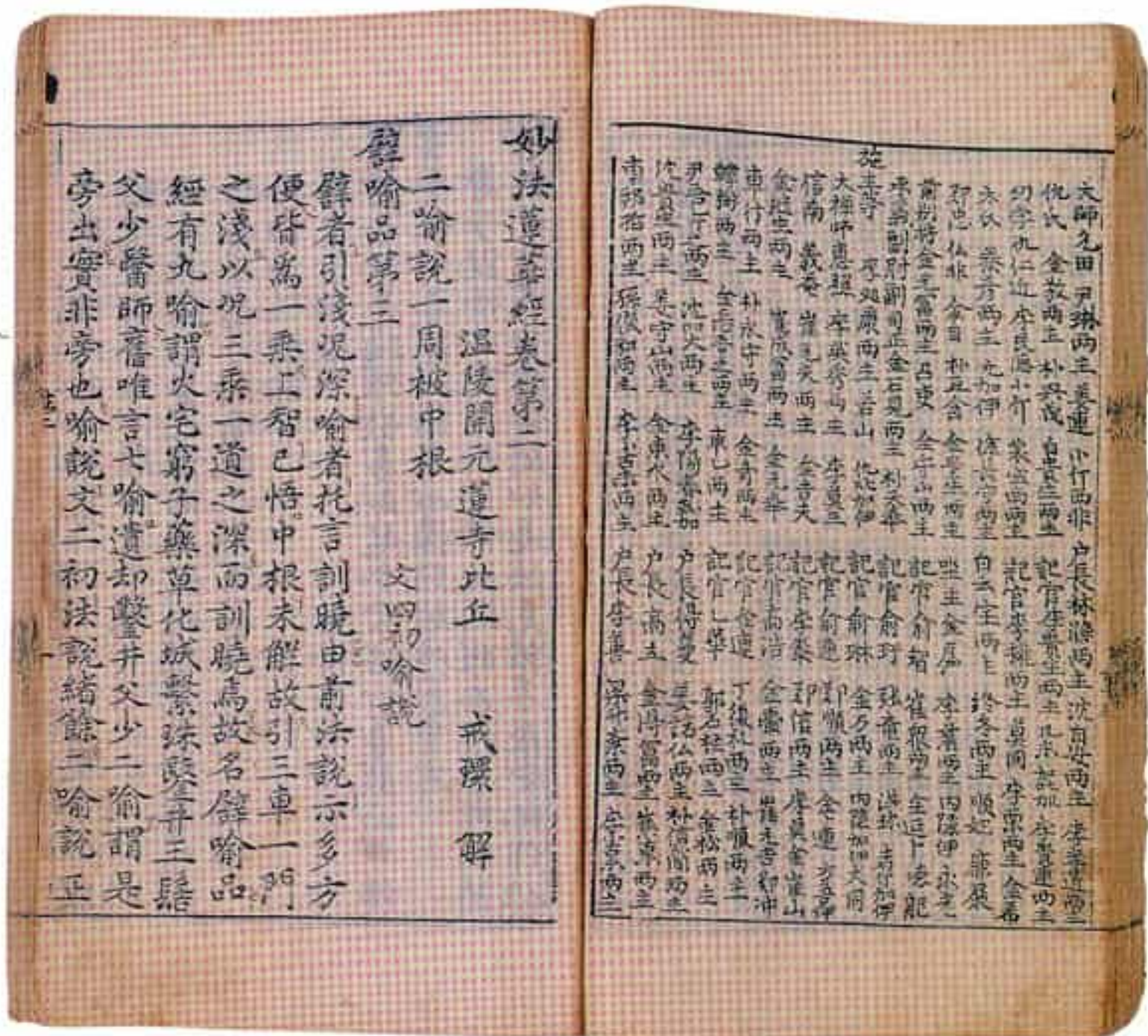
상원사목조분수동자퇴상 북장 을해자본 묘법연화경 권6~7

조선초기에 활자로 간행된 법화경은 갑인자본甲寅字本과 을해자본乙亥字本 2종이 남아 있다. 이 책은 을해자본乙亥字本으로서 매우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고, 거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인쇄印出 직후에 곧바로 북장櫃藏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책의 간행 시기도 북장 직전의 세조연간으로 추정된다. 이 북장본은 전체 7권 중에 권6~7 1책에 해당되며, 특히 권6의 권수제卷首題 위에 「교정校正」 인印이 찍혀 있다. 이 판본은 을해자본 계통의 모본母本으로 이후 여러 사찰에서 북각 간행된 바 있다.



22 | 상원사목조분수동자퇴상 북장 을해자본 묘법연화경 권6~7 上院寺木造分數童子坐像 寶藏 乙亥字本 妙法蓮華經 卷六~七
 刊年: 조선시대(1466년 이전) 刊, 版式: 西漢單邊, 半部 27.2×19.6cm, 刊界, 半葉 11行18字, 上下內向魚尾, 特體: 乙亥活字本, 校正印, 號圖 서793-8호

이 책은 발문을 쓴 성달생成達生 등에 의해서 경문을 정서淨書하여 개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달생은 이보다 앞서 1405년에 전라도 고산 안심사安心寺에서 간행된 판본과 1422년에 개관된 대자암판大慈庵板 등을 정서한 바도 있어, 법화경의 간행에 기여한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그가 쓴 법화경판은 조선시대 전국의 사찰에서 수차 복각이 이루어져 하나의 주요한 계통을 형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여러 곳에는 구결이 묵서墨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한 동안 사용하다가 복장藏藏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권3 말엽의 시주난에 '황진손서黃振孫書'라고 기록되어 있어, 권2-3 부분을 황진손黃振孫이 직접 정서淨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大師名田尹琳兩主姜蓮 小竹兩非 戶長林滄兩主沈自安兩主 李善蓮兩主
 仇次 金教兩主 朴梁茂 自良三兩主 記官在貴生兩主 凡未加加 李善蓮兩主
 勿字九仁近 李民德 小竹 梁安兩兩主 記官李種兩主 莫同 李東兩主 金善
 太以 梁芳兩主 九加伊 德六兩兩主 自云室兩主 終冬兩主 順妃 薛展
 智忠 仙非 金目 朴夏金 金善生兩主 聖主金厚 李善兩主 內際伊 永光
 前坊將金毛當兩主 呂史 金守山兩主 記官俞智 崔報兩主 全運上 家肥
 平善副尉副司正金石見兩主 劉天奉 記官俞智 張在兩主 洪球 李守加伊
 大棟呼惠孫 李英秀兩主 李夏三 記官俞琳 金方兩主 內際加伊大同
 信南 義安 崔毛天兩主 金善夫 記官俞德 却順兩主 全運方善
 金柱也兩主 曹成當兩主 金元平 記官李泰 却順兩主 李莫金 崔山
 車行兩主 朴永守兩主 金奇兩主 記官高浩 金慶兩主 崔毛善 却神
 韓樹兩主 金后音三兩主 車仁兩主 記官金連 丁德社兩主 朴順兩主
 尹言下兩主 沈四火兩主 李陽春兩主 戶長得曼 郭名柱兩主 金松兩主
 沈貴慶兩主 是守山兩主 金東水兩主 戶長高五 金得富兩主 崔東兩主
 李初指兩主 孫俊和兩主 李吉善兩主 戶長李善 梁朴素兩主 金京兩主

妙法蓮華經卷第二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二喻說一周被中根

譬喻品第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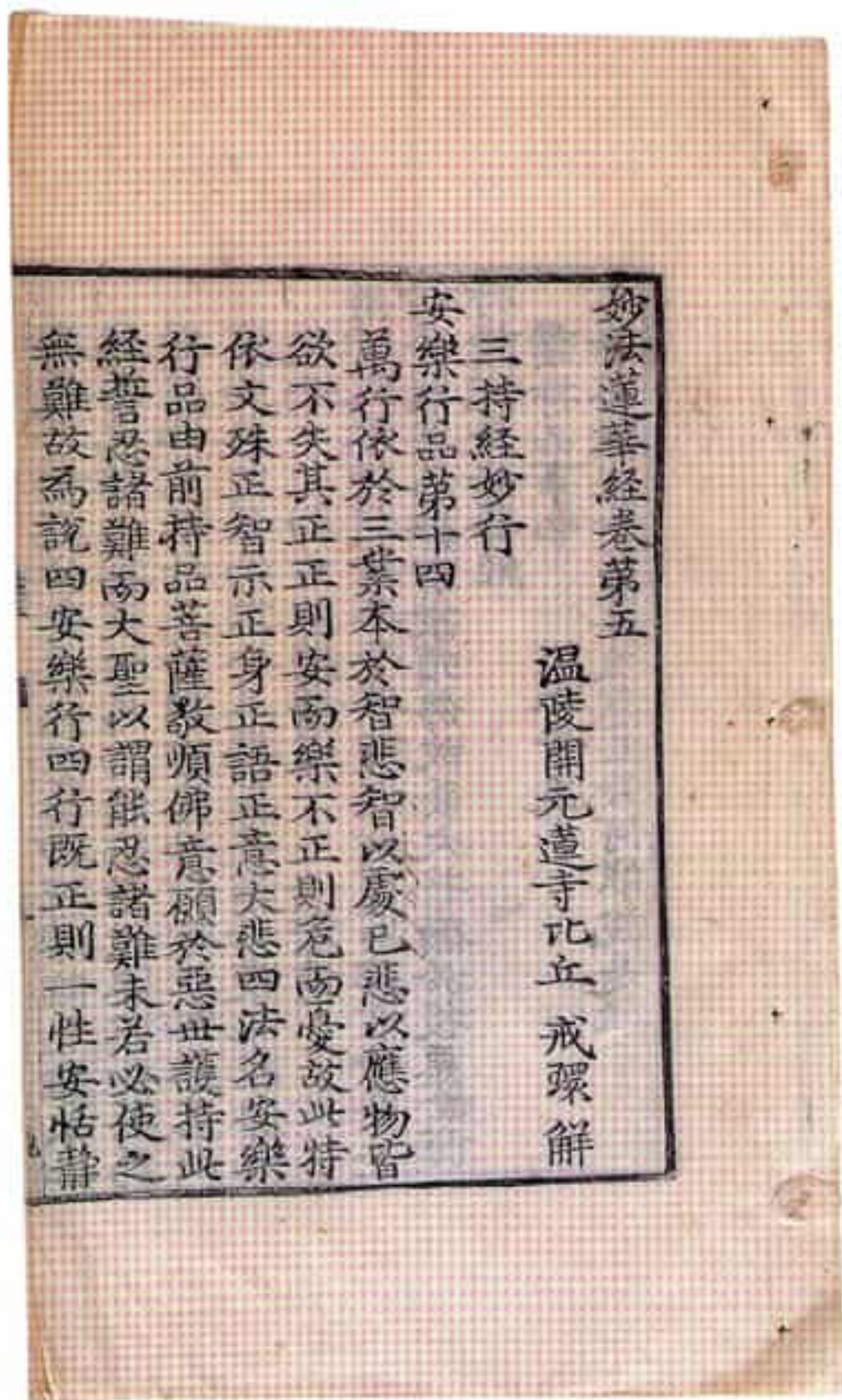
文四初喻說

譬者引淺况深喻者托言訓曉由前法說示多方
 便皆為一乘上智已悟中根未解故引三車一門
 之淺以况三乘一道之深而訓曉焉故名譬喻品
 經有九喻謂火宅窮子藥草化城繫珠鬘并三髻
 父少醫師畜唯言七喻遺却鑿并父少二喻謂是
 旁出寶非旁也喻說文二初法說緒餘二喻說正

23 |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회암사관 묘법연화경 권1-3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藏閣 華岩寺板 妙法蓮華經 卷一-三
 刊年: 조선시대(1443년 發願), 版式: 四角單邊, 半部 20.8×13.4cm, 無界, 半葉 10行20字, 無魚尾.
 跋文: 正統八年癸亥五月日 僧錄大夫判中樞院事高宗成運生謹跋, 刊記: 全羅道高山地佛名山花岩寺開板, 特製: 黃振孫書(卷3末), 墨量 763.0g

상원사목조문수동자퇴상 복장 회방사판 묘법연화경 권5~7

이 책은 성달생서사본成達生書寫本을 저본底本으로 복각한 판본이다. 복각본 覆刻本인 점으로 보아 판식상에 그다지 상이한 점이 보이지 않고 있으나, 다만 판심板心 부분에 간혹 흑어미黑魚尾가 들어 있는 점은 특이하다. 이 판본은 권말의 간기에 의해 1561년에 경상도 풍기의 회방사畵方寺에서 개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간행 시기가 다른 복각본에 비해 늦은 것으로 보아, 1599년의 증수시에 추가 복장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妙法蓮華經卷第五

溫陵開元道寺比丘 戒環解

三持經妙行

安樂行品第十四

萬行依於三業本於智慧智以處已悲以應物皆
欲不失其正正則安而樂不正則危而憂故此特
依文殊正智示正身正語正意大悲四法名安樂
行品由前持品菩薩教頻佛意願於惡世護持此
經誓忍諸難兩大聖以謂能忍諸難未若必使之
無難故為說四安樂行四行既正則一性安恬靜

24 | 상원사목조문수동자퇴상 복장 회방사판 묘법연화경 권5~7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藏書 畵方寺藏 妙法蓮華經 卷五-七
刊年-조선시대(1501년 初刷), 版式-西開單邊, 冊部 20.2×13.5cm, 有界, 半葉 10行20字, 魚魚尾.
刊記-嘉靖四十年辛酉正月日 慶尚道豐基地小白山畵方寺開板. 號圖 庚793-10卷

嘉靖甲午辛酉正月日慶尚道豐基地小伯山池
叱方寺開板

主上殿下萬歲壽萬歲

正妃殿下齊年壽齊年

聖烈仁命大王大妃殿下壽萬歲

恭位王大妃殿下壽萬歲

世子邸下千秋壽千秋

大施主張嗣南兩主

大施主金仲丁兩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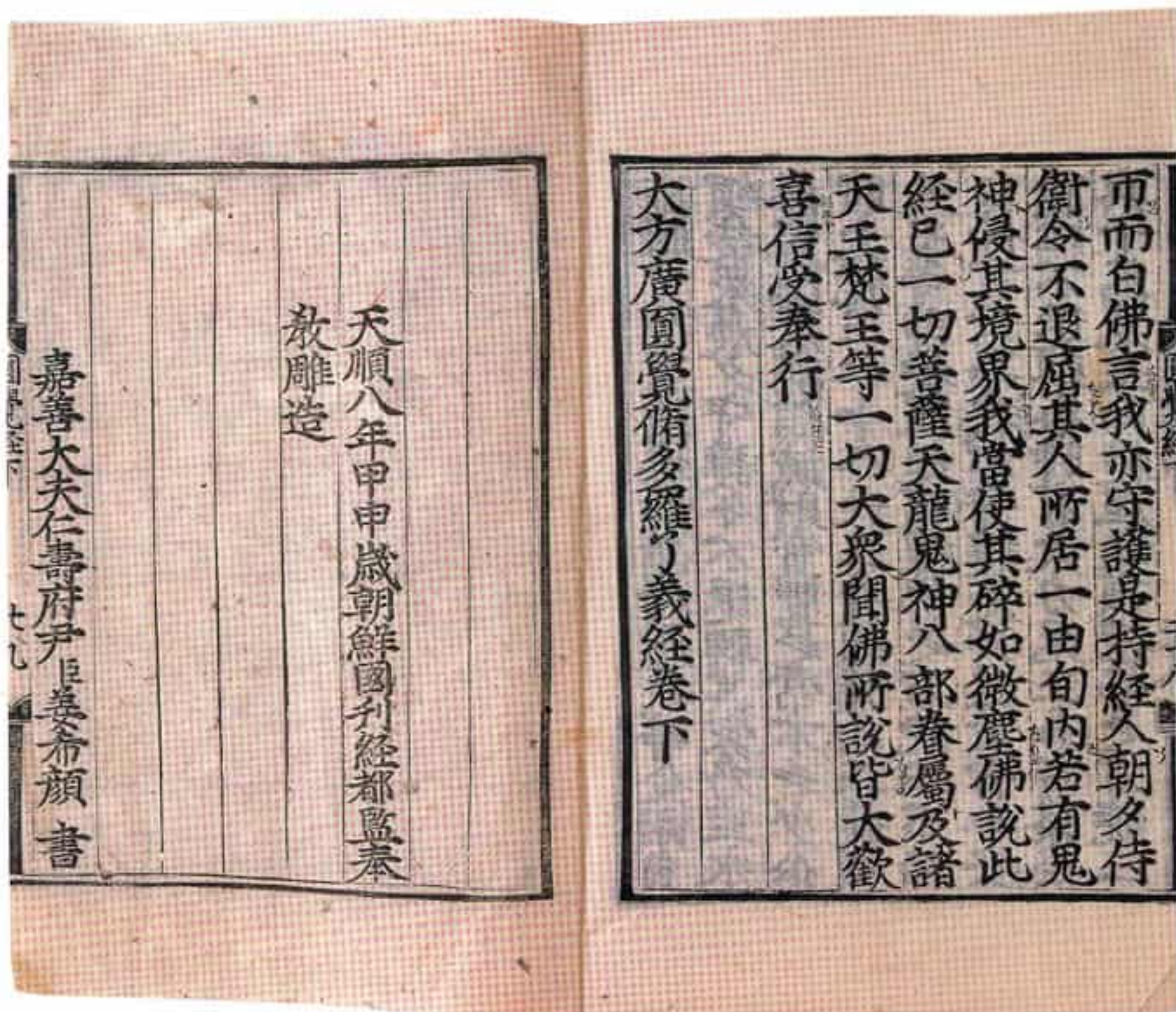
大施主尹戎望兩主



釋隆刀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복장-신홍사관 원각경

조선시대에 간행된 불경 중의 상당수가 간경도감판(刊經都監板)의 복각으로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간경도감본은 조선시대 불경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 권말의 간기를 보면, 이 책 역시 간경도감본을 저본으로 1564년에 복각 간행된 것이다. 간기가 없다면, 간경도감판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정교하게 판각되었다. 그러나 간행 시기가 늦은 것으로 보아,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등의 중수시에 추가복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홍사본은 비록 간경도감판의 복각본이지만, 이미 동일본이 보물 제753호로 지정된 귀중한 판본으로 평가된다. 근래 전라남도 장흥의 보림사 사원왕상에서도 동일본이 발견된 바 있다.



而而白佛言我亦守護是持經人朝夕侍
衛令不退屈其人所居一由旬內若有鬼
神侵其境界我當使其碎如微塵佛說此
經已一切菩薩天龍鬼神八部眷屬及諸
天王梵王等一切大眾聞佛所說皆大歡
喜信受奉行

大方廣圓覺脩多羅了義經卷下

天順八年甲申歲朝鮮國刊經都監奉
教雕造

嘉善大夫仁壽府尹臣姜希顏書

26 |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복장-신홍사관 원각경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韓國 新興寺板 圓覺經
刊年: 조선시대(1564년 初編), 板式: 四面雙邊, 半部 18.2×13.3cm, 書界, 半葉 8行16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刊記: 嘉靖四十三年甲子六月日 朝鮮山神興寺刊行, 보물 제753-12호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영제암판 육경합부

육경합부六經合部는 조선초기에 널리 독송誦讀되던 『금강반야바라밀경金剛般若波羅密經』·『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脱境界普賢行願品』·『대불정수능엄신주대부頂首楞嚴神呪』·『불설아미타경佛說阿彌陀經』·『관세음보살에문觀世音菩薩禮文』·『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등의 육경六經을 모아 한 책으로 간행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최고본最古本은 세종 6년(1424)에 전라도 고산 안심사安心寺에서 개판되었으며, 이 밖에도 현재까지 알려진 판본은 20여 종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들 판본의 대부분이 15세기에 집중적으로 간행되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월정사에 소장되어 있는 상원사 복장본은 3종이 발견되어 있는데, 모두 15세기의 판본이다.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본은 본래 세종년간인 1440년에 화악산 영제암에서 판각되었던 목판을 성종 3년(1472) 인수대비가 일시에 많은 불경을 간행할 때 인출한 것이다. 당시 이러한 불경 간행 사실의 전말을 쓴 김수온의 발문은 갑인소자로 인쇄되어 각 불경의 권말에 첨부하였다. 그런데 이 책에도 동일한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성종조 초기 이후에 간행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로써 갑인소자의 사용 시기와 인수대비에 의한 대규모의 불경 간행 사실을 살펴 볼 수 있는 귀중한 책이다.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화암사판 육경합부

이 책은 앞서 전라도 고산의 화암사花岩寺에서 간행된 성달생서사본成達生書寫本을 저본으로 복각 간행한 것이다. 비교적 널리 유통된 듯, 다른 판본에 비해 그 전본傳本 또한 많이 남아 있는 편이다. 그러나 이 책 역시 이미 여러 차례 복각復刻되었던 까닭에 자체字體가 영제암판과 비교하여 그다지 우수하지 못한 편이다.



27 |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영제암판 육경합부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寶藏 永濟庵板 六經合部
 刊年: 조선시대(1472년), 版式: 西開單邊, 半部 19.5×13.5cm, 無界, 半葉 8行17字, 無魚尾
 刊記: 正統五年庚申 華岳山水演電閣板, 跋文: 成化八年夏六月初吉 甲寅小字 全守選跋文
 合編: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脱境界普賢行願品, 大佛頂首楞嚴神呪, 觀世音菩薩禮文, 佛說阿彌陀經,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보물 제793-13호

28 |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화암사판 육경합부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寶藏 花岩寺板 六經合部
 刊年: 조선시대(1488년), 版式: 西開單邊, 半部 19.0×13.0cm, 無界, 半葉 8行17字, 無魚尾
 刊記: 弘治元年戊申四月日 全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 보물 제793-14호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중대사관 육경합부

조선초기에 전라북도 진안의 중대사에서 은증경을 비롯하여 여러 불경을 간행한 바 있는데, 이 책도 이 무렵에 함께 개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이미 성달생咸達生이 정서하여 1424년에 전라도 고산의 안심사에서 간행되었던 판본을 저본으로 복각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간행된 안심사판과 영재암판에 비해서는 그 판각술이나 지질 등의 품격이 훨씬 떨어지고 있다. 동일본이 전라남도 영광 불갑사 복장본에서도 보이고 있다.



29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중대사관 육경합부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復藏 中臺寺板 六經合部
刊年: 조선시대(1400년), 板式: 西周單邊, 半部 19.5×12.5cm, 無界, 半葉 8行17字, 無魚尾
刊記: 全羅道康安地中臺寺開刊, 보물 제793-16호



30 | 상원사목조문수동자라삼 복장 명주직삼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羅裳 明絹直衫
조선시대(15세기), 길이 72.0cm, 폭 189.0cm, 보물 제793-16호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명주적삼

명주적삼 뒷도리에 입는 홑옷으로 단삼單衫이라고도 한다. 명주는 경치서 바느질한 것으로 섬세하고 치밀하며, 고름은 가늘고 짧으며 저고리의 길이가 둔부를 가릴 정도로 긴 것이 특징이다. 이 명주적삼에는 피고름이 심하게 묻어 있는데, 세조가 앓던 피부병과 관련하여 세조의 어의로 추정하고 있다. 불심을 빌어 병을 치유하고자 했던 의지와 불상 조성애의 공덕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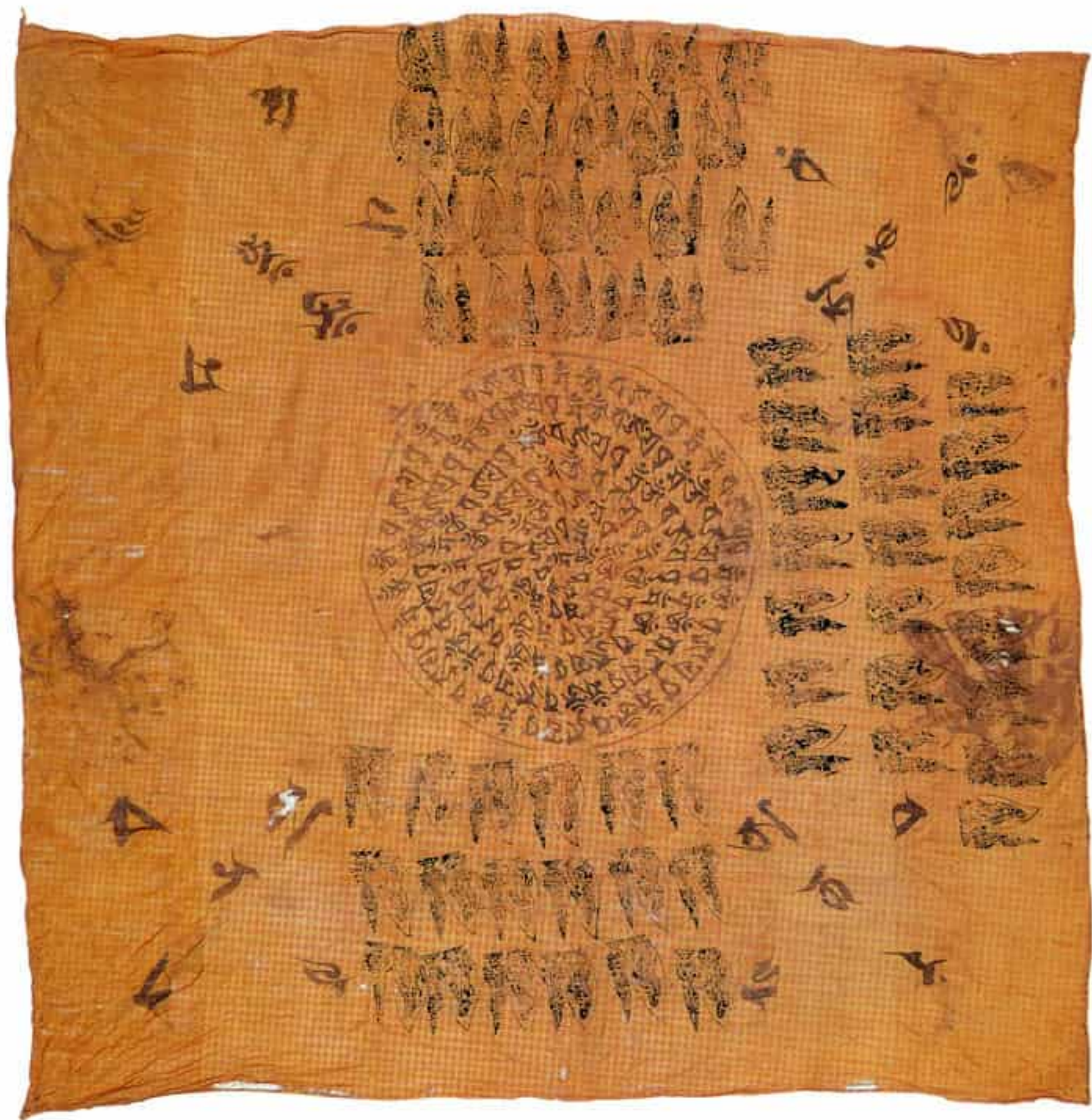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생명주적삼

고운 생명주로 만든 적삼으로, 앞뒤 소매와 뒷길에 빔어梵誦로 된 천수다라니판 千手多羅尼板이 6개 찍혀 있다. 이는 옷에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섶 안쪽에 '노씨부인魯氏婦人' 이라는 묵서가 쓰여져 있으나 언제 살았던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으며 다만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조성에 관계한 사람으로 추정될 뿐이다.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황초폭자

황초폭자는 후령통을 싸는데 사용되었던 황색 비단으로 중앙에 뽕자다라니가 적혀 있다. 크기는 사방 1척 5촌 정도이다. 이는 『조상경造像經』 의궤에 충실히 따른 것이다.



32 |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황초폭자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案 黃絹幅子
조선시대(15세기), 57.0×58.0cm, 길이 보물 제793-18호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무공수정주

의궤조상경에 의하면 '무공수정주일위심주아無孔水晶珠一爲心珠也' 라고 기록하고 있다.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화주

일명 화경火鏡이라고도 하며 햇볕에 비추면 불을 일으키는 구슬이다.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사리

참된 수행의 결과로 생겨나는 구슬모양의 유골遺骨로 부처님의 사리를 진신사리眞身舍利라고 한다. 석가모니의 열반涅槃 이후 그 제자들이 다비荼毘 후 나온 많은 사리를 인도 여덟 나라에 분배 봉안한 이래 사리신앙이 생겨났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장율사慈藏律師께서 사리를 처음 들여온 이후 이에 대한 예배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조선초기 왕실을 중심으로 진신사리에 대한 신앙이 매우 성행하였다.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사리는 세조世祖가 직접 납입納入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다.

- 35 | ①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무공수정주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寶藏 無孔水晶珠
조선시대(15세기), 높이 3.5cm, 폭 4.0cm, 지름 3.7cm, 보물 제793-20호
- 36 | ①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화주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寶藏 火珠
조선시대(15세기), 지름 0.9cm, 보물 제793-22호
- 37 | ①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사리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寶藏 舍利
조선시대(15세기), 지름 0.2cm, 보물 제793-21호



①



②



③

3. 불보살상과 복장유물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문수도량의 주존主尊인 비로자나불상이다. 왼손의 검지끝 오른손 주먹으로 감싼 지권인智拳印이 아니라 오른손을 왼손이 덮어버린 형태인데 이러한 수인은 조선시대에 유행하던 권인拳印이다. 법의法衣의 양식은 조선초기 불상의 것과 유사하지만 이목구비가 실약하게 표현된 얼굴 모습은 조선후기 불상에서 보여지는 특징이다.

북장에서 광서光緒 20년(1894)명 발원문과 융희隆熙 2년(1908)명 개금발원문, 그리고 1456년 신미信眉가 발원하여 관각한 다라니가 1매 발견되었다. 조선초기의 불상을 모델로 하여 19세기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범서

隨來一字切德極神又集靈呪刊施無窮奉持惟 簡冥資悉均以無災難何患洗滌願特 靈護 聖上遊給祥疑四望慶洽 朝庭崇飾之暇 咸悟無生廣資 思有今出大口 景泰 丙子夏比丘 信眉 學悅 施王永嘉府夫人 申氏 永順君阿枝李氏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중수발원문

光緒二十年甲午初十日起始十六日回向於五坵山月精寺奉安於中坵香閣 緣化 秩 證明日峰環都 誦呪冰海景學 持觀比丘觀性 金魚普庵肯法 惠山竺衍 梵化潤 益 比丘昌熙 沙彌性敏 雲照 鐘頭沙彌惠明 奉茶沙彌啓調 供司沙彌永秀 都監 大隱昨珍 別座雲庵東琳 化主濟庵應荷 施主秩 尙宮清信女壬寅生申氏善德華 尙宮清信女戊午生崔氏華藏月 尙宮清信女甲寅生趙氏善賢行 以此因緣功德皆 共成佛道



願文
光緒二十年甲午初十日起始十六日回向於五坵山月精寺奉安
於中坵香閣
緣化秩
證明日峰環都
誦呪冰海景學
持觀比丘觀性
金魚普庵肯法
惠山竺衍
梵化潤益
比丘昌熙
沙彌性敏
雲照
鐘頭沙彌惠明
奉茶沙彌啓調
供司沙彌永秀
都監大隱昨珍
別座雲庵東琳
化主濟庵應荷
施主秩
尙宮清信女壬寅生申氏善德華
尙宮清信女戊午生崔氏華藏月
尙宮清信女甲寅生趙氏善賢行
以此因緣功德皆共成佛道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개금발원문

同時改金尊像座目 中臺獅子庵 毘盧遮那佛一位 上院僧堂 釋迦牟尼佛一位 上院 大雄殿 阿彌陀佛一位 身而上 觀世音菩薩一位 文殊菩薩一位 文殊童子一位 東 臺 觀世音菩薩一位 大寺東別室 觀世音菩薩一位 此尊爲主 上院大雄殿 身開座 坵 緣化所 證明水月音觀 鐘頭印文 焦友定歇 晴湖學密 應海三愚 智光滿應 持觀 比丘龍翼 誦呪巖峯妙根 金魚片手虎峯性煜 豐谷義法 雲潭宜荷 寧隱法眼 比丘 道輝 信士惠山 奉茶沙彌永悟 鐘頭比丘文許 供司比丘慧顯 淨補比丘巨支 別供 沙彌奉胤 別座比丘東日 都監通林奉仁 化主雲巖 智泉 山中大德 鏡潭善眞 首僧 文許 三綱德攝松虎莊嚴 書記 滿給 施主秩 尙宮張氏妙心花 尙宮金氏淨德行 尙 宮鄭氏大德花 尙宮李氏普光明 信士韓氏增長 信女崔氏大慈心 隆熙二年戊申五 月十五日改金奉安

同時改金尊像座目
中臺獅子庵
毘盧遮那佛一位
上院僧堂
釋迦牟尼佛一位
上院大雄殿
阿彌陀佛一位
身而上
觀世音菩薩一位
文殊菩薩一位
文殊童子一位
東臺
觀世音菩薩一位
大寺東別室
觀世音菩薩一位
此尊爲主
上院大雄殿
身開座
坵緣化所
證明水月音觀
鐘頭印文
焦友定歇
晴湖學密
應海三愚
智光滿應
持觀比丘龍翼
誦呪巖峯妙根
金魚片手虎峯性煜
豐谷義法
雲潭宜荷
寧隱法眼
比丘道輝
信士惠山
奉茶沙彌永悟
鐘頭比丘文許
供司比丘慧顯
淨補比丘巨支
別供沙彌奉胤
別座比丘東日
都監通林奉仁
化主雲巖
智泉
山中大德
鏡潭善眞
首僧文許
三綱德攝松虎莊嚴
書記滿給
施主秩
尙宮張氏妙心花
尙宮金氏淨德行
尙宮鄭氏大德花
尙宮李氏普光明
信士韓氏增長
信女崔氏大慈心
隆熙二年戊申五月十五日改金奉安

- 39 |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개금발원문 中臺獅子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改金發願文 조선시대(1908년), 29.0×50.0cm
- 40 |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범서 中臺獅子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梵書 조선시대(1456년), 27.0×40.0cm
- 41 |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중수발원문 中臺獅子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重修發願文 조선시대(1894년), 36.0×30.0cm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좌상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짓고 있는 불상으로 육계 표현이 분명치 않고, 크고 뽀족한 나발髮鬘이 촘촘하며 반달형의 중간계주와 정상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신체는 사각형의 얼굴과 움추린 어깨, 평판적인 가슴, 내민 배, 높고 짧은 무릎 등 경직된 형태이다. 법의는 통견通肩 형식이나 오른팔을 노출시킨 채 오른쪽 어깨에 살짝 걸쳐져 마치 갑옷을 걸친 것처럼 보이며 주름이 매우 두껍게 표현되어 있다. 복장으로 출토된 조성원문에 의하면 1710년 북대北臺 고운암孤雲庵의 본존 석가불로 조성되었으며 광습廣習, 찬흠贊訖, 서희熙熙가 함께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작연대와 제작자, 봉안처 등이 확실하여 조선후기 불상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42 |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좌상 月精寺 北臺 孤雲庵 木造釋迦如來坐像
조선후기(1710년), 높이 43.5cm, 폭 27.5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釋迦如來左補處慈氏彌勒菩薩右補處提也揭羅維菩薩
三尊造成功德不可勝言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亦汝衆生
當生極樂國凡見無量壽皆共成佛道

康熙四十九歲次庚寅初夏江陵府西嶺五臺山北臺孤雲菴統記
山中列錄 本寺秩

大德八敬比丘 前住持依仗

大德宜莊比丘 前住持瑞刹

大德道淨比丘 時首僧呂淨

大德高淨比丘 使庫首僧弘允

老德無峻比丘 緣化列錄

大德大振比丘 證明竺瓊

老德宗信比丘 持殿妙淨

能行比丘 畫員廣習

智照比丘 齋戒

學峯比丘 瑞照

高天比丘 供養主信敏

依信比丘 性照

弘允比丘 來往 道明

玉訥比丘 負木 念心

上院持殿元敏 慈悲別座道人曇期

老德信通 慈悲大功德主道人秋謙

信通比丘 大德體信

大德體信 靈海

雙湖

或敏

休木大施主幻學崔煥月主保休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조성기
顯文
夫此尊者洪治八年壬寅之春懶翁大和尚親躬初創其年木像 釋迦彌尊歲代具存乙
丙兩年當年驗歲空虛之時所造 佛相不知玄處大白金剛往來慈愛道人秋謙者來到
此聖蹟 在爾若佛無所見之嘆慨然發心神疏動輪之文檀越施主 之家異取斗斗之
布庚寅四月初旬始役畢役五月念四因點眼 釋迦如來左補處慈氏彌勒菩薩右補處
提花揭羅菩薩 三尊造成功德不可勝言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亦汝衆生 當生
極樂國凡見無量壽皆共成佛道 康熙四十九歲次庚寅初夏江陵府西嶺五臺山北臺
孤雲菴口天記 山中列錄 大德八敬比丘 大德登苻比丘 大德道淨比丘 大德高淨比
丘 老德無峻比丘 大德大振比丘 老德宗口比丘 能行比丘 智照比丘 學峯比丘 尚
天比丘 依信比丘 弘允比丘 玉訥比丘 上院持殿元敏 老德信 口信 口比丘 大德體
信比丘 淳羅比丘 依願比丘 大德比丘 成敏比丘 本寺秩 前住持依仗 前住持瑞刹
時首僧 呂淨 使庫首僧弘允 緣化列錄 證明竺瓊 持殿 妙淨 畫員廣習 齋戒 瑞照
供養主信敏 性照 來往 道明 負木 念心 慈悲別座道人曇期 慈悲大功德主道人秋
謙 施主秩 黃金布施供養引勸兼 大施主京城內金氏舍堂 妙淨 布施大施主金氏實
陪 兩主 引勸大施主舍堂花德保休 眞口布施大施主李氏香舉保休 布施大施主金
仁興兩主保休 引勸兼大施主黃向諱兩主保休 施主趙貴男兩主 請信居士元信兩
主 請信居士信翁兩主 嘉善洪粹一兩主 沈毛奴身兩主 沈天信兩主 李唯仁兩主
李次敏兩主 金時黃兩主 休木大施主幻學崔煥兩主保休

43 |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조성기 月精寺 北臺 孤雲菴 木造釋迦如來坐像 復藏 造戒記
조선시대(1710년), 35.0 x 65.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夫此卷者洪治八年壬寅之春懶翁大和尚親躬創其年亦像
 釋迦獨尊歲次具存乙丙丙年荒年驗歲空虛之時所造
 錦相不知去處大白金剛經末慈悲道人叙誦者未到此卷雖
 在蘭石佛無所見之嘆慨然發心神疏勸軸之文檀越記主

願文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후령통

원통형의 동계 후령통으로 안에는 청·홍·백·녹·황색 형질의 오보병五寶瓶이 각각 오색실에 감겨 있으며, 오색실은 모이지 관엽개八葉蓋 및 뚜껑과 연결되어 있다.



44 |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여래좌상 복장 후령통 月精寺 北臺 高雲庵 木造釋迦如來坐像 腹藏 銅筒 朝鮮시대(1710년), 높이 6.2cm, 지름 3.5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영원사 목불좌상

원주 영원사 圓鏡寺에 봉안되었던 불상이다. 사각형의 얼굴에 가는 눈과 작은 입, 눈썹 사이로 들출한 높은 코 등은 1700년 전후 목불상 양식의 특징을 보여 준다. 육계 표현이 불분명하여 둥글게 보이거나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정상계주는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고 큼직한 나발髮鬘이 촘촘히 새겨져 있다. 신체는 평판적이나 세장한 형태이며 어깨가 좁고 약간 앞으로 움츠렸으며, 통견通肩의 불의佛衣는 두겹고 배 아래로 길게 내려와 중앙에서 모아지는 착의법着衣法 역시 이 시기 불상 표현의 특징이다. 양 손은 별도로 조각하여 손목에 끼워 넣었는데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댄 특이한 형태로 하중중생인을 의도한 것 같다. 왼손의 2·4·5지는 남아있지 않다. 후평통과 능엄경, 법화경 등 불장의 일부가 발견되었으며, 조성기는 현재 없어서 정확한 조성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양식적 특징으로 보아 1700년 전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45 | 영원사 목불좌상 圓鏡寺 木佛坐像
조선시대, 높이 60.0cm, 폭 42.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영원사 목불좌상 복장 폭자

녹색폭자는 후령통, 적색폭자는 발원문을 써서 복장으로 넣었다.

46 | 영원사 목불좌상 복장 폭자 佛經寺 木佛坐像 敷藏 幅子
조선시대, 녹색폭자 25.5×26.0cm, 적색폭자 25.5×20.5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영원사 목불좌상 복장 후령통

원통형의 동제 후령통으로 안에는 청·홍·백·녹·황색 형질의 오보병五寶瓶이 각각 오색실에 감겨 있으며 그 위를 팔업봉八業筒이 감싸고 있다. 이들은 녹색목자綠色緋子에 싸여 있었다.

47 | 영원사 목불좌상 복장 후령통 延願寺 木佛坐像 腹藏 銅鈴筒
조선시대, 높이 10.0cm, 지름 3.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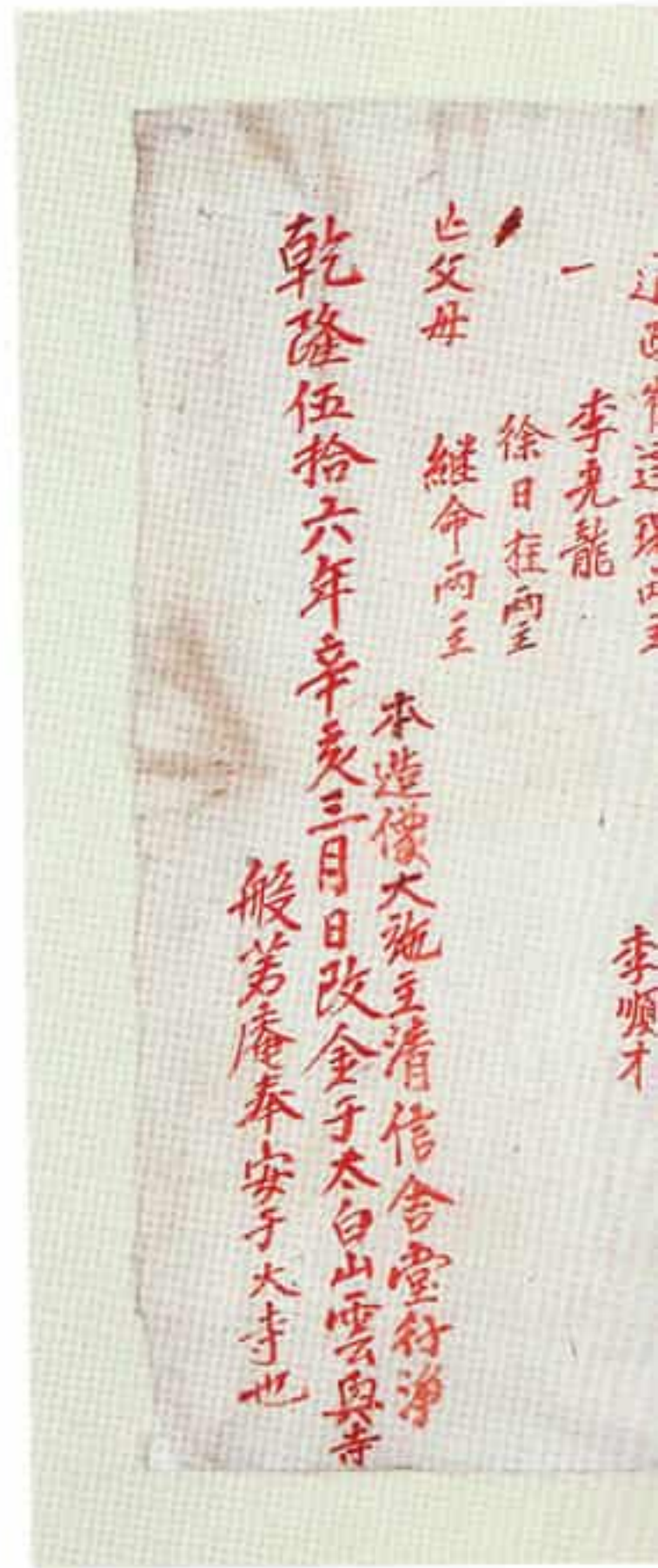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중형의 목불상으로 전체적으로 단정한 형태이다. 머리와 상호相好의 표현, 평관적인 신체, 두껍고 무겁게 흐르는 법의法衣 표현 등 석가여래좌상이나 영원사불상 등과 유사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양손을 들어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는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복장으로 출토된 원문에 의하면 홍안弘眼, 한영漢英, 장순廣淳, 신겸信謙 등 6인이 함께 조성한 아미타불로 1791년 삼척 운흥사雲興寺 반야암般若窟에서 개금한 것이다.



50 |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雲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조선시대(1791년 개금), 높이 43.3cm, 폭 27.5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51 | 운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후령통 雲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藏藏 後鈴筒
조선시대(1701년 개금), 높이 5.9cm, 지름 3.6 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陀仏願文

爲此仏事功德林覆蔭上中下壽類 主上三殿壽無量 國界恒寧壽轉世大小檀那增
五福緣化列局成共佛神悅 人歡護天龍雨順風調長歲稔見開隨喜遠興近同欣結緣
俱成覺緣化秩 引牛瀛華堂大活 枕波堂戒尤 誦呪首坐 有弘 持殿首坐 位燁 良工
聖殿堂弘韻 漢英 廣淳 八定 良工 信謙 巨英 化主比丘首坐慶幸 軌宗 別坐首坐
載玄 大施主秩黃金大施主 金大福長命之類 沈貫珠長命之類 通政崔逢頊兩主 李
光龍 徐日柱兩主 亡父母繼命兩主 供養秩 首坐定隆 智暹 千定 奉恬 等萬 等會 碩
初 居士軌學 來往山人奉曼 敏設 同願金大根 權連龍 權連松 金性輝 李順才 本
造像大施主清信舍堂行淨 乾隆伍拾六年辛亥三月日改金于太白山雲興寺 般若
庵奉安于大寺也

陀仏 願文

成此仏事功德林覆蔭上中下壽類 主上三殿壽無量
國界恒寧壽轉世大小檀那增五福緣化列局成共佛神悅
人歡護天龍雨順風調長歲稔見開隨喜遠興近同欣
結緣俱成覺

緣化秩

引牛瀛華堂大活

枕波堂戒尤

誦呪首坐 有弘

持殿首坐 位燁

良工聖殿堂弘韻

漢英

廣淳

八定

信謙

巨英

化主比丘首坐慶幸

軌宗

別坐首坐 載玄

大施主秩黃金大施主

-6 493 34 545" data-label="Text">

金大福長命之類

供養秩

首坐定隆

智暹

千定

奉恬

等萬

等會

碩初

居士軌學

來往山人奉曼

敏設

同願金大根

權連龍

權連松

金性輝

-6 617 34 669" data-label="Text">

李順才

妙法蓮華經卷第一
 溫陵開元蓮寺比丘 戒環 解
 開釋科五 初通釋經題
 實相妙法巧喻蓮華內則直指乎一心
 外則該通乎萬境方花即果處深常淨
 此蓮之實相也生佛本有淪變靡殊此
 心之實相也其狀虛假其精甚真此境
 之實相也心境萬類通謂之法精粗一
 致九聖同源即諸世諦觸事而真言詞



53 | 문흥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 최암사관 보법전과경 권1 靈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藏殿 極岩寺板 妙法蓮華經 卷一
 刊年-조선시대(1650년 復刷), 西岡雙蓮, 半割 22.8x16.0cm, 有界, 半葉 8行10字, 大界以:上下内向萬魚尾
 極岩寺 止子 山人道閑開刊 東坡湖書, 庚辰二日刻 雙玉 蓋書 顯治十六年己亥四月日 印經, 京營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금동육수관음보살좌상

여덟 장의 잎을 세워놓은 듯한 화려한 보관寶冠을 쓰고 있으며, 보관 속으로 마치 그릇을 이층으로 얹어놓은 듯한 높은 보발寶髮이 솟아 있고 일부는 어깨 위로 굽게 흘러 내려와 있다. 역삼각형에 가까운 얼굴에 이목구비가 가늘고 예리하다. 큼직한 귀걸이, 화려한 목걸이와 어깨에서부터 가슴 아래로 길게 내려온 영락, 팔찌 등 장식이 화려하며 신체의 표현과 옷주름선 등 유연한 조각술을 보여주고 있다. 가는 허리와 너른 무릎 그리고 양련과 복련이 대칭으로 맞붙어 있고 상하에 연주문蓮珠文이 둘러져 있는 화려한 대좌의 형태가 안정감 있는 삼각

형의 구도를 이룬다. 이러한 특징들은 라마교 불상 양식을 수용한 명대明代 불상 양식의 특징들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초기에 이러한 양식의 불·보살상들이 제작되었다. 이 관음보살상은 중국의 명대초기 혹은 조선초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상호 표현에서 이질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 명대 보살상일 가능성이 높다. 불상의 복장 안에 조성기는 남아 있지 않지만 동치同治3년(1864) 향로전에 봉안했다는 것과, 광서光緒 16년(1890)과 1980년에 개금했다는 발원문이 남아 있다.

54 | 금동육수관음보살좌상 金銅六手觀音菩薩坐像
조선초기 혹은 명대, 높이 45.0cm, 폭 23.5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3호







보덕사 관동현 석조약사여래좌상

양손을 모아 약합(藥盒)을 들고 있는데 손모양으로 보아 약사여래로 볼 수도 있으나 치성광여래로 조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상체를 약간 숙인 자세로 앉아 양손을 모으고 있으며 얼굴은 사각형의 넓적한 형태이다. 양 미간이 넓은 점, 섬약한 이목구비의 모습 등 성스러운 불안(佛顔)이라고 보다는 경거용이 느껴지는 인간적인 상모를 갖추고 있다. 통견의 불의(佛衣)는 두텁게 온몸은 감싸고 있으며 가슴 아래로 깊게 파인 주름이 표현되지 않았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불상으로 대의(大衣) 표면에 문양이 시문된 점이 특이하다.



지장암 목조지장보살불감

원통형의 불감佛龕으로 안에는 지장보살과상이 모셔져 있고, 좌우분의 안쪽에는 각각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이 부조되어 있어 문을 열면 지장삼존의 도상을 이루고 있다. 지장보살은 성문비구형髻開比丘形의 머리이며, 양손은 무릎 위에서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각기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어 일원사아미타불상과 같은 모양임을 알 수 있다. 도명존자는 합장한 비구형比丘形이고, 무독귀왕은 관을 쓴 제왕형帝王形의 도상으로 양손은 소매 속으로 감추어져 있다. 사각형의 얼굴, 움츠린 평판적인 신체, 도식적인 옷주름처리 등 17-18세기 불상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56 | 지장암 목조지장보살불감 地藏庵 木造地蔵菩薩佛龕
조선시대, 불감높이 29.0cm, 개문폭 34.0cm, 배문폭 15.0cm



4. 불화



영원사비로자나후불탱화

원주 영원사내 聖寺에 봉안되었던 비로자나불화이다. 중앙에 지권인寶華印을 결하고 앉아 있는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8보살과 사원왕 그리고 용왕과 용녀가 엄격하게 좌우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배경은 모두 구름으로 채워져 있다. 본존이 비로자나불임에도 좌우협시보살이 관음과 세지보살로 표현되어 있어 특이하다. 키형 광배를 지닌 비로자나불은 높은 대좌에서 결가부좌跏趺坐하고 있는데 광배의 내연에는 연주문이 둘러져 있고, 불의佛衣에는 간략한 꽃무늬가 시문되어 있다. 본존은 물론 각 존상의 균형잡힌 신체와 가름하고 단아한 얼굴, 자극히 작게 표현된 이복구비, 예리한 표선으로 표현된 치밀한 구성, 어둡고 탁한 암적색과 암녹색의 구사 등 18세기 후반 불화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균열과 채색의 박락이 심하지만 안정된 구성과 치밀한 묘사법이 돋보인다. 화기를 온전히 남기고 있어 조선후기 불화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며, 오관愼寬을 비롯한 7명의 화승畫僧이 공동 제작하였다.

화기 : 乾隆二十四年己卯十一月二十一日 點眼奉安原州雄岳山鍾鷲寺 大功德主鶴松堂大師天心 新巖堂證明淨演 嬰頓施主張起山兩主 權鎮昌兩主 子普瑞 具欽同兩主 子順萬 任讓口兩主 任重世兩主 化主秩 字汝區鳳堂大士 再開別座 道羅 都監 疊口 京城化主明月 舍堂覺順 甲辰生朱氏兩主 嬰頓施主 朴氏 處士明殷兩主 處士明顯兩主 六性 就談 覺敏 日暹 性修 仁謙 弘顯 納茅 金魚 愼寬 華雲 妙心 扶溫 嚴演 妙然 覺岑 供養主 宇仁 道玉 松淵 色掌宗云 信尊 戒監 守明說白 肯喙 木樺 等從 普益 處仁 編演 漢敏 有演 泰原 肯德普豐 三寶官宜 韓順伊兩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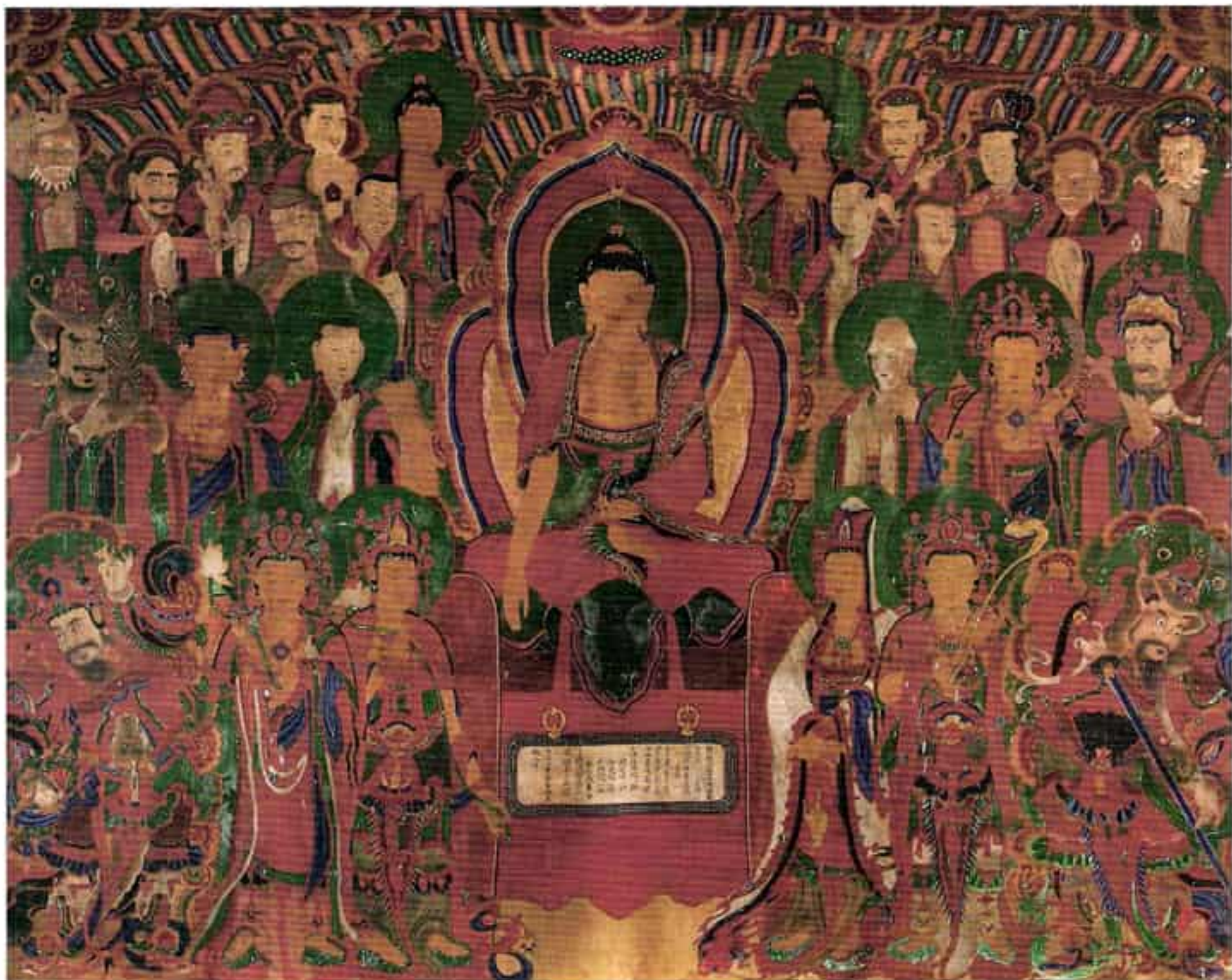


57 | 영원사비로자나후불탱화 雄岳山鍾鷲寺寶華印後佛佛畫
조선후기(1759년), 비단에 채색, 178.5×204.0cm, 김원도 유형문화재 제134호





581 보리사사성전후불탱화 및 우림동 福壽寺四聖菩薩像佛畫 및 佛菩薩
조선시대(1866년), 비단에 채색, 178.0 × 227.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59 | 봉곡사석가모니후불탱화 鳳窟寺釋迦牟尼後佛幀, 김재경김기(1913년), 비단에 채색, 162.0 × 209.0cm

봉곡사석가모니후불탱화

황성 봉곡사鳳窟寺에 봉안되어 있던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이다. 장식성이 강한 광배를 두른 석가모니불을 중앙에 모시고 층단을 나누어 제일 하단에는 관음·세지·문수·보현보살, 그리고 남방 증장천왕과 서방 광복천왕을 표현하였다. 그 윗단에는 가섭과 아난, 미륵과 지장, 동방 지국천왕과 북방 다문천왕을 차례로 배치하였다. 상단에는 용왕과 용녀, 십대제자들을 표현하였는데 그 주위로 색색의 광선이 뿜어나가고 있다. 화사 두홍斗欸의 작품으로서 전체적으로 붉은색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층단의 화면구성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가로로 길어진 역자형의 화면에, 화기畫記가 대좌의 하단에 기록된 것이 이해된다.

화기 : 證明 比丘翠雲持基 誦呪 比丘慶修 持殿 比丘柱庵應典 金魚 片手 翠庵斗欸 比丘義雲尙恩 比丘普明尙悟 上壇後佛幀一軸 獨空幀一軸 神衆幀一軸 山神幀一軸 新造成奉安于橫城郡德高山鳳窟寺留藏 大正二年癸卯四月初八日 大施主林江洪川郡南面諸口里居住 庚子生崔承三 甲川面李斗口 乾命李玉根 乾命金聖天童子 李在福 本面而長郭口口 金施主 坤命丙戌生韓口口 女息戊申生羅童 次女辛戌生順童 橫城嶺項 清信女朴氏德雲華 清信女柳氏淨德華 松竹里 李顯求 本邑上洞 乾命柳大口 己酉生朴高木卜洞 坤命壬子生口口 童子方成口口 甲川面口口口口 童子口口 以此因緣 口口口口 口口口口 口口口口



60 | 백련암아미타후불탱화 白蓮庵阿彌陀後佛繪畫, 조선시대(1850년), 비단에 채색, 96.0×146.0cm

백련암아미타후불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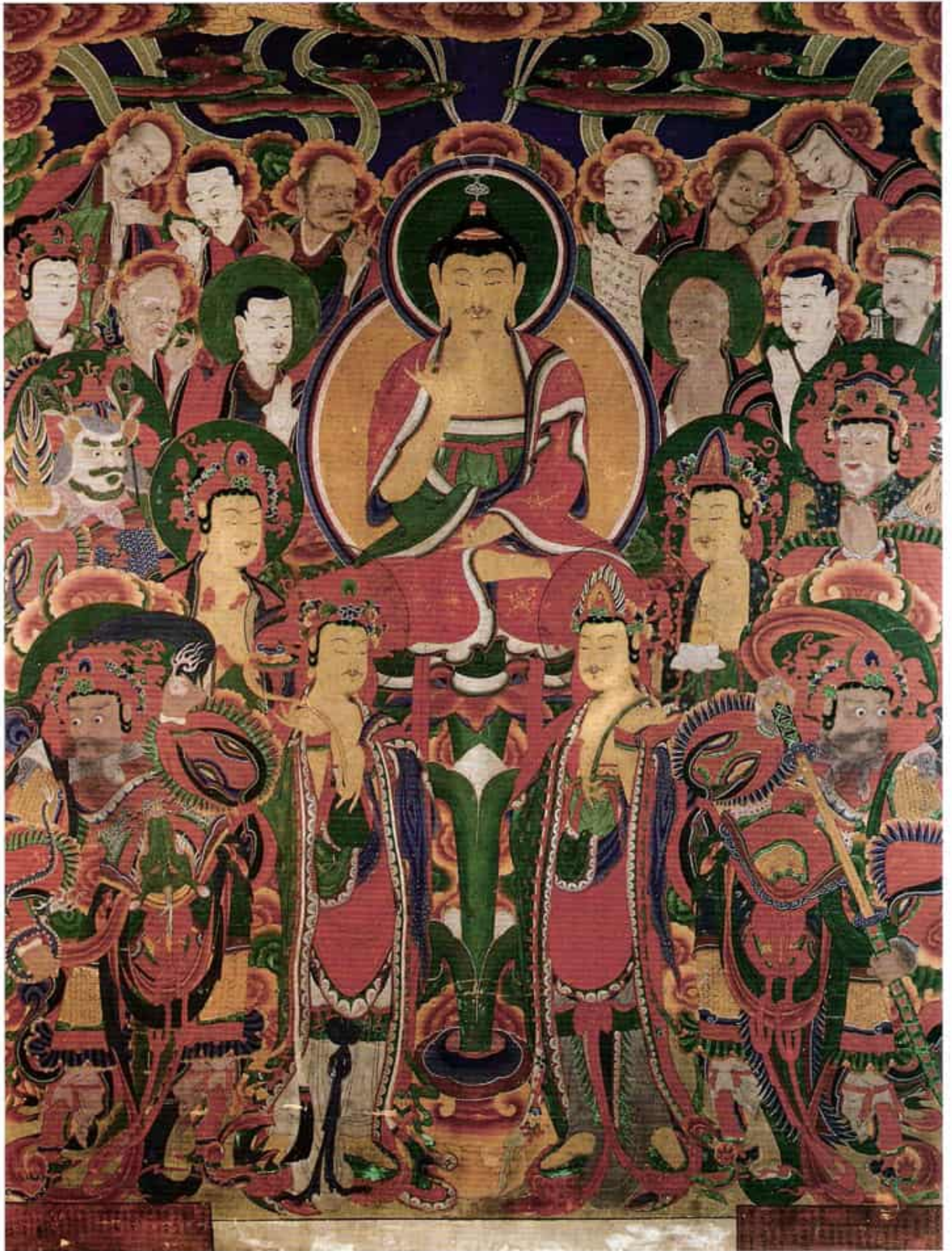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협시인 관음,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4보살과 사천왕이 좌우에 자리하고, 상단에는 10대 제자와 용왕, 용녀가 배치되었다. 가로로 긴 화면에 맞춘 듯 협시보살은 반가좌, 사천왕은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 19세기 불화에서는 존상의 이목구비 표현이 보편적으로 심약하게 표현되는데 이 불화에서는 특히 대우가 높고 작게 표현되었다. 화면 전체가 그윽음 등으로 채색층이 겹겹이 변색되어 심약한 존상의 상호가 더욱 불화스럽다. 백련암이라는 암자는 《증보임영지증보臨瀛誌》에 “在普賢寺南洞 普賢寺”의 기록이 있어 강릉 보현사 인근 암자로 추측된다.

화기: 咸豐六年二月初一日 點眼白蓮庵移于初三日奉安 證師 鶴虛定安 誦呪 南
講處順 金集 永熙 相直 化主兼大功德 華學 供養主 比丘官汝 善德 持殿 仁賢

신흥사아미타후불탱화

삼척 신흥사新興寺에 봉안되었던 아미타회상도阿彌陀會上圖이다. 중앙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좌·우협시로는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다. 동·남·서·북의 사천왕을 대칭적으로 안치하고 가섭과 아난 그리고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묘사하였다. 광배에서 두 갈래로 뿜어나온 선은 아미타불의 끝없는 광명을 나타내고 있다. 신흥사에 봉해졌던 이 불화는 19세기 중엽부터 강원도 지역의 불화를 주도한 금강산화파의 축연쓰림과 절유쓰림에 의해 그려졌다. 아미타불의 양 협시와 권속의 배치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 조선후기 불화의 양상을 보여주며, 불·보살의 상호에 음영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 말기에 새로이 등장하는 서양화법의 영향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화기: 光緒元年乙亥十一月日 造成奉安于新興寺 緣化秩 證明 豐山宜允 徑岳普衡 誦呪 總峯斗性 比丘仁和 金魚 比丘權夏 比丘竺衍 片手 比丘誌備 比丘性云 比丘廣暉 持殿 比丘取淵 俱司 比丘三秋 奉茶 沙彌輝暎 鐘頭 比丘炳環 都監 比丘性華 別座 比丘廣秋 化主 比丘敦學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皆共成佛 山中秩 豐山宜允 仁谷巨允 德庵弼維 海運弼典 慶山和演 奇松芝洙 比丘富仁 比丘性華 比丘敦學 比丘仁察 比丘廣秋 比丘廣彥 比丘法雨 沙彌敦順 沙彌智弘 沙彌明學 沙彌敦益 沙彌性洽 沙彌應貞 沙彌口口 沙彌昌善 沙彌惠原 沙彌戒期 沙彌輝暎 童子致玉



61 | 신중사아미타부처상당의 龍興寺阿彌陀佛佛龕畫, 조선시대(1675년), 비단에 채색, 172.0 × 135.0cm

영은사괘불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그린 영산회상도이다. 향마축지인을 위한 석가여래가 중앙에 크게 자리하고 협시인 문수와 보현보살을 비롯한 8대 보살, 10대 제자, 범천과 계석천, 사원왕, 팔부중 가운데 2구, 8급강, 용왕, 용녀, 호계대신, 복덕대신 등이 본존의 좌우에 대칭으로 운집해 있다. 존상의 이목구비는 매우 가늘고 작으며 성문과 신장상의 얼굴에는 음영을 주어 입체감을 표현하고 있다. 문양은 모두 작고 잔잔하게 표현되었으며 특히 옷 끝단의 잔잔한 국당초문(國唐草文)은 이 시기의 불화에 자주 시분되었던 문양이다. 전반적으로 채색이 두껍게 칠해졌고 코발트 빛 청색과 공작석 빛의 녹색, 호분 등의 사용이 두드러지며, 채운(彩雲)은 매우 도식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상은 모두 19세기 불화의 보편적인 양식적 특징들이다. 경성당(慶聖堂) 공준(公濬) 외 9명의 금어(金魚)가 공동 제작하였다.

화기: 咸豐六年丙辰二月日 掛佛靈山輔書新造成奉安于南嶺太白山靈隱寺八相殿 證師 比丘無碍堂永哲 比丘應雲堂文益 比丘義嚴堂藏威 金魚 比丘環樓堂青濤 比丘青濤 比丘性忤 比丘懿岑 比丘謙宗 比丘昇略 比丘仁澤 比丘水沈 比丘在元 誦祝 比丘南液堂處順 比丘真嚴堂聖面 比丘仁峇堂巨光 比丘補月堂竺汝 供養主 比丘樹玉 比丘不睡 比丘慧哲 鐘頭 比丘幸仁 比丘幸流 都監 比丘西巖堂宇性 別座 比丘雲坡堂奕隱 三綱僧統 比丘巨活 書記 比丘永添 首僧 比丘彰華 山中樵 靈松堂守澄 比丘枕月堂妙倪 通政 比丘善添 比丘性一 比丘竹明 比丘仁先 施主 大施主 比丘雲坡堂奕隱 比丘華嶽堂遇學 比丘影潭堂繼俊 比丘宇專 比丘法演 比丘巨活 比丘永添 比丘丕贊 比丘善添 比丘性一 大地主 趙盛業 金俊彦 金致球 金成學 金宗建 尹尙根 李成順 朴應湖 尹益凡 朴宗雲 黃致雨 金夏列 辛正益 李致源 黃海壽 李成宗 李成富 李善興 趙繼錫 朴祥孫 辛成彬 山中沙彌樵 戒學 順補頭 郭清 宗憲 寶彦 奉文 郭順 願以此功德大小結緣同參施主 比丘檀越 各各保體現僧嗣壽 後生極樂之大觀



운수암관음변상탱화

관음보살은 언제 어디서나 고통으로부터 중생을 구제하고 안락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존재로 일반 대중에게 가장 친근한 보살로 신앙되어오고 있다. 또한 관음보살은 제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알맞은 모습으로 몸을 자유자재로 바꾸어 중생을 제도해주는 신통력을 지니기도 한다. 이 그림은 선재동자공파童子의 방문을 받고 그에게 수기經記를 주는 관음보살의 모습을 그린 간단한 도상이다. 관음보살은 원형의 두광彌光과 키형의 신광身光을 지니고 있으며 머리에는 금강저술髮作과 같은 독특한 모양의 보관을 쓰고 있다. 두광의 좌우에는 '관음보살 변상觀音菩薩變相', '남순동자마경수南巡童子摩頂手'라 기록되어 있다. 관음보살의 복장이 선재동자의 것과 유사하고, 보관만 뿔을 뿔 얼굴도 동안顔面이어서 관음이 동자를 제도하기 위해 동자의 몸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 그림은 관음 33용신의 한 장면인 동남신효男身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보타락가산에서 선재동자의 방문을 받는 관음보살의 모습은 고리시대 이후 많이 그려진 수원관음도水川觀音圖의 도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선후기 불화 중 이처럼 관음 자신의 몸을 변화한 용신 장면을 그린 불화는 유례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관음변상탱화는 희귀한 도상의 불화라 할 수 있다. 검은 바탕에 금선으로 그린 선묘화線描로서 환달하고 유리한 필선이 잘 드러나 있어 화원 신점信謙의 필력이 돋보인다.

화기: 乾隆伍拾伍年十一月日 造成雲水庵 證師 杓波堂成允 良工 信謙



63 | 운수암관음변상탱화 雲水庵觀音變相繪畫
조선시대(1790년), 흑색 비단에 금선묘, 61.0×43.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7호





구룡사삼장보살탱화 및 복장유물

삼장보살탱화 도상의 유래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지장보살 신앙이 심화되고 확대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만 형성되어 발전한 독특한 도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천장보살天藏菩薩·지지도살地持菩薩·지장보살地藏菩薩과 그 권속을 그린 불화이다. 천장보살의 권속은 진주眞珠·대진주大眞珠보살 및 천부중天部衆이고, 지지도살의 권속은 용수龍樹·다라니院羅尼보살 및 신중神衆, 지장보살의 권속은 도명존자道明尊者와 무독귀왕無毒鬼王 그리고 시왕十王 등이다. 존상의 배치는 중앙에 천장보살, 그 왼쪽에 지지도살, 오른쪽에 지장보살이 나란히 앉아 있으며, 이들 아래에는 협시들이 시립하여 있고, 삼장보살의 좌우 어깨에는 권속들이 뻗뻗이 묘사되어 화면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다. 세 보살은 각기 높은 수미단 위의 연화좌에 결가부좌하고 설법인법法印을 짓고 있는데 지지도살은 왼손에 경책經冊을, 지장보살은 오른손에 보주寶珠, 왼손에 석장錫杖을 잡고 있다. 각 존상은 둥근 얼굴에 턱이 뾰족하고 이목구비는 매우 작고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단정하고 중위 있는 모습이다. 치악산 구룡사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화원 백기白基와 영취庵暉가 제작한 이 삼장탱화는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이고, 치밀한 구성, 단아하고 아름다운 얼굴의 묘사, 정치한 묘선과 섬세한 문양의 표현, 화사하고 밝은 색조, 테두리를 밝게 표현한 적색과 녹색의 구름 모습 등 매우 우수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존 조선후기 불화 중에서도 제작 연대가 이른 불화이다.







보현사 16나한행화

성문행간의 최고 수준인 아라한과예羅漢圖에 도달한 나한圖像들은 미륵이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 떠돌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이다. 나한도는 보통 산수를 배경으로 한 자유스럽고 다양한 모습의 나한들이 표현된다. 보현사나한행화는 16나한을 4쪽에 나누어 그렸는데 이 중 두 쪽에는 각 5명의 나한이 그려지고, 나머지 2쪽에는 각 3명의 나한이 그려졌으나 현재는 5명씩 그려진 나한도 2쪽만 남아 있다. 이들은 자유롭고 일탈한 성격을 드러내듯 각기 개성 있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동력이 뛰어나서 신령스러운 동작들을 마음대로 화공하는 모습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호리병 속으로 용을 끌어들이는가 하면, 이의주로 용을 화공하고, 경전을 읽는 등 제각기 다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의 산수는 청록산수계열靑綠山水系列이며, 채색은 붉은 수석, 향로, 책꽂이, 꽃병, 사슴 등 대부분의 장식물과 회화 요소 등은 민화를 연상케 한다.

화기1 : 光緒八年壬午三月十三日 大雄殿三尊聖像灵山殿十六尊像兩帝釋改彩與各部續并現王翰點眼奉安于江陵府普賢寺 緣化秩 證明 義龍取源 誦祝藥庵淨尤 持殿顯隨定玄 逸首石翁品備 出草比丘竺衍 比丘玩燭 比丘仁休 沙彌洪洵 沙彌得訥 供司普德 鐘頭定信 茶角旺紀 化主龜岩善遇 別座大圓(瑠) 都監華谷性訓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衆生當生極樂國同見無量壽佛共成佛道

화기2 : 光緒八年壬午三月十三日 大雄殿三尊聖像灵山殿十六尊像兩帝釋與各部現王翰點眼奉安于江陵府普賢寺 緣化秩 證明 義龍取源 誦祝藥庵淨尤 持殿顯隨定玄 逸首及出草 石翁品備 比丘竺衍 比丘玩燭 比丘仁休 沙彌洪洵 沙彌得訥 供司普德 鐘頭定信 茶角旺紀 化主龜岩善遇 別座大圓(瑠) 都監華谷性訓





보덕사칠성행화

칠성은 북두칠성(北斗七星)을 불교화한 것이다. 하늘의 집합체인 북두칠성은 하늘의 모든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고 통솔하는 하늘의 주재신이 되어,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모든 재앙과 병을 물리치고, 수명장수, 자손번창, 부귀영화를 보장해주는 신으로 믿어지게 되었다. 칠성신앙은 불교의 토착화와 함께 성행하여 조선후기와 말기에 매우 많은 수의 칠성행화가 전해지고 있다. 이 칠성신앙의 주존불은 북극성을 불교화한 칠성광여래(熾盛光如來)이다. 중앙에 금륜(金輪)을 지니고 있는 칠성광여래를 중심으로 뒤편에 일광(日光)과 월광(月光)보살이 삼존을 이루고 있고, 그 좌우로 하단에는 칠원성군(七元星君), 중단에는 7어래, 상단에는 자미대제(紫微大帝)와 태장노군(太長老君), 좌보원성(左補弼星)과 우보원성(右補弼星), 그리고 28수 중 14위가 3단을 이루며 시원한 구도이다. 삼약한 존상의 표현, 황광발이 도는 채색, 문양 및 도안화된 구름 등 19세기 후반기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배림지안쪽에서 조성발원문과 범시가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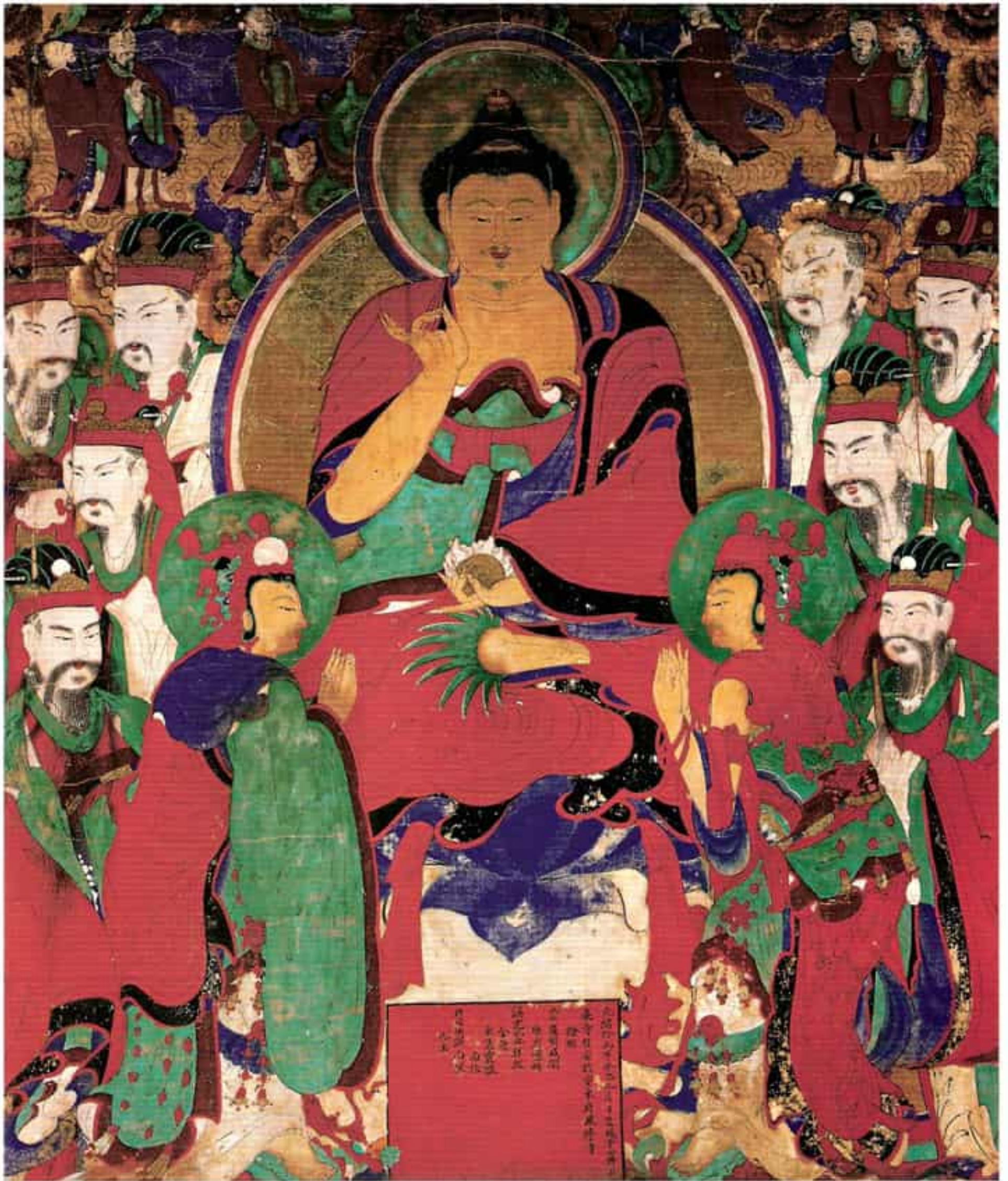
조성발원문 : 叙讚願文 與若捨舊有數重新從釋時歲大呂之月式模 采造影神筆寫
 像又有金界能大能小九華之米結於前後七曜之光常輪晝夜仍與市恩機越 兼設法
 侶好道求冥飯口善尊付吳則演編則 致養我生我護我身形永保長生介爾景福 大
 講光緒二年丙子臘月旬五日海東沙門 月華興口于謹識 釋化所 良工 比丘德碩 影
 畫春晚 供司現晚 滿脫 巨變 化主 巨則



안동봉정사칠성탱화

칠성탱은 중앙에 주불인 칠성광여래(熾盛光如來)를 모시고 있는데 신앙적으로 약사여래와 유사하여 자식이 없거나 아들을 낳고 싶어하는 부인, 그리고 자식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부모들의 발원 대상이다. 협시인 일광보살(日光菩薩)과 월광보살(月光菩薩)이 본존을 향하고 있는 독특한 자세를 취한다. 좌측에는 칠원성군(七元星君) 4위, 우측에는 칠원성군 3위와 자미대제(紫微大帝)가 화폭을 채우고 있다. 그리고 탱화의 상단에는 도사(道士)의 모습을 한 6성(六星)이 한가롭게 밤하늘을 노닐고 있다. 보살과 칠원성군 등의 자세가 동적이어서 작은 화면이지만 활력이 넘친다.

화기: 光緒拾九年癸巳九月日造成于西佛山大乘寺移安於安東府鳳停寺 證明比丘護明威聞 檢虛理斯 謹祝 比丘群數 金魚 東吳靈徽 肉群 供司 沙彌尚宜 化主



68 | 안암불당사 칠성도의 안암불당사 칠성도
 조선시대(1893년), 비단에 채색, 93.0×79.0cm, 제천 김만호 선생 기증유물



운흥사천룡탱화

강원도 삼척 운흥사에 봉안되었던 불화로 화기에 천룡탱天龍幢이라 하였듯이 천룡팔부증을 그린 불화이다. 천룡팔부증은 불법을 수호하는 8종의 신으로 천
 천·용龍·아차夜叉·건달바乾闥婆·아수라阿修羅·가루라迦樓羅·긴나라緊
 那羅·마후라가摩睺羅伽를 말한다. 모두 불교 이전 고대 인도의 신들로 악마귀
 신의 성격을 지녔으나 불교에 습합침습되어 불법을 수호하는 선신善神으로 재
 구성되었다. 천룡탱화는 흔히 동진보살童眞菩薩이라 일컬어지는 위태천후
 威天이 화면의 중심에 위치하고 그 주위 혹은 아래에 팔부증이 배치되는 것이
 보편적인 도상이지만 여기서는 위태천이 화면 상부에 비교적 작게 표현되어 있
 고 팔부증 중 용왕이 크게 강조된 점이 특징이다. 용왕龍王 혹은 용신龍神은 뱀
 을 신격화한 인면사미人面蛇尾의 반신半神으로 구름을 불러 비를 내리게 하는
 마력을 지닌다고 믿어진다. 화면 중앙에 용왕을 중심으로 한 팔부증八部衆과
 동진보살童眞菩薩, 천왕天王, 일궁천자日宮天子 및 동자童子 3위 등이 구름을
 배경으로 자유롭게 배치되어 있다. 활달한 필치, 자유로운 포즈를 취한 신중들
 의 모습 등으로 화면은 생동감에 차 있다. 어두운 적색과 녹색의 색조는 18세기
 중엽 이후 불화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천봉天鳳과 해천海天이 제작하였다.

화기 : 乾隆貳拾年乙亥七月日 天龍幢奉安十三陟雲興寺 施主秩 婁壽施主沈彩
 色施主 綠化秩 證明 比丘曇華 誦呪 比丘坦明 持殿 比丘瑞英 良工 比丘天鳳 海
 天 供養主 戒淨 觀靈 化主 比丘杜認 休堅 別座 比丘杜忍 童眞菩薩 童眞菩薩 天龍八
 部滿虛空 都在毫光一道中 信守佛語常擁護 奉行經典永流通





구룡사독성탱화

독성은 천태산에서 수도하며 중생을 제도하는 나한인 빈두루존자를 일컬으며, 나한존자那伽尊者라고도 한다. 노비구가 깊은 산중에서 가슴을 풀어헤친 편안 한 자세로 폭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종이 바탕에 그려진 소폭으로 배경의 산수는 조선말기 불화에서 흔히 보여지는 민화풍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독상의 얼굴에서는 노비구의 내면적인 깊이가 느껴진다.

71 | 구룡사독성탱화 龍巖寺獨聖탱畫, 연대미상, 종이에 채색, 65.0×37.0cm



보덕사산신탱화

영월 보덕사 산신각에 모셔졌던 것으로 화폭 중앙에 영지와 부채를 든 산신이 앉아 있고 약사발을 든 동녀와 산신의 화신인 호랑이가 좌우에 형사하고 있다. 필력이 떨어지는 이완원 필선, 적록색의 강한 대비 등의 특색으로 보아 제작연대가 오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후면 북서: 丙申年十二月二十四日新成奉安

화기: 山神幀 監成奉安 干報德寺 施主 洪 江陵市城 丙午生金 己巳生金 丁丑生金 甲午生金 庚戌生金 蘇 蘇性 吳丑生金 壬戌生方 奉越 壬辰生玄 大衆 洪 證明 金魚 惠 住持 誦祝 明 斗 丙申十二月

II. Dharma

Dharma (the Law) are the teachings which help sentient beings emancipate themselves from suffering and reach enlightenment, guiding them to achieve a peaceful and blissful society. Dharma thus establishes a world view and philosophy which becomes the basis for the Buddhist faith and actions. Such teachings were written as texts on stone, wood, textile, and paper, and also printed as books. Many kinds of printed and written Buddhist sutras survive in Korea, the most representative of which are the Goryeo Tripitaka at Haein-sa in Hapcheon, designated World Cultural Treasure by the Unesco. At Woljeong-sa, various kinds of Buddhist sutras including the Goryeo Tripitaka withdrawn in 1865, Diamond Sutra, Ksitigarbha Sutra, and other Buddhist commentaries are preserved.

경전 經典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 수많은 경전들은 활자 혹은 목판으로 인쇄되어 만들어졌다. 그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합천 해인사海印寺의 팔만대장경판八萬大藏經板으로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월정사에도 1865년 인쇄印出된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으며 그 외에 화엄경華嚴經, 법화경法華經, 금강경金剛經, 지장경地藏經, 범음집梵音集 등을 비롯한 다양한 법보法寶 유물들이 전해지고 있다.

Buddhist Sutras - Numerous Buddhist sutras were printed on paper or wood so as to spread out the words and wisdom of Buddha. Notably, the Goryeo Tripitaka at Haein-sa Temple in Hapcheon has been inscribed on UNESCO's World Heritage list. The Goryeo Tripitaka that could be seen in Woljeong-sa Temple is a version printed in 1865. Furthermore, Woljeong-sa Temple possesses the Diamond Sutra, Kalmyartha Sutra, and other Buddhist commentaries.



월인석보 권17-18

이 책은 석가傳記의 일대기와 그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을 국역하여 세종 5년(1459)에 왕명으로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다른 경우와는 달리 책 어디에도 '월인석보月印釋譜'라는 서명이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月印' 두 자와 '석보상전釋譜詳說'의 '釋譜' 두 자를 취하여 서명으로 통칭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의 저본底本이 되는 『석보상전釋譜詳說』은 수양대군이 세종의 명에 따라 석가의 일대기인 석가보傳記를 중 요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상譯), 요긴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여(절節), 세종 29년(1447)에 편찬한 것이며, 『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수양대군이 지어 올린 『석보상전』을 보고 그 내용에 맞추어 부처의 공덕을 칭송하여 읊은 것으로 이비 세종 30년(1448) 무렵에 갑인활자甲寅活字로 간행된 바 있다. 본문의 아름다운 내용 뿐만 아니라, 중세 국어의 표기 및 자체字體 연구에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권적이다. 월정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책은 1459년에 주자소寫字

所에서 간행된 초간본初刊本 권17-18에 해당되는 것으로, 권18은 현재로서 유일본이다. 북장에서 발견된 듯 전후의 표지와 여러 장이 결락되어 있으며, 그 후 새로 보수하였다. 지질은 단나무 곱질을 주재료로 한 전형적인 조선초기의 인정지印證紙이다. 이 책은 본래 흥천수塔寺壽院寺의 사원왕상 북장유물로 보물 제74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월정사성보박물관으로 이관 보존되고 있다. 근래에도 이와 동일본이 장흥 보림사寶林寺(권25)와 순창 구암사龜巖寺(권15)에서 각각 발견되어 보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초간본 전질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月여름印인千천江강之지曲곡第제十십七칠
釋석譜보詳상節점第제十십七칠
三삼張장

月여름印인千천江강之지曲곡第제十십八팔
釋석譜보詳상節점第제十십八팔

其기三삼百백十십八팔

微미塵진菩보薩살彌미勒력三삼祿육廣광
長장舌상內내八팔方방分분身신

이소내시니

百백千천年년이초귀산廣광長장



고려대장경

대장경大藏經이란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것을 말하며 경장經藏, 율장律藏, 논장論藏의 삼장三藏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시대에는 불경佛經을 잘 모시고 보관板刻하면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 왕조가 유구하고 나라가 평온해지며 국민이 평안하게 된다고 믿었다. 고려인들의 이러한 확실한 믿음으로 인하여 어려운 전쟁 중에도 온 국민은 일치단결一致團結하여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판각을 이룩하였다. 불교에서 '팔만八萬' 혹은 '팔만사천八萬四千'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래서 인간의 번뇌가 많음을 들어 '팔만사천번뇌八萬四千煩惱'라 이르고 또한 이 번뇌를 물리치기 위해 부처님께서 '팔만사천법문八萬四千法門'을 설하셨다. 월정사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는 고려대장경 판본으로 1865년 찍어내어 봉안된 것이다. 대장경은 고려 때는 물론이고 조선초기인 태조太祖 2년(1393), 세조世祖 4년(1458), 연산군燕山君 6년(1500) 등에 걸쳐 인쇄되어 유통되었으나 현재 국내에는 전질로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조선말기인 1865년, 1898년, 1906년과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에 걸쳐 인쇄된 것이 몇 곳의 대학 도서관과 사찰에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74 | 고려대장경 高麗大藏經, 조선시대(1865년), 총책수 81,235책, 일면이 해서體로 활자
 감공: 1,511종,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4호



대방광불화엄경소 권5-6

화엄경의 주소본注疏本은 당나라의 장관澄觀스님에 의해서 찬술되어 전해오다가 송나라의 정원淨源스님이 여기에 새로 주해를 가하여 관각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고려 1087년에 송나라 상인 서전徐戡을 통해서 송판宋板을 입수하여 찍어낸 판본 중에 조명기趙明基구장본舊藏本(보물 891호)을 비롯하여 여러 후쇄본이 전하고 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 1557년에 황해도 귀진사歸進寺에서 복각復刻이 시작되어 워낙 거질巨帙인 관계로 7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완간되었다. 그리고 1633년에 송광사에서 이본 복각하였으며, 1686년에 팔공산 운부사雲浮寺 및 안음의 영각사靈覺寺에서 간행된 판본이 전하고 있다. 월정사에 소장된 판본은 1686년에 경상도 안음의 영각사에서 간행된 책이다. 그리고 이 화엄경소華嚴經疏에 초抄를 가한 판本으로 1690년에 지리산 대원암大淵庵에서 개간된 것을 비롯하여 1700년에 범어사에서 분각分刻된 판本과 1774년에 지리산 대암난야齋菴蘭若에서 증간된 판本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월정사의 판本에는 화엄회상도의 판화가 수록되어 있다. 중앙에 아미타불과 관음보살, 대세지 보살의 아타삼존이 설법하고 있으며 연화좌 위로 왕생한 왕생인과 극락의 성증들이 묘사되었다.



75 | 대방광불화엄경소 권5-6 大方廣佛華嚴經疏 卷五-六
 刊本: 靈巖寺, 조선시대(1686년), 板式 馬尾單邊, 半部 22×16.5cm, 有背, 半葉 6行15字, 上下內向馬魚尾

정광사판 대방광불화엄경소연의초

화엄경소華嚴經疏에 뜻을 부연數衍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중요한 것만 모은 것으로 1700년에 범어사梵魚寺에서 분각된 판본이다.



76 정광사판 대방광불화엄경소연의초 溇光寺板 大方廣佛華嚴經疏演義抄
 刊年: 조선시대(1700년), 版式: 四角雙邊, 半部 22.0 × 14.0cm, 有扉, 半葉 10行20字, 上2葉花紋魚尾
 刊記: 康熙三十九年庚辰初春 慶州道東萊金井山梵魚寺分刻 移鑄于湖廣安瀾光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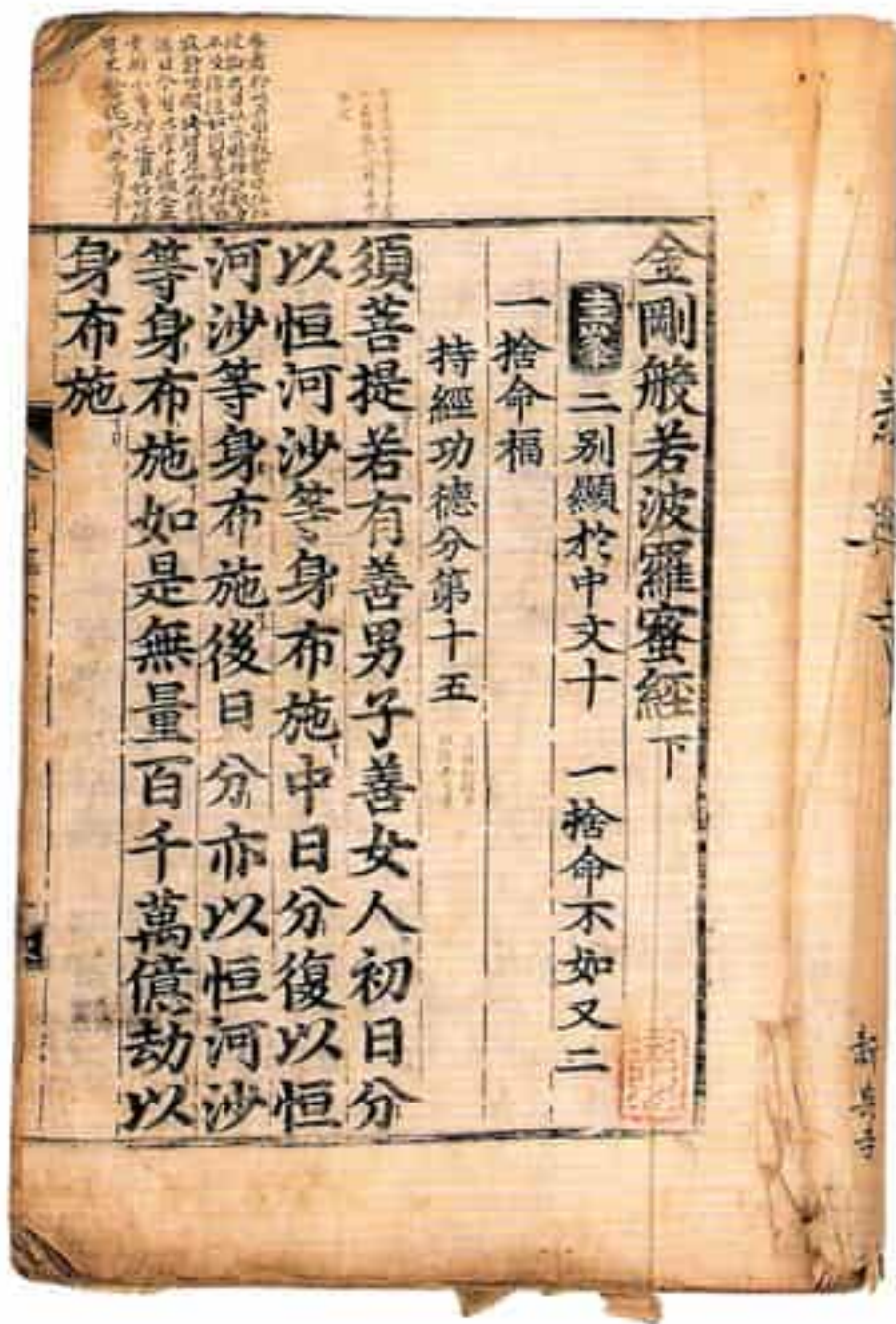
妙法蓮華經 六

妙法蓮華經

②-2117

②-1124

①



82 | 광흥사판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 廣興寺板 金剛般若波羅蜜經-五家解
 刊年: 조선시대(1530년), 紙地單邊, 半葉 25.5×18.5cm, 有界, 半葉 9行14-19字, 上下葉魚尾
 高宗九年庚寅孟夏 慶州道安東地下村山廣興寺開印

광흥사판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

금강경金剛經은 석존이 금위국金衛國의 기수급자득원祇樹給子獨園에 최우승 毘盧할 때 설법하였던 내용으로 그의 제자인 아난존자阿難尊者에 의해서 결집되었으며, 이후 중국에 전래된 이래 구마라집鳩摩羅什 등 5인에 의해 한역漢譯되었다. 그 후 구마라집의 역본은 양나라 소명태자昭明太子가 32과분科分으로 분장分章하였고, 당나라 조계육조대감사曹溪六祖大覺師 혜능慧能 등에 의해서 끊임없는 주해 작업이 있었다. 「오가해五家解」는 이미 중국의 양나라 쌍림대사 雙林大士 부흥보흥의 찬합, 당나라 육조대감선사六祖大覺禪師 혜능慧能의 구결口訣, 송나라 야부유야 도천도川の 협송挾頌, 당나라 규봉종밀선사圭峰宗密禪師의 찬요纂要, 송나라 예장종경선사豫章宗鏡禪師의 계강提綱 등으로 찬술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초기 태종 15년(1415)에 전 안엄사安嚴寺 주지인 성거省居 등이 처음으로 판각 간행한 관본(보물 1082호)이 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 관본에는 협허당漏虛室 득봉得逢의 〈설의說詔〉는 보이지 않고, 다만 〈결의決疑〉만이 발미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때까지 기화근和의 〈설의說詔〉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득봉得逢의 〈설의說詔〉가 편입되어

있는 현존 최고본最古本은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강경오가해설의金剛經五家解說詔」이다. 이 관본은 권말에 「正統七年壬戌七月日 陽山寺 留板」이라는 간기가 있어, 세종 24년(1442)에 양산사陽山寺에서 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초기에 간행된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의 주요 관본으로는 태종 15년에 한문본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가 간행된 이래로 득봉의 설의가 편입된 「오가해설의五家解說詔」가 세종 24년에 처음으로 개판開板되었으며, 그 후 세조 3년에는 정숙자 및 갑인자로 인쇄한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가 간행되었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전국의 유명 사찰에서 끊임 없이 이 판자본을 복사覆刻 또는 제각 各各 간행한 바 있다. 원정사성보박물관 소장본은 광흥사판廣興寺板 등 2종이 전존傳存되고 있는데, 활자본의 초기 복사本으로 매우 정교하게 판각되었다. 본래 이 책의 지본이 된 활자본은 1457년에 세조가 요절한 의경세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할 목적으로 본문에 사용된 대자를 직접 써서 이를 자본으로 정축년에 주조한 활자로 간행했던 사언을 지니고 있다.



地藏菩薩本願經卷上
 初利天宮神通品一 分身集會品二
 衆生業緣品三 閻浮衆生業感品四
 地獄名號品五 中如來讚歎品六
 利蓋存正品七 閻羅王衆讚歎品八
 稱佛名號品九 下校量布施功德品十
 地神護法品十一 見開利蓋品十二
 寫累人天品十三
 無垢子



業鏡臺前為閻浮提衆生作首證明功德主大勝大聖大德大尊地藏菩薩摩訶薩
 開經偈
 無上甚深微妙法 百千萬劫難遭值
 我今聞見得受持 願解如來真實義
 開法藏真言
 唵 阿彌喃 阿羅吽

地藏菩薩本願經卷上 三藏法師 法燈譯
 地藏菩薩本願經初利天宮神通品第一
 如是我聞一時佛在初利天宮為母
 說法時十方無量世界不可說不
 可說一切諸佛及大菩薩摩訶薩
 未來會讚歎釋迦牟尼佛能令
 濁惡世現不可思議大智慧神通
 力調伏剛強衆生知苦樂法
 各違侍者聞說世尊是時如

화엄굴판 불설대보부모은중경

이 경전은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 널리 보급되어 많은 유품본을 남기고 있다. 특히 부모의 효를 강조하였던 유교 중심 사회였던 조선시대에 많이 간행되었다. 현재 조선시대 사찰본만 대략 80여 종 이상의 판본이 전하고 있는데, 이를 보면 효도가 강조되었던 유교 문화와 결합하여 불교를 효율적으로 전파하려던 방편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통행되고 있는 판본은 크게 한문본(漢文本)과 언해본(諺解本)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책은 한문본으로, 고려말부터 현재까지 변상과 삽화를 곁들인 판본은 대략 50여 종 간행된 바 있는데, 월정사정보박물관 소장본은 조선 초기 1451년에 궁실에서 간행되었던 판본을 저본으로 1591년에 경기도 용인의 화엄굴(華嚴窟)에서 복각한 판본이다.





85 | 佛寶藏經 佛說父母恩重經 佛說大觀父母恩重經

刊年: 조선시대(1591년), 板本: 四庫全書, 半幅 10.0-14.7cm, 無界, 半葉 8行16字
 大業口: 上下內向黑魚尾, 花紋表紙, 刊記: 萬曆十九年辛卯 麗仁地光社山帶齋刻

- ①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주는 은혜 懷耽守護恩
- ② 해산날에 임하여 고통을 이기시는 어머니 은혜 臨產守護恩
- ③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는 은혜 生子忘憂恩
- ④ 쓴 것을 삼키고 단 것을 뱉아 먹이는 은혜 嚙苦吐甘恩
- ⑤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趨乾就濕恩
- ⑥ 젖을 먹여서 기르는 은혜 乳哺養育恩
- ⑦ 손발이 달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 洗滌不淨恩
- ⑧ 먼 길을 떠날 때 걱정하시는 은혜 遠行憶念恩
- ⑨ 자식을 위하여 나쁜 일까지 짓는 은혜 爲造惡業恩
- ⑩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은혜 究竟憐慈恩



86 (대명심법법수 권1) 大明三法法數 卷一
刊年: 조선시대(1690년), 版式: 函函雙邊, 半部 22.7×12.0cm, 有界, 半葉 10行20字
下原口: 丁上向黑魚尾, 刊記: 康熙二十九年庚午 慶州府城隍廟書院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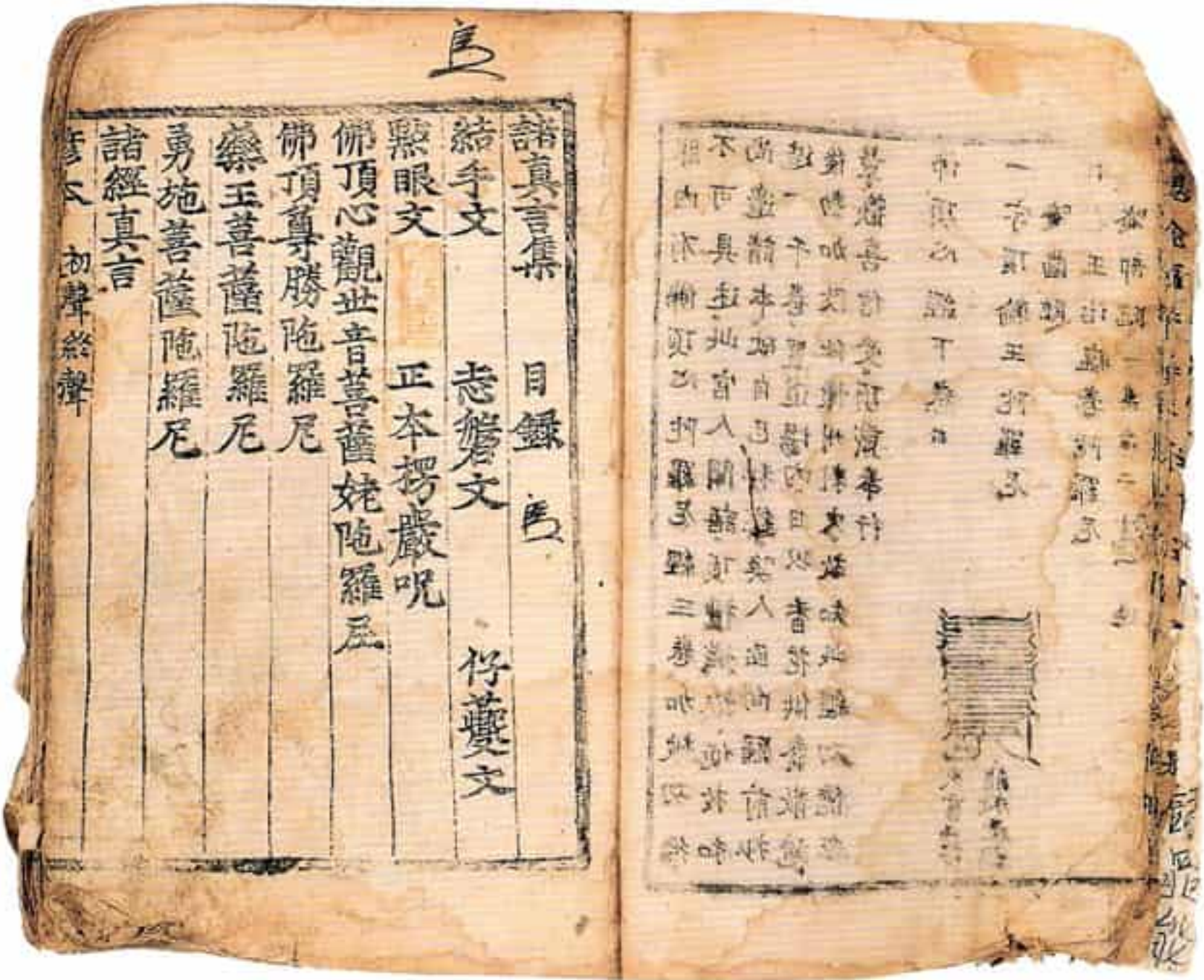
대명삼장법수 권1

이 책은 불교 사권의 성격을 지닌 법수法數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일찍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장승법수」가 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원정사본은 명나라에서 편찬된 책을 저본으로 경상도 고성(高城)의 운흥사(雲興寺), 함양의 영은사(靈隱寺), 전라도 낙안(洛安)의 장광사(莊光寺), 순천(順天)의 정혜사(定慧寺)에서 분담하여 1630년에 개판한 판본이다. 그러나 현재 원정사본보물관에는 송복(宋福)에 해당되는 1책만이 소장되어 있다.

大明三藏法數總目卷第一			
卷第一	法數總目		
卷第二	法數總目		
卷第三	法數總目		
卷第四	法數總目		
一心			
一心約教有異			

刻大明三藏法數總目

易卦數之始於一者三儀四象之文八卦之六十四又推衍之終于萬一千五百二十矣吾佛之教也始於一以開二門而推至於八萬四千又終於阿僧祇不可說不可說轉末達乎此等數重而此佛法是也佛之教也始於一而況華嚴大經開張數一甚多而大明三藏法數



안심사관 진언집

이 책은 여러가지 다라니를 한글·한문·법자의 순으로 병기한 목판본이다. 권두에 언본(言本)이라는 이름으로 최세진(崔世珍)의 『훈몽자회(訓蒙字會)』 법례를 실고, 또 실담장(室曇章)을 실어 법자의 발음법을 언문으로 병기하고 있다. 해정(海正)·인주(仁州) 등의 칭으로 실은 글씨가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훈몽자회(訓蒙字會))의 사용 예에 따른 언문, 실담장(수구다라니경(隨求陀羅尼經))을 권두에 실은 다음, (결수문(結手文))·(지반문(志誓文))·(자기문(持變文))·(점안문(點眼文))·(정본봉엄주(正本楞嚴))·(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佛頂心觀世音菩薩姥陀羅尼))·(불정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약왕보살다라니(藥王菩薩陀羅尼))·(용시보살다라니(勇施菩薩陀羅尼))·(제경진언(諸經真言))을 차례

로 수록하였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진언집 가운데에서 가장 초기의 것이며, 밀교가 우리나라 불교에 미친 영향을 살펴는데 참고자료가 된다. 또한, 한글 자모의 용법을 설명한 언문과 법자를 한글로 설명한 실담장은 국어 연구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현존 최고 한문본은 비록 간기는 없으나 발문의 연대인 1485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영현약초(靈顯藥抄)』가 뒤에 합철되어 있다. 이밖에도 3종의 한문본이 전래되고 있으며, 국한혼용본(國漢混用本)으로는 1529년에 전라 순천의 대광산(大光山) 용문산(龍門山)에서 개판된 것을 비롯하여 모두 임진왜란 이전 본인 3종이 간행된 바 있다. 월정사성보박물관 소장본은 임진왜란 직전인 1569에 전라도 동북(同福) 안심사(安心寺)에서 개판(開板)된 것으로 비교적 널리 보급된 판본이다.

同持佛子戒珠云佛
子相持妙性已併性也
謂之辨外之同性也
務在更開是性也

不現不理不事不度法解其一二及以會不如其
依古語好他古人見上座百般不得所以垂慈向汝
道將聞特佛佛何不自聞聞無事珍重

景德傳燈錄卷第二十八

六和傳燈錄卷第二十九

讚頌偈詩

誌公和尚大乘讚十首

誌公和尚十二時頌十二首

誌公和尚十四科頌

歸宗至真禪師頌一首

香嚴靜燈大師頌十九首

筠州洞山和尚頌一首

潭州龍牙和尚頌十八首

玄沙宗一大師頌三首

招慶直覺大師頌三首

漳州羅漢和尚明道頌一首

南嶽搬舟道場動和尚覺地頌一首

郢州臨谿和尚入道淺深頌五首

大法眼禪師頌十四首 唐白居易八漸偈

同安禪師詩八首 雲頂山僧德敷詩十首

僧潤詩三首

쌍계사관 경덕전등록 권28-30

송나라 도원이 1006년에 과거집본로부터 역대 선종의 조사 오가五家 52세에 이르기까지 범종法燈을 전한 법계法系를 차례로 기록한 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불교 전문 강원의 최고 과정에서 학습되어 『선문염송釋門法苑』과 함께 고려 및 조선시대의 승과僧科 선종선禪宗講의 시험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그리하여 선승들은 이 책의 내용을 문답의 공개 시험에서 해독해야만 대선大選의 법계法階를 얻을 수 있었다. 고려중기에 혜심이 『선문염송』을 찬술할 때 중요한 저본이 되었다 한다. 이 책의 고간본으로는 평종 5년(1550)에 정안도의 화상사에서 간행하여 표훈사로 옮긴 표훈사판表訓寺板 일부와, 광해군 6년(1614)에 충청남도 논산군 쌍계사雙溪寺에서 개판한 판본이 있는데, 목판은 현재 그 완판이 해인사 사간판각私刊板閣에 보관되어 있다. 원정사성보박물관에는 쌍계사관雙溪寺板의 일부인 권28~30의 1책만이 소장되어 있다.



若舍法乃是真漢
切拜色是佛拜色
法何而出西不次本
學也

此是色聲色不奈何莫將為等閑上座若會得即是
眞實若不會即是幻化若也會得即是幻化若也
會即是眞實他古人亦向上座道唯我能知除此外
別無作計按處上座成不成從何而出是不是從何
而出理無事而不願事無理而不消事理不二不事

全書終此幻化

88 | 쌍계사관 경덕전등록 권28-30 雙溪寺板 景德傳燈錄 卷二十八-三十
刊行-조선시대(1614년) 판본-표훈사판 半部 19.3×15.0cm, 無標, 冊葉 12行20字, 無魚尾

용문사관 대미타참약초요람보권념불문

염불은 부처를忆념念하는 불교의 수행법이다. 일반적으로 부처의 상호相好를 생각하여 觀觀하거나 부처의 명호를 부르는 행위로 불보살佛菩薩에 의지하여 가피력을 바라는 타력신앙의 형태로 발하고 있다. 이 책은 숙종 30년(1704)에 경상북도 예천 용문사龍門寺에서 청허清虛의 법계인 명언明衍이 제경의 설을 약초하여 염불念佛을 권하는 글을 엮어 이를 언해하여 간행한 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국한혼용本 3종이 용문사龍門寺, 수도사修道寺, 해인사海印寺 등에서 간행된 바 있는데, 월정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판본은 1704년에 간행된 용문사판이다.

법흥사관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결수문)

이 책은 수륙제水陸齋를 지내는 데 필요한 의식 절차의 요점만을 뽑아 간결하게 정리하여 권의를 도모하고자 편찬하였다. 특히 〈설회인유設會因由〉편에서 무차법회無差法會의 개념을 밝히고 시방의 모든 성인聖人이 강림降臨하기를 빌었다. 이렇게 차례로 37편의 의식문儀式文을 수록하고 있는데, 각 편에는 삼화捧齋를 수록하여 의식을 행할 때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책이 나오으로써 이전의 산만하고 번잡하였던 재의의식齋儀儀式이 통일되고 간소화되었으며, 지금도 각 사찰에서 수륙제를 행할 때 이 책을 기준으로 하여 의식을 집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적으로 35종 이상 되는 많은 종수의 판본이 간행되었다. 그런데 월정사 소장본은 흥치원년弘治元年(1488)에 평안도 순안의 법흥사法興寺에서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어 아직까지 전혀 소개되지 않은 판본으로 매우 귀중하다. 특히 행자수行字數가 6행 15자본으로 다른 7~8행 17자본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책의 크기가 약간 작은 점이 구별된다.



90 | 법흥사관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 法興寺板 水陸無遮平等齋儀攝要
 刊年: 조선시대(1488년), 格式: 四葉單邊, 半部 19.2×13.0cm, 無界, 6行15字
 題單口, 無魚尾, 緞紙裏紙, 刊記: 弘治元年丙辰六月日 順安地法弘山法興寺開板



중흥사관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수륙재水陸齋는 양나라 부제 때인 6세기 초반부터 열리기 시작한 불교의 아의 법회의식 중 하나이다. 물이나 육지에 있는 고혼, 아귀 등의 혼령들에게 법식을 평등하게 공양함으로써 그들을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관한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要」가 조선 초기로부터 30여 종이 간행된 바 있을 정도로 전국의 주요 사찰에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이러한 의식 절차가 급속히 쇠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에 새롭게 재편한 책이 바로

범음집梵音集이다. 이 책에는 사찰에서 시행되는 수륙재에 대한 모든 의식과 절차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범단의 사방을 맑게 갖추어야 하는 이유, 중생을 이롭게 키워야 하는 까닭 등에 관한 99 종의 의식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전라도 곡성의 도림사道林寺에서 1709년에 초간初刊되었으며, 이후 평안도 양변의 보현사普賢寺에서 1713년에 간행된 바 있다. 월정사본은 1721년에 경기도 양주의 중흥사重興寺에서 간행된 관본으로 현재 2책이 소장되어 있다.

패엽경

인도에서는 종이를 만들어 사용하기 이전에 나뭇잎의 일종인 패엽(葉)(patra)에 필사해서 경전을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은 본격적으로 종이를 서사 재료로 사용한 이후에도 여전히 사용되었으며, 그러한 패엽 불경이 중국에 전래된 이후로 책의 형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중국에 패엽경이 전래되기 이전에는 대부분 권자卷子 형식의 책이었으나, 그후 엽자葉子 형태로 전환되어 오늘날의 책의 모습을 가져온 전기를 맞게 되었다.

월정사에는 패엽경 3종이 보존되어 있으나 대부분 근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 패엽경은 패엽에 인쇄하거나 칠필로 쓴 다음 먹물을 스며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그리고 패엽에 진한 먹물을 칠하고 그 위에 옷칠한 후 은니銀泥로 사경寫經한 것도 있다.

Handwritten text on a palm leaf strip, organized into three columns. The script is a traditional Korean style. A small wooden peg is visible on the left side, used to hold the leaf together.

Handwritten text on a palm leaf strip, organized into three columns. The script is a traditional Korean style. A small wooden peg is visible on the left side, used to hold the leaf together.

Handwritten text on a palm leaf strip, organized into three columns. The script is a traditional Korean style. Two circular holes are visible on the left side, likely for binding multiple leaves together.

Handwritten text on a palm leaf strip, organized into three columns. The script is a traditional Korean style. Two circular holes are visible on the left side, likely for binding multiple leaves together.

사적기 事蹟記

전적 유물 중 다량 배포의 목적을 둔 간행물은 활자活字 및 목판木板으로 인쇄되지만 대부분의 기록은 필사筆寫로 남아 있다. 그중 사찰의 창건創建과 중건重建, 그리고 내력來歷들이 기록된 사적기는 사찰만의 역사책이라 할 만큼 그 기록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월정사성보박물관에는 국보 제292호로 지정된 최초의 한글 필사본 문서인 상원사중창건선문과 15세기 전반에 필사된 오대산사적, 그리고 상원사사적 등이 보관되어 있어 소중한 가람수호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Writings Produced by Temples - Buddhist sutras were printed on paper or wood so as to produce many copies. Yet, there existed writings that did not need to be distributed to the general public. Such writings recorded how temples were established, renovated, and provides a year-by-year record of what happened in the temples. In other words, there history books written about each applicable temple. Hence, the importance of these writings can never be underestimated. The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possesses the Writings on the Reconstruction of Sangwon-sa Temple (National Treasure No. 292), Traces of Odae-san Mountain etc., which all give us an insight of what happened in the past in Korean Buddhism.

2. 사적기



상원사중창권선문

세조의 왕사인 해각존자慈覺尊者 신미(信眉) 등이 왕의 수복을 빌기 위하여 상원사의 중창을 발원하니, 이에 세조가 채색·삽·무명·베를 하사한다는 취지를 밝힌 글이다. 이 교첩은 국왕의 어필과 신료의 권선문 2책으로 작성되어 있다. 한 책은 한문의 권선문으로만 되어 있는데 신미(信眉) 등이 쓴 글에는 신미(信眉)·학열(學悅)·학조(學祖) 등이 수결하고, 세조가 쓴 글에는 세조와 왕세자의 수결과 인기(印記), 이어 효령대군孝寧大君 이하 여러 종실과 신하들의 이름과 수결이 보이고 있다. 다른 한 책은 권선문을 한문으로 쓴 다음에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것을 붙이고 뒤에 세조와 세자의 수결과 인기(印記), 왕비·세자빈·공주 및 외명부外命婦의 기명記名과 인기(印記)가 있다. 이 문건의 작성 시기는 신미 등의 권선문 끝에 '天順八年臘月十八日'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세조 10년(1464) 12월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장表裝은 붉은 색팥로, 당초문이 들어 있는 비단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한 책의 표지에는 '어첩(御帖)'이라 묵서되어 있다. 이 문서는 조선조의 왕가에서 사찰에 대하여 시주한 기록으로서 귀중한 뿐 아니라, 또한 당시의 학승으로 유명했던 신미(信眉)·학열(學悅)·학조(學祖) 등과 세조와의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사료史料로서 더욱 중요하다.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제정한 이후에 관공이나 활자로 간행된 한글 문헌은 비교적 많이 현존하고 있으나, 세조가 직접 묵서(墨書)한 것으로는 이것이 가장 오래된 권선(권諫)이다. 때문에 조선초기의 한글 서체 및 표기법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밖에 세조와 세자, 당시의 유명한 학승과 수많은 문신들의 수결이 나타나 있으므로 우리나라 수결의 연구 자료로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1977년 1월 정부의 일제지정문화재 재평가 시에, 세조와 세자 및 문신, 그리고 학승들의 수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오래된 한글 서적으로 평가되어 보물 제140호에서 국보 제292호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었다.



95 | 상원사중창권선문 上院寺重創勸善文, 권1 어보 부분
 寫本: 조선시대(1464년), 特製: 上下鳥籠, 內高 30.0×12.0cm, 鳥絲欄, 半葉 6行15字
 寫記: 天順八年臘月十八日 信眉 等 手決, 國寶 제292호

96 | 상원사중창권선문 上院寺重創勸善文, 권2 수결 부분
 寫本: 조선시대(1464년), 特製: 上下鳥籠, 內高 30.0×12.0cm, 鳥絲欄, 半葉 6行15字
 寫記: 天順八年臘月十八日 信眉 等 手決, 國寶 제292호

御牒

佛學英體道烈文英武朝鮮國王李

慈聖王妃



彩色

米五百石

綿布五百匹

正布五百匹

正鉄一萬五千斤

河東府院君臣鄭麟

蓬原府院君臣鄭壽

高靈府院君臣申壽

上黨府院君臣韓層

綾城府院君臣具景

南原府院君臣黃亨

南陽府院君臣洪壽

密山君臣朴新

延城君臣朴亨

寧城君臣崔祥

上洛君臣金

延山君臣

判內侍府事臣

河原君臣鄭

茂松君臣尹

다들 지소라 할 것 같으나 본뜻이 도아 나랏
사름과로刹를너표려호시고

御衣현불내시며발와布貨와土木발

꺼슬주라호시니우리特別히달이맛나

물반조와조고맛精誠으로되기튼

목수를돕습고저호습다소니형혀

남금귀에스며차이큰布施겨시니

三寶一일로더욱노쁘며法輪이일로다시을

마리니너비願호든모든어딘施主와보

며드로매미츠닌다歡喜를내야호가지

로善提心을내야모다德人根源을심거

우호론

聖壽를갓업수들비스오며아래론큰福을

億萬歲에길에호야福利기이업서現在

와未來와다利益게호를따니라

世間에닐금重호이리잇느니
三寶와父母와남금과善知識네니
三寶는어찌어단佛리오父母는목수물칠
물리오남금은모로일引導를물리시내
精誠로브터오매내
善覺者 | 일즉서크아라맛나호 |
마조며무수미와호야미알드름길해갈
드러날로恒常호호念을저說글러
에디다아니케호야오느나리잇게호니
佛의功이아니아한劫사넨회벗아니면엿
대能히이기타마조리오이제내和에호타
듣고病을추마호이느라나미두이
호맛기해다호오니비복설기다아니호는
노론樂山이나衆生濟度호시느큰慈
惠에엇디호시료내듣고늘라感動호

사름과로刹를너표려호시고
御衣현불내시며발와布貨와土木발
꺼슬주라호시니우리特別히달이맛나
물반조와조고맛精誠으로되기튼
목수를돕습고저호습다소니형혀
남금귀에스며차이큰布施겨시니
三寶 | 일로더욱노쁘며法輪이일로다시을
마리니너비願호든모든어딘施主와보
며드로매미츠닌다歡喜를내야호가지
로善提心을내야모다德人根源을심거
우호론
聖壽를갓업수들비스오며아래론큰福을
億萬歲에길에호야福利기이업서現在
와未來와다利益게호를따니라

우리聖上이키지壽命을받조사호되나
라호다시일기부시니만호민이다소라
覺安호미네기覺安호야저그니업스
며크니업시다 天地사아福을을넘수
오니쇼히며류이워갈수을틀디업스
리오마호오적되만호호이드겨우시
고터력만호호은적수오니江陵맛五
臺는天下에일호난山이며文殊기신
사하라龍興호미면드기나무니上院
寺는더욱勝호자하라우리衣鉢다
내야이더물다시저어福비수을자호
삼고저호습다소니
兩殿이듣조오시고特別히
壽命을느리오사너사덕중내남호호야
다들지호리호를내만도기도아나맛

오대산사적 갑·을본고사본

오대산 월정사에는 「오대산사적」으로 이름된 사적기 4종이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이 4종의 사적기는 2종씩 갑·을본, 병·정본의 선후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甲-을본乙本에는 고려시대와 관련된 사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로 일연스님의 「삼국유사」에서 오대산 및 월정사에 관한 기록을 전재해 온 것과 그후 먼지(塵積)에 의해서 고려 태조와 관련된 사적을 조선 초기에 그대로 전사(轉寫)한 내용이 함께 실려 있다. 이 갑을본은 모두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던 듯, 전후 표지도 없이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 그리고 갑본의 사적기 내용 중에 〈신효거사전(信孝居士傳)〉의 머리 부분은 결락되어 아예 빠져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끝 부분에도 1장 정도가 낙장되어 있다. 을본은 홍색 명주로 장정되어 있는데, 특히 원발부분은 갑본을 저본으로 1902년에 현오호(玄浩)에 의해 보사(補寫)되었으며, 이 사실을 만화관준(萬化寬俊)이 발문에 기록하였다.



是本師釋尊信物可慎護持又曰鄉之

本國皇龍寺者世尊與迦葉宴坐說

法之地林池產石尚在鄉知之乎如佛所記

則當有造塔立像之目云 已上出元曉 又曰鄉

之本國溟州之地亦有五臺山一萬文殊常

住所之也御還本國可往親參 已上出聖 後

當見鄉於太伯山葛蟠之處言訖即滅師

於是知梵僧即文殊化身追慕不已而往

大和池池邊有精舍石塔池龍之所創

也師坐塔前有老人從池而出曰道人求何事

乎師曰求菩提耳老人即池龍也便起作

禮問答國家事云云又曰皇龍寺護法

以為山內六社都會之地亦以指衆七負晝夜長行禮念神瘞
以河西府道內八州之稅為如上各寺福田凡三千七百四事供
養之資則君上之壽遠文武之協和萬民之安亦百穀豐登
罔不在茲但代代

君王無忘此記以堅行耳

五臺山月精寺開創祖師傳記

祖師俗姓金氏諱慈藏小名善宗家世起自將相母氏夢感
流星入懷而有娠生而聰悟早皈正法少喪父母觀體無常三
年喪畢往入名山夢見二僧來授五戒曰我等從靈鷲山為授
卿戒而來耳言訖登空而去師既受持如擊油鉢及呼出山

오대산중대적멸보궁불량문

중대中대는 오대산 신앙의 중심처이며, 적멸보궁寂滅寶宮은 비로자나법신불이 상주하는 장소로서 일찍부터 신성시되어 왔다. 또한 불량佛糧은 문자 그대로 부처님의 양식을 이르는 말이지만, 이보다는 어떤 전각이나 불상을 영구히 유지하기 위한 재정적인 후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필사문헌은 오대산 신앙의 중심에 자리한 중대의 적멸보궁을 영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재정적 후원을 기탁한 불자 및 사찰을 기록한 것이다. 현재 월정사성보박물관에는 작성시기가 다른 2종의 불량문佛糧文이 소장되어 있다.

갑본甲本은 표제가 '중대불량문中臺佛糧文'으로 묵서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에 '보궁유진寶宮留眞'이라 기록되어 있다. 권수卷首에는 순조 14년(1814)에 사문沙門 경의覺誼가 불자들에게 시주를 권하는 내용의 서문이 실려 있다. 그리고 앞쪽에는 김수계金修財를 비롯한 일반 대시주자의 이름과 소원문이 보이고 있으며, 이후에는 본사비구를 비롯하여 인근의 건봉사 및 경상도 은혜사 스님들의 시주명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다. 권말에는 이를 증명하는 각 사찰명이 지역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말미에 '갑술년유월일甲戌年六月日 적멸보궁중사寂滅寶宮中臺'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자료는 1814년에 화주 영담靈潭스님 등이 중심이 되어 사문 경의가 취지문을 작성하고, 각 사찰 불자들의 시주명을 기재하여 이를 책으로 만들어 적멸보궁에 보관하였던 것이다. 이 책은 모두 20장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34.5×26.6cm이다.

을본乙本은 표제가 '중대불량어대계복문中臺佛糧御資財福文'으로 희미하게 묵서되어 있으며, 그 위에 인가印記가 날인되어 있다. 권수에는 순조 25년(1825)에 취봉민현贊峯懸珥이 쓴 연가문緣記文이 보이고 있으며, 권말에는 이 자료를 증명해 주는 사찰절사刺刹이 수록되어 있다. 앞의 연기문에는 부처의 법신이 상주하는 적멸보궁이 점차 쇠락되자 본사의 화주化主인 영담靈潭장로가 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보고 그의 문인門人 신운 등이 앞장서서 권성한 사실을 민현이 1825년에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이와 같은 취지에 동참한 당시 인근 사찰의 비구 및 비구니의 이름이 차례로 기재되어 있으며, 후반부에는 일반 시주자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다. 이 자료는 모두 18장으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41.4×29.6cm이다.

상기 2종의 불량문은 조선후기 19세기 초엽에 중대 적멸보궁의 증창 사실과 이를 재정적으로 후원한 일반 시주자 및 인근 사찰의 시주스님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이를 통해 이 무렵 월정사를 중심으로 한 인근사찰 연혁의 일단을 가늠할 수 있는 귀중한 사적 자료이다.



100 | 오대산중대적멸보궁불량문-갑본 五臺山中臺寂滅寶宮佛糧文-甲本
 조선시대(1814년), 표제: 中臺佛糧文, 寶宮留眞, 序題: 五臺山中臺寂滅寶宮佛糧緣記序, 種別: 四角長條
 內高 27.8×23.0cm, 半幅 8行16~20字, 外高 34.5×26.6cm
 序記: 咸興道 戊甲戌 林鍾月 佛刹了儀南沙門覺誼謹書, 寫記: 甲戌年六月日 寂滅寶宮中臺

101 | 오대산중대적멸보궁불량문-을본 五臺山中臺寂滅寶宮佛糧文-乙本
 조선시대(1825년), 표제: 中臺佛糧御資財福文, 序題: 五臺山寂滅寶宮佛糧緣記, 種別: 四角長條
 內高 30.0×12.0cm, 半幅 8行14字, 外高 41.4×29.6cm
 寫記: 漢光五年乙酉六月上旬 贊峯懸珥謹識 化主靈大施主比丘信云

燒燬乙仍于左情即呈奉
府右至令十有餘年履錄文
文未得成出事甚夥後故如
前成丹于完文成信以備

史庫修信之治月云尔

一史庫標標地東段亦上松川里
南片移巨里西段里北青基里用
回四六十里是遺禁火監官山

立等自營亦宜差帖隨行是取
求若或有不勤舉行之重則法
考奉和營才府同監官山立等
拿致嚴刑至治事

一史庫所屬匠人入錄

奉出便營注其時所用之物依前
列名匠手成丹為三戶首及治
匠政至六依前完文成信

一唐東法安若名匠人知本府而
屬卷可則史庫所屬一依法曹
節月恭行

水鐵店戶名多孟太

奉是曹戎寬 珍寶面

龐匠戶及奉是

唐店匠戶及奉是

二月十八日

住管僧雲巖

住持僧龍年

僧統僧性念

史庫提提僧靈鏡

僧將僧惠明

僧宗仁

僧莊熏

僧奉文

僧永權

僧道律

僧在根

僧昌慶

僧敬典

僧東日

僧滿腔

米銀雜項兩中十三名分定每
名特錢五十二兩八錢四分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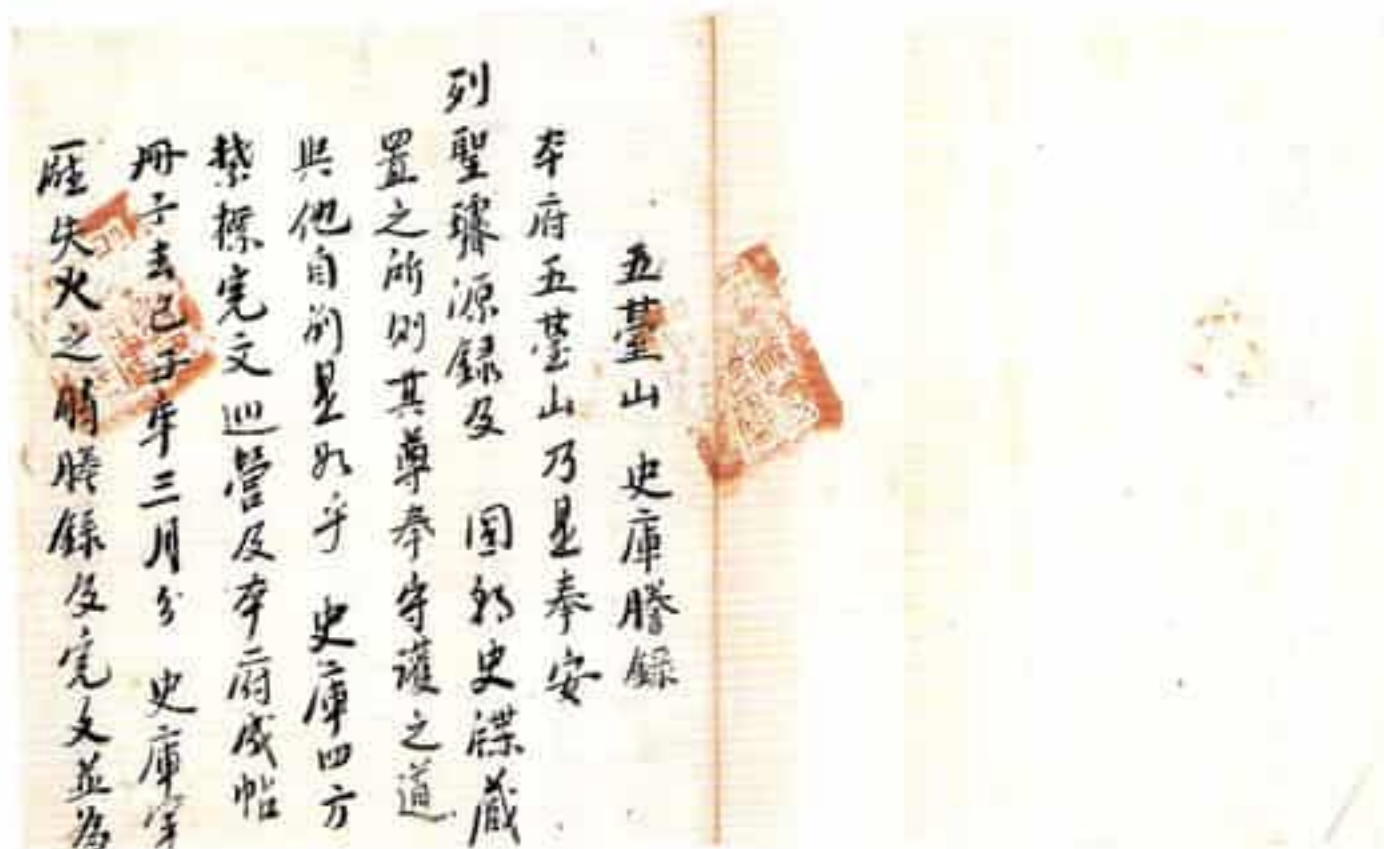
辛子九月

日



오대산사고등록

조선왕조는 임진왜란 직후 중요 국가문헌을 영구히 보존할 목적으로 삼계삼계가 없는 길지吉地에 사고史庫를 두어 분산 소장시켰다. 그리고 사고의 인근에 수호守護 사찰을 두어 이를 보호케하고, 해당 사찰에는 이에 상응하는 면역과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그리하여 원정사가 자리하고 있는 오대산에도 사고를 설치하였는데, 이른바 이곳이 바로 '오대산사고五臺山史庫'이다. 오대산사고의 자리는 본래 신라 때 영감사靈巖寺가 세워졌던 곳이며, 사고 설치 후에 아래쪽에 이 영감사를 중건하여 번승종僧들이 머물며 사고의 수호를 전담하게 하였다. 오대산사고는 위쪽으로 '선원보각塔源寶閣'을 설치하여 역대 왕실의 족보류를 보관하고, 아래쪽에 '사각史閣'을 세워 역대 왕실의 실록 및 의궤서 등을 소장시켰다. 그리고 매년 2차에 걸쳐 족보簿譜 및 장서정검藏書點檢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이 등록等錄에 수록된 최후의 기록이 신축년辛丑年인 1901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대산사고의 서책이 모두 1913년 이후에 조선총독부로 이관된 이후 실질적인 사고의 기능이 상실된 사실로 보아 거의 마지막 관련 사료로 보인다. 이 등록은 모두 4장으로 되어 있는 간략한 내용이다.



五臺山 史庫騰錄

本府五臺山乃是奉安
列聖璿源錄及 國朝史牒藏
置之所則其尊奉守護之道
與他自前是如乎 史庫四方
禁標完文巡營及本府成帖
冊子去己丑年三月分 史庫掌
歷失火之明騰錄及完文並為

Ⅲ. 승보 僧寶

승보僧寶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중생들을 교화하고 지도하는 비구比丘·비구니比丘尼 등으로 구성된 승려들의 출가교단을 가리킨다. 현전삼보現前三寶에서 승법은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최초의 5비구를 말하기도 하는데, 불멸 이후에는 부처님의 대리자로서 중생에게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인도하는 기능을 한다. 월정사月精寺에는 중심 사상인 문수도량文殊道場을 열었던 개산조開山祖인 자장율사慈藏律師를 비롯한 신희거사信孝居士, 신의대사信義大師, 근대의 방한암선사方漢岩禪師, 보문普門스님, 탄허呑虛스님 등 득법한 스님들께서 계셨다.

월정사성보박물관에는 승보와 관련된 고승진영과 오대산 월정사의 대표적인 고승이신 한암스님과 탄허스님의 유품들이 보관·진열되고 있다.

고승진영 高僧眞影

조사(祖師)스님이나 고승(高僧)대덕의 초상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모신 것을 영정(影幀) 혹은 진영(眞影)이라 한다. 여러 문헌 기록으로 보아 통일신라시대부터 진영 제작이 활발했었다고 한다. 고승대덕은 숭보로서 존송되며 특히 선종의 발달과 함께 많은 진영이 제작되었다. 이들은 조사당(祖師堂), 진영각(眞影閣), 혹은 국사당(國師堂) 등에 봉안되었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진영의 대부분은 손에 주장자(拄杖子) 혹은 불자(拂子)를 들고 있으며 의자에 앉은 좌안칠분도면(左顔七分度面)의 형식을 취한 것이 많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진영은 조사당에 봉안하며 아침 저녁으로 분향 예배를 드리므로 그림이 변형되거나 본래 상태에서 손상된 것이 많다. 진영은 큰 스님의 공(功)과 덕(德)을 기리는 것이므로 단순히 모습을 그려 기억하는 것보다는 높은 정신 세계를 나타내는 데 치중하였으며, 그림 한쪽에 주인공의 인격이나 덕망에 대해 기리고 추모하는 찬문(讚文)을 적어 넣기도 하였다.

Portrait Paintings - Buddhist portrait paintings refer to portraits of great Buddhist monks. According to historic records, such trends to draw Buddhist portrait paintings flourished starting from the Unified Silla Dynasty (AD 668-935). However, such trends started to diminish in the Joseon Dynasty (1392-1910) as the whole society leaned towards Confucianism. Still, many Buddhist portrait paintings were produced in the Joseon Dynasty. Most of the priests in the portrait paintings had a cane or a bead in their hands. Unfortunately, however, most of the portrait paintings have been deteriorated or damaged as they were hung on the walls during religious services. Buddhist portrait paintings focused on the spiritual world of sacred Buddhist monks not on their outer appearance. And, usually, words of praises were written on one side of the portraits.

1. 고승진영



범일국사진영

범일梵日(810~889)은 신라 말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사굴산파闍維山派의 개산조闍維이다. 속성은 김씨이고 15세에 출가하여 20세에 비구계를 받고 흥덕왕 때 당으로 가서 마조도일馬祖道一의 문하인 염관제안鹽官齊安에게서 수학한 후 문성왕 8년(847) 귀국하였다. 명주도독인 김공의 청으로 40여 년을 굴산사에서 기거하는 가운데 경문왕·현강왕·정강왕이 국사國師로 모시려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889년 80세에 법랍 60세로 입적하였으며 시호는 봉효通曉, 탑호는 연취延龜이다. 범일의 진영은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교의좌상全身交椅坐像으로 발 아래에는 담대踏臺가 놓여 있다. 진영의 형식 중 의자에 앉은 상은 바닥에 결가부좌結跏趺坐로 앉은 형식보다 일반적으로 고식古式이다. 오른손 손목에는 염주를 길게 감고 있고 양손으로 비스듬히 주장자拄杖子를 들고 있다. 초상화에서는 주인공의 정신을 드러내는 얼굴 묘사에 가장 중점을 두는데 이 범일국사의 진영 역시 한쪽을 응시하는 예리한 눈매, 꼭 다문 작은 입, 눈썹과 수염 표현 등 사실적인 안면 묘사가 돋보여 예리하면서도 깊이 있는 선사의 정신이 드러나고 있는 듯하다. 긴장한 상체에 비해 하체는 빈약하게 표현되어 있어 신체의 비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청회색의 법복과 붉은 가사의 표현, 바닥의 화문석 표현 등은 조선 후기 진영의 특징이다. 섬세하게 정성들인 의자의 장식과 문양, 그리고 의자에 불자拂子를 걸쳐놓은 모습은 독특한 표현이다. 그림에 간혹 얼룩이 있고 채색의 일부가 탈락되긴 하였으나 범일국사의 진영은 현존 유례가 극히 드물며 또한 조사진영으로서도 드물게 화기畵記를 남기고 있어 중요한 작품이다. 이 진영은 삼척 영은사에서 이운되었다.

화기：乾隆五十三年戊申五月日 弘勳化碧岩大肩 龍眠信謙助緣張...三綱秩 持事軌演 僧統慶應 書記八...

荆楚主梵日國師真影





사명당대선사진영

사명대사 유정推政(1544~1610)은 서산대사 휴정休政과 함께 임진왜란의 격동기에 승군의 지도자로 높이 추앙받았다. 의자에 앉은 형식, 저물로 연주와 주장자를 잡고 있고 의자에 불자를 걸어놓은 모습, 편지와 세책 방법, 문양 등 모든 화풍이 범암국사진영과 같으므로, 이들 두 진영은 같은 시기에 한 화승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사명당 진영은 스님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수염을 기른 모습인데 국내에 전하는 대부분의 사명당 진영이 수염을 기른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 실제로 스님은 수염을 길렀던 것을 알수 있다. 이 진영은 삼척 영은사에서 이운되었다.

104 | 사명당대선사진영 大深堂大師眞影
조선후기, 비단에 채색, 65.5×65.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1호



화곡당선사진영

얼굴에 주름이 적은 장년의 모습으로 그려진 진영이다. 무릎뚝이 좁고 가늘한 얼굴의 비교적 왜소한 체구로 묘사되었다. 단정한 이목구비와 삼매에 든 밝은 눈빛 등 단아한 스님의 성정이 흰색의 장삼으로 더욱 돋보인다. 화곡당선사의 부도가 강릉 보현사 부도밭에 남아 있다.

106 : 화곡당선사진영 華谷堂禪師眞影, 조선후기, 비단에 채색, 92.5×54.5cm



화곡당대선사진영

대선사 시절의 진영으로 깊은 눈썹, 얼굴과 목에 표현된 주름 등 노승의 모습이 역력하다. 느슨하게 이완된 필선과 주름에 따라 가해진 음영 등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화폭의 뒷면에는 광서 8년(1882) 제작되었음이 기록된 묵서명이 있다.



월암당대선사진영

갯빛 장삼에 붉은 가사, 열주와 주장자를 들고 돛자리가 깔린 바닥에 앉아 있는 전형적인 조선후기 진영도이다. 가름한 얼굴에 표현된 자연스러운 주름과 수염 자국, 입체감을 준 옷주름 등 화승의 정성이 짙게 배어 있는 진영도이다. 월암당대선사의 부도가 강릉 보현사 부도밭에 남아 있다.

108 | 월암당대선사진영 月巖堂大禪師眞影, 조선후기, 비단에 채색, 96.5 × 54.0cm

2. 근대고승



한암 漢岩(1876~1951)

법명은 증원重遠이고 법호는 한암漢岩이다. 강원도 화천 출신으로 어려서 한문을 배웠으며 천성이 영특하고 충기가 빼어나 한번 의심이 나면 풀릴 때까지 케 불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22세 때인 1897년 금강산金剛山을 유람하다가 기암 절벽의 하나하나가 부처와 보살의 얼굴을 닮은 것으로 느끼어 입산入山을 결심하고 장안사長安寺에 들어가 행통行通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몇 년 뒤 신계사 보운강회講會에 갔다가 보조국사普照國師의 『수심결修心訣』을 읽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 그후 각지를 다니며 수도정진하다가 김천 정암사靑巖寺에서 경허鏡虛스님에게 인가받았다. 1905년 양산 통도사의 내원선원內院禪院 조실로 있다가, 1910년 평안남도 병산의 우두암牛頭庵에 들어가 참선을 계속하였다. 그 후 오대산 상원사에 들어오신 후 입적하실 때까지 27년간 산문을 나오지 않으셨다. 1941년 조계종曹溪宗이 새로 출범하자 제1대 종정宗正으로 추대되어 4년 동안 조계종을 이끌었다. 1951년 1·4후퇴 때 상원사에 있었는데, 국군이 북으로 진격하면서 당시 공비의 소굴이 된다하여 상원사를 불태우려 하자, 자신도 함께 불태우라고 하며 이를 저지시킨 일은 유명하다. 1951년 3월 21일 아침 안아서 입적하였으니, 세수 75세, 법랍 54년이였다. 저서로는 『일발록一鉢錄』 한 권을 남겼으며, 경허·만공·수월과 함께 근세에 선종禪宗을 중흥시킨 선승으로 꼽힌다. 제자로는 보문普門·난암煥岩·탄허呑虛 등이 있다.



한암스님 일월도자수홍가사

가사코트는 인도의 불교복식인 Kikkari에서 나온 말로 스님들이 기존의 복장에 덧입는 종교복이다. 흔히 시주를 받아서 얻은 낡은 천조각으로 만들되 조각조각 베어서 다시 베베어 만들기 때문에 기웠다는 의미를 지닌 남낙자와 결합시켜 남가사라고도 부른다. 가사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조각천이 조각이며, 사방 들레에 난뿔이라고 하는 단을 붙여서 튼튼하게 만든다. 사방의 귀퉁이에는 각첩角帖이라는 사각천을 붙이고 착용할 때 어깨에서 흘러내리지 않도록 끈을 단다. 가사는 보시를 받아서 조각천으로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호화스러운 것을 금지하였으나, 간혹 금색실로 짜서 만든 금부직성가사金縷織成袈裟도 있다. 한암스님의 이 유품은 조선 마지막 임금인 순종을 모시던 김상궁이 직접 수 놓아 한암스님께 공양한 것이다.





한암스님 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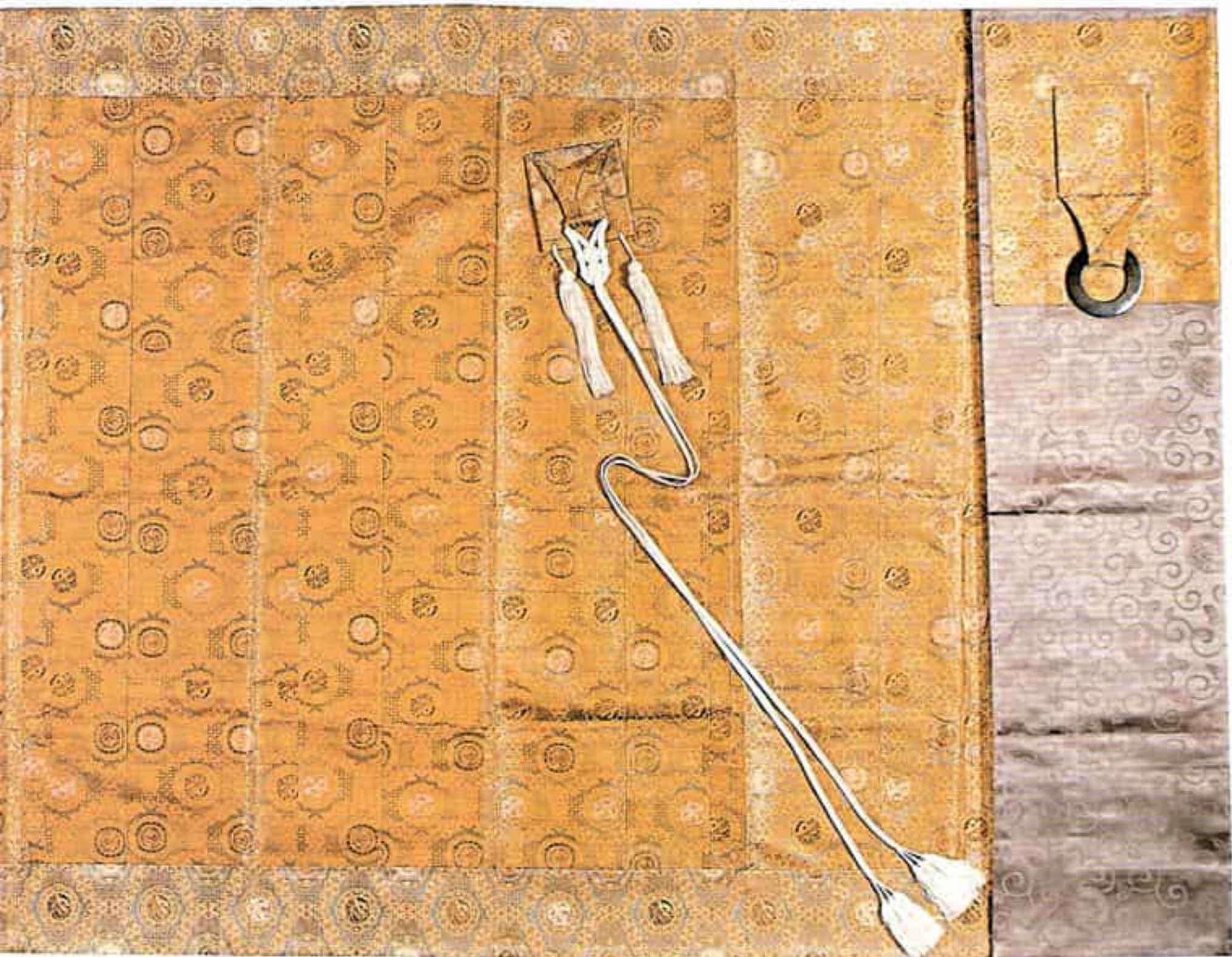
스님들이 일을 할 때나 평상시에 사용하기 편하게 목에 걸어서 매는 약식형의 가사를 말하며, 오조가사라고도 한다. 범어로는 Antārāvāsī라고 하며 안다회안수습이라고도 부른다. 이 낙자와 금관가서는 조선 총독이 한암스님께 공양한 것이다.



·서 漢苑 轉子, 일제강점기, 35 × 68cm

한암스님 금란가사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테라우찌 총독이 한암스님께 공양한 가사로 알려져 내리 오고 있으나 한번도 수하지 않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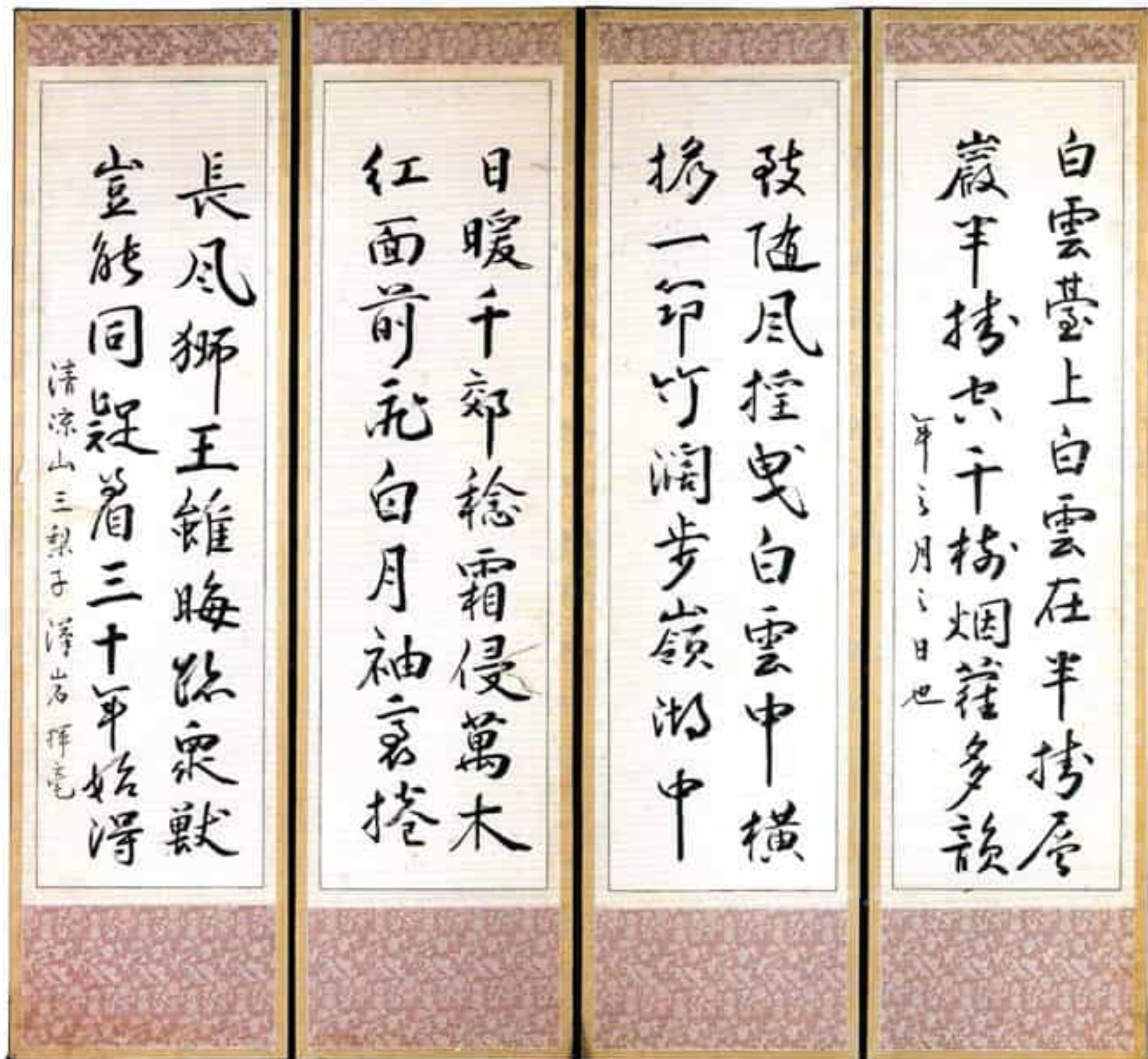




117 | 한암스님 밥우 漢巖鉢盂, 영재강명기
 밥그릇: 지름 10cm, 높이 9.0cm
 국그릇: 지름 17.5cm, 높이 8.0cm
 향수그릇: 지름 17cm, 높이 7.0cm
 찬그릇: 지름 16cm, 높이 6.0cm

한암스님 밥우

한암스님께서 사용하시던 식기로 4개가 한 벌이다. 가장 큰 것부터 밥, 국, 청수, 찬그릇이다.



118 | 한암필 사곡명중 漢岩筆 四曲異風, 각 폭 : 94 × 26 cm

한암필 사곡명중

白雲臺上白雲在 半掛巒巖半掛空 千樹烟蘿多韻
 年年月月日也
 致隨風搖曳白雲中橫拂一筇竹 澗步嶺湖中
 日暖千郊餘 霜侵萬木紅 面前飛白月 袖裏捲
 長風 獅王踰崎跡 衆獸豈能同 疑着三十年時得
 漢涼山 三梨子 漢岩揮毫

〈내용〉

백운대 위에 백운이 있어
 반은 층암에, 반은 허공에 걸려 있네
 천수의 연기 흰넙클엔 운치韻致가 많아
 바람따라 백운 중에 흔들리네
 해마다 달마다 하루와 같다

죽장 하나 옆에 끼고
 영호靈湖를 왕보하네
 날이 따뜻하니 원포千郊에 공년들고
 서리 힘노하니 만목이 붉으노라
 변경에 백월白月이 날고
 손으로 장풍長風을 거두노라
 사자왕이 비록 자취를 감춘들
 중수衆獸가 어찌 함께 하랴

30년 동안 의심해 오다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청량산에서 삼리자(방한암스님의 호) 한암이 붓을 휘두르다

단허呑虛(1913~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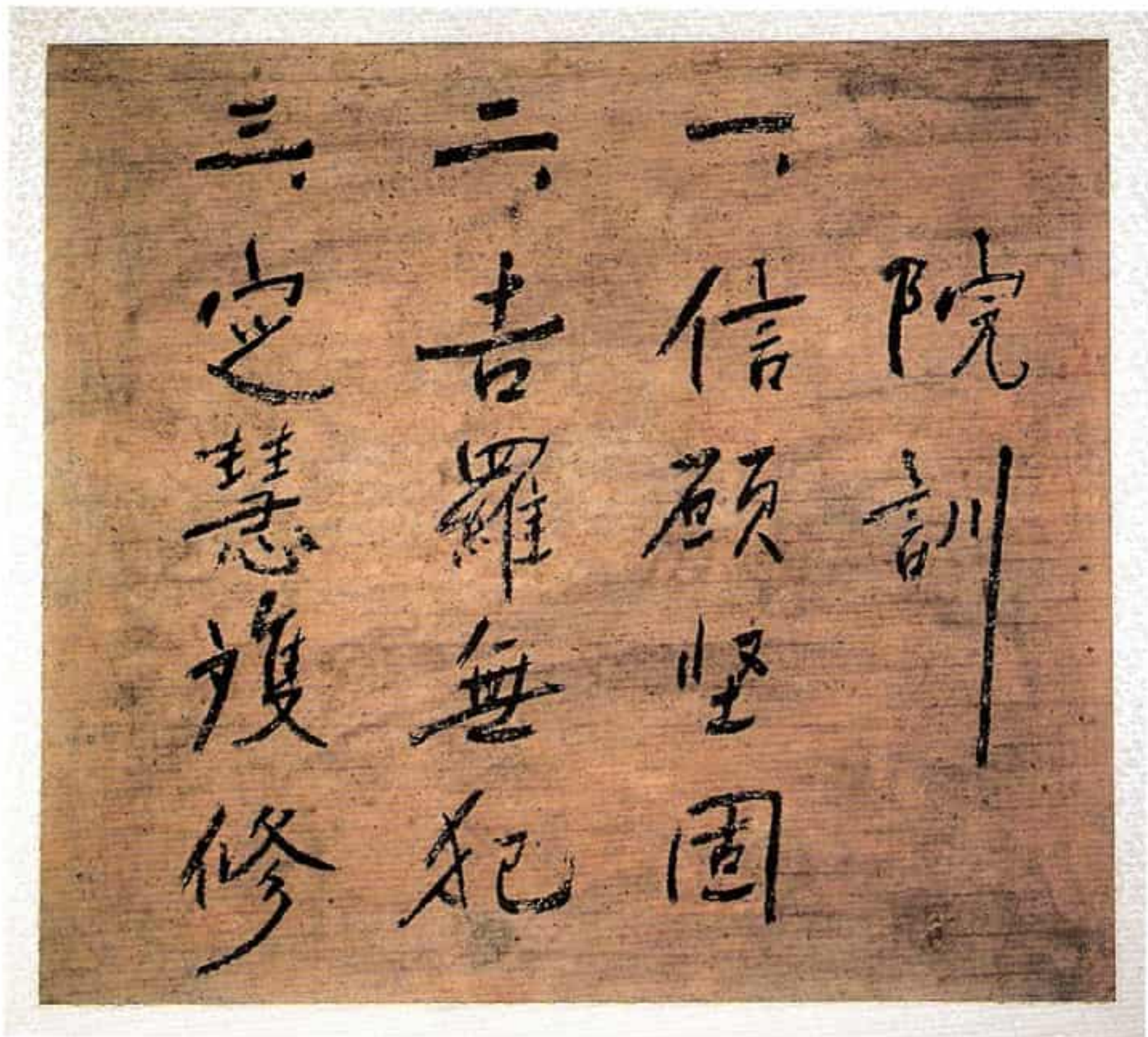
전북 김제 만경에서 김홍규金洪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속명은 금택金澤, 법명은 택성宅成, 법호가 단허이다. 어려서부터 한문학 전과정을 마치고 열다섯살이 되던 해 충남 보령에서 기호학파의 거유 최면암의 후학인 이극종 선생에게서 유학 및 도교학을 수료하였으나, 학문의 한계를 느껴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을 찾아 나섰다. 그러던 중 오대산 상원사에 있는 방한암스님의 명성을 듣고 열 아홉살에 처음으로 한암스님께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무려 삼 여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는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문장이었다. 스물한살이 되던 해 상원사의 한암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평소 승려 교육에 많은 힘을 쏟은 스님은 화엄경 120권을 비롯하여 육조단경, 보조법어, 사교, 사집 등 많은 불전을 번역하였다. 승려 교육의 공로로 생전에 인촌문화상을 수상하였고, 스님의 사상은 현대 한국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83년 6월 5일 향년 71세로 입적하실 때까지 오대산 방산굴方山窟에 계셨으며, 입적 뒤 종교인으로서는 최초로 국가가 추서하는 은관문화훈장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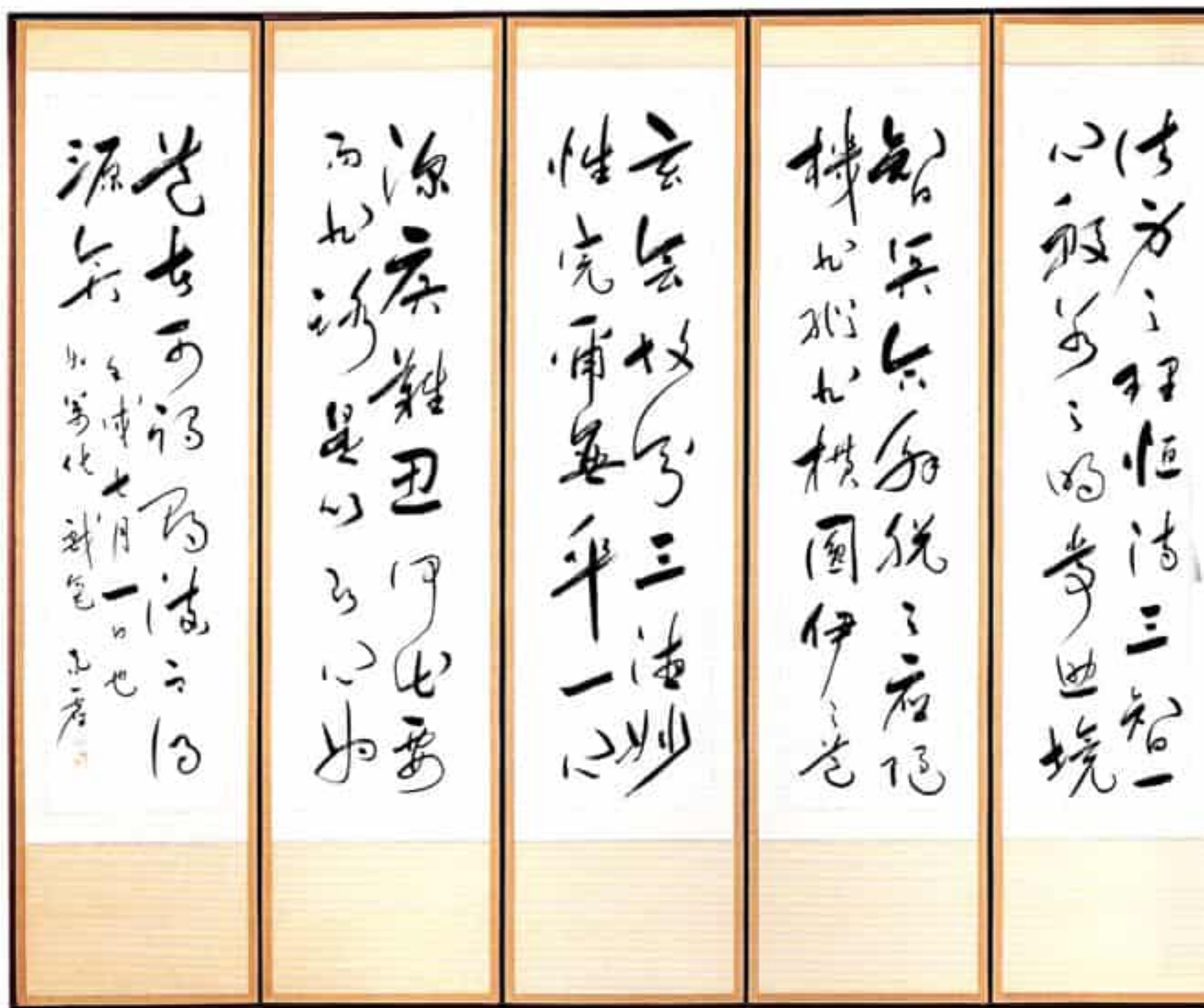


탄허스님필 원훈

탄허스님은 1950년대 한국 불교계를 뒤흔들었던 평화운동 후, 이에 대한 상찰과 불교계의 청정한 인제 양상을 취지로 1956년 4월 원정사에 오대산 수련원을 설립하였다. 이 원훈院訓은 그 수련원이 지향하는 이념적 지표이다. 신원건고 信願堅固는 불교에 대한 믿음과 원을 확고히 세우며, 갈나무범吉羅無犯은 계율을 엄숙히 지키며, 정혜쌍수定慧雙修는 정과 혜를 균등히 닦아 선수행을 통해 나타난 지혜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당시 교육 내용은 예불과 과선 그리고 탄허스님의 불교학 강의가 그 주를 이루었다. 원정사에서 2년, 삼척 영은사로 옮겨 3년, 총 5년간 약 30여 명의 수도생을 배출했으며, 이후 원정사에 화엄산림蓆巖山林이라는 교육결사로 이어져 왔다.

院訓: 一, 信願堅固 二, 吉羅無犯 三, 定慧雙修





담허스님필 심곡병풍

夫心性虛通 動靜之源 莫二 眞如絕慮
 緣計之念 非殊 悲見紛馳 窮之即唯一寂
 靈源不狀 鑑之即以千差 千差不全
 法眼之名 自立 一寂 非異
 慧眼之號 斯存 理量 雙消
 佛眼之功 圓著
 是以 三德一境 法身之理 恒清
 三智一心 般若之明 常照 境智冥合
 解脫之因 隨機 非縱非橫
 圓伊之遺 玄會 故知 三德妙性 完備無希
 一心 深廣難思 何知雲而奔路 是以
 即心爲道者 可謂得源之得源矣
 壬戌七月一日也 爲萬化戲毫吞處

대저心性이 비어 通하매 動과 靜의 근원이 둘이 없고
 眞如가 생각이 끊어지매 반연에 계산하는 생각이 다름이 아니라.(곧 眞如이다.)
 미혹한 소견이 어지럽게 내달리나 궁구해 보면 오직 한 고요함 뿐이요
 신령스러운 자리가 형상이 없으나 거울하여 비추면 한가지이다.
 한가지가 같지 않은지라 法眼이라는 이름이 스스로 성립되고, 고요함이 다름이 아니라 慧眼이라는 名號가 이에 있고
 理와 量(理智와 量智)이 쌍으로 녹아 없는지라 佛眼의 功이 뚜렷이 나타나도다.
 이 때문에 三德가 一境이라 法身의 이치가 항상 맑고
 三智가 一心이라 반야의 광명이 항상 비추이며 境界와 智慧가 닮음하는지라 해탈의 積음이 근기따라(각종하고),
 縱도 아니고 橫도 아니기 때문에 圓伊의 도가 호호하게 理解되도다.
 그러므로 알라, 三德의 妙한 性이 완전히 다름이 없는지라
 一心이 깊고 넓어 思議하기 어려우니 어찌 나아가는 雲門의 길이나니라.
 이 때문에 마음으로 도를 닦는 善는 可히 佛길을 찾아 根源을 얻는다 하리라.
 임술년(1982년) 7월1일 만화를 위해 담허가 붓을 놀리다.



121 | 단허스님의 십국명상 吾道第十世師風, 현대, 각쪽 176×44cm

단허스님 비루



122 | 단허스님 비루 香爐硯
 현대, 30.5×44.5×12.0cm



123 | 탄허스님 두루마기 종류 불분, 현대. 길이113.3cm, 폭107.0cm

탄허스님 두루마기
탄허스님 인장
탄허스님 은관문화훈장



124 | 탄허스님 인장 종류 15종, 현대
125 | 탄허스님 은관문화훈장 종류 2종, 현대



126 | 탄허스님필 황색 '향상일로' 종첩 筆蹟 '向上一路', 현대, 32.0 × 134.5cm

탄허스님필 황색 '향상일로'
탄허스님 원고 및 필기구



127 | 탄허스님 원고 및 필기구 종첩 筆蹟 및 筆記具, 현대

IV. Miscellaneous

There exists myriads of Buddhist cultural assets in Seongbo Museum, And because there are a wide range of cultural assets, not all assets are categorized into Buddha, Dharma or Sangha.

There are also various kinds of materials used in religious ceremonies, items used in the temples in every-day life, ancient relics discovered from sites where Buddhist temples used to stand etc.

IV. 기타 정보

신앙으로서의 불교와 관련된 모든 문화유산을 의미하는 성보문화재聖寶文化財에는 삼보로 분류되지 않는 중요 유물들이 있다. 범종梵鐘을 포함한 사물四物로 대표되는 불교의식구佛敎儀式具와 불단장엄구佛壇莊嚴具, 공양물을 담은 공양구供養具, 그리고 사찰에서 사용하던 생활 용구와 전각殿閣들이 있던 건물지建物址에서 나온 고고유물考古遺物들이 바로 그것이다.



상원사 동종

현재 전해지는 범종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양가지수(梁記)』에 의하면 안동 분부에 걸려 있던 것을 조선 세종 원년(1469)에 이곳으로 옮긴 것으로 전한다. 몸을 들며 입을 크게 벌린 용을 조형화한 용뉴(龍紐)와 울림이 있는 유장한 소리를 도와주는 음통(音筒)이 천관(天板)에 붙어 있으며, 유연한 곡선을 그리는 종신(鐘身)에는 살대·하대·유곽·당좌의 정교한 당초무늬와 공후(銅鼓)와 생포(生匏)를 연주하면서 현의를 흘날리며 날고 있는 아름다운 자태의 주악비천상(樂飛天像)이 조각되어 있다. 현판에 『開元十三年乙丑三月八日鐵城記文郡舍...』이라는 명문이 있어 725년에 제작된 것을 알려준다. 세련된 종신의 형태, 용과 비천상에서 보이는 활달하고 탄력적인 조각술, 정교한 구조술, 유장하고 깊이 있는 소리의 과학 등 8세기 통일신라시대의 우수한 문화를 증명해주며, 한국 종의 전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범종이다.



용다사 동종

한국 범종의 일반적인 양식에서 벗어난 외관을 보여주고 있다. 용뉴龍紐가 2마리 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매우 단순화되었으며, 용뉴를 중심으로 연꽃이 천판天板을 닮듯이 펼쳐져 있다. 종신에는 문양대, 유곽, 당좌檀座 등이 없이 단순히 3단의 황선대만 둘러져 있을 뿐이다. 상단에는 한글로 '양구현 심곡사 광서 5년(1879) 청신내 육사생 황씨가 수명장수와 비구 초리당의 극락왕생을 원하며 시주하였다'는 내용이 음각되어 있고, 종복 부분에도 선각과 점각으로 '건륭 52년(1787) 5월 용화산龍華山 용다사龍多寺에서 70근 무게로 종종을 만들었다'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전통 형식에서 벗어난 민예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범종으로 원주 구룡사龍龍寺에서 사용하였다.

상단의 한글 명문:

양구현 심곡사 광서오 연기교 윤송힐 일 경성내 거류중 종다
시류 청 신어을 수성연 지원황 씨류병 장슈지 덕원 비구초
허당왕 심극낙 지덕원

양구현 심곡사 광서5년(1879)기묘 윤3월일 경성내 거주하는 중종
대시주 청신내 육사생 연지원 황씨가 壽命長壽之大願과 비구
초허당의 往生極樂之大願을 발원하였다.

하단의 한글 명문:

乾隆五十二年丁未五月
鏡川龍華山龍茶寺中鍾
新造記中鍾七十斤口
嘉善大夫□□□
施主
嘉善大夫□□□
曲海
三綱 壽仁 有日
定安道片手□□中



129 | 공자사 동종 보부사 銅鐘, 조선시대(1787년), 높이 51.0cm, 굵기 34.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3호

선림원 종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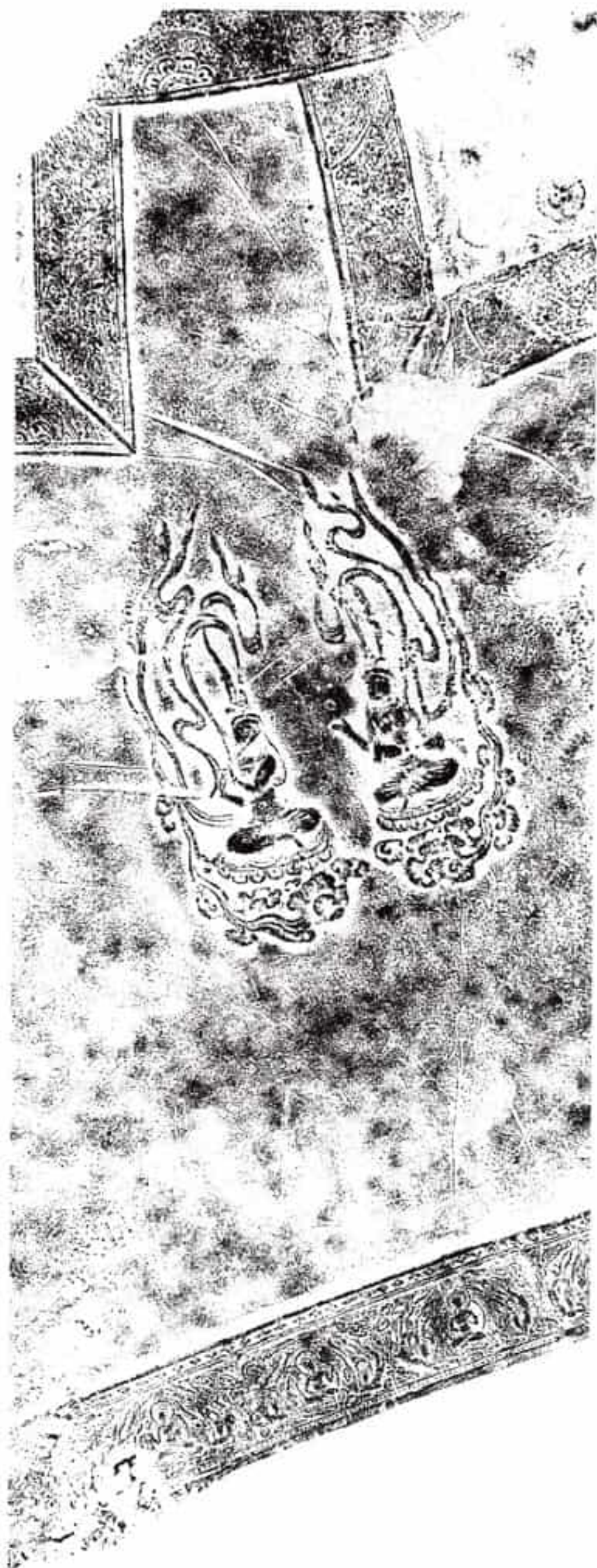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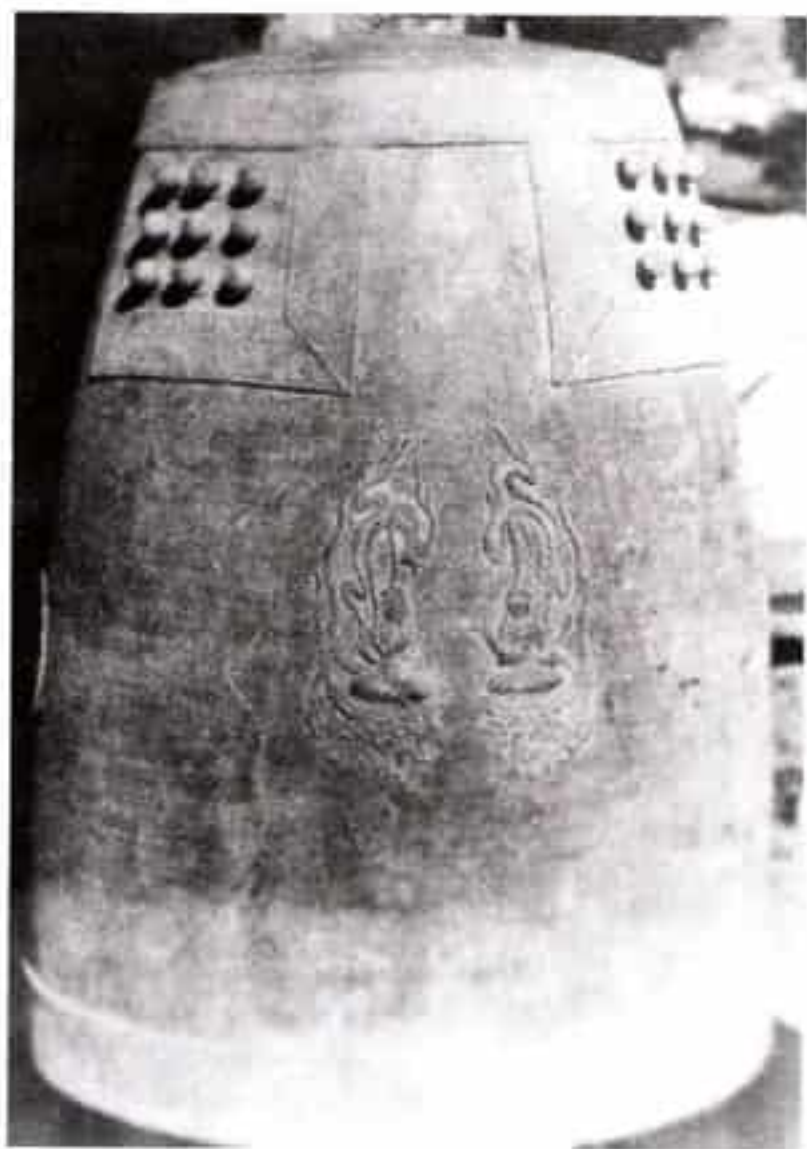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군 시면 시림리에 있는 선림원禪林院은 신라 하대에 홍각선사弘覺禪師에 의해 건립된 사찰로 산사대에 의해 폐허화되었으며, 현재 절터에는 삼층석탑과 승탑臺基의 하대가 남아 있다. 1948년 지표조사가시 출토된 신라 범종을 1949년 11월 원정사로 옮겨두었으나, 이 신라 범종은 1950년 한국 전쟁 중 분에 타서 녹아버렸다. 이는 그 단편이며 국립중앙박물관에도 파편들이 소장되어 있다.

130 | 선림원 종편 禪林院鐘片, 통일신라(804년), 화 : 높이 11.0cm, 폭 12.6cm, 무 : 높이 9.0cm, 폭 19.0cm



151 | 신림면 동종 神林院 銅鐘, 통일신라(904년), 높이 122.0cm, 폭 68.0cm (순창지기 전의 모습)

152 | 신림면 동종 비전상 부분 神林院 銅鐘 祝天像 部分 銅本
(도판출처: 『新羅의 神話』, 美善永, 通度寺 聖寶博物館, 1994)



월정사팔각구층석탑 풍탁

국보 제48호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각 옥개석과 상륜부에 매달려 소리를 냈던 장엄구이다. 형태는 상협하광上狹下廣에 복부腹部가 약간 부르고 광릉면八角面이면서 편탁扁鐃이다. 이 풍탁의 중앙 상부에는 수철제 고리가 관통하고 있으며, 풍탁 안쪽에는 십자형철十字形鐵이 있고 그 아래에는 풍탁설風鐃음이 행엽형杏葉形으로 매달려 있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에는 각 층마다 크기가 조금씩 다른 총 8개의 풍탁이 아름다운 화음을 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상륜부 청동장식

월정사팔각구층석탑 보개寶蓋에 부착되었던 목단부조教并蓮彫 장식이다. 상륜부 보개 위에 8개가 둘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133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상륜부 청동장식 月精寺八角九層石塔 相飾彫 靑銅裝飾
고려시대, 길이 31.0cm, 폭 20.0cm
- 134 | 월정사팔각구층석탑 풍탁 月精寺八角九層石塔 風鐃
고려시대, 몸경: 길이 31.0cm, 폭 7.0cm, 풍탁살: 길이 11.3cm, 폭 16.0cm



137 | 월정사 요령 月精寺 鐺鈴, 조선후기, 높이 18.0cm

138 | 월정사 경자 月精寺 鈴子, 조선후기, 높이 17.5cm, 지름 10.0cm



월정사 요령

손으로 흔들어서 소리를 낸다고 해서 요령이라고 하는데, 고려시대의 금강령술 金剛鈴術이 단순화되어 몸체에는 아무런 장식과 조각이 없고 손잡이 끝도 보주형 寶珠形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월정사 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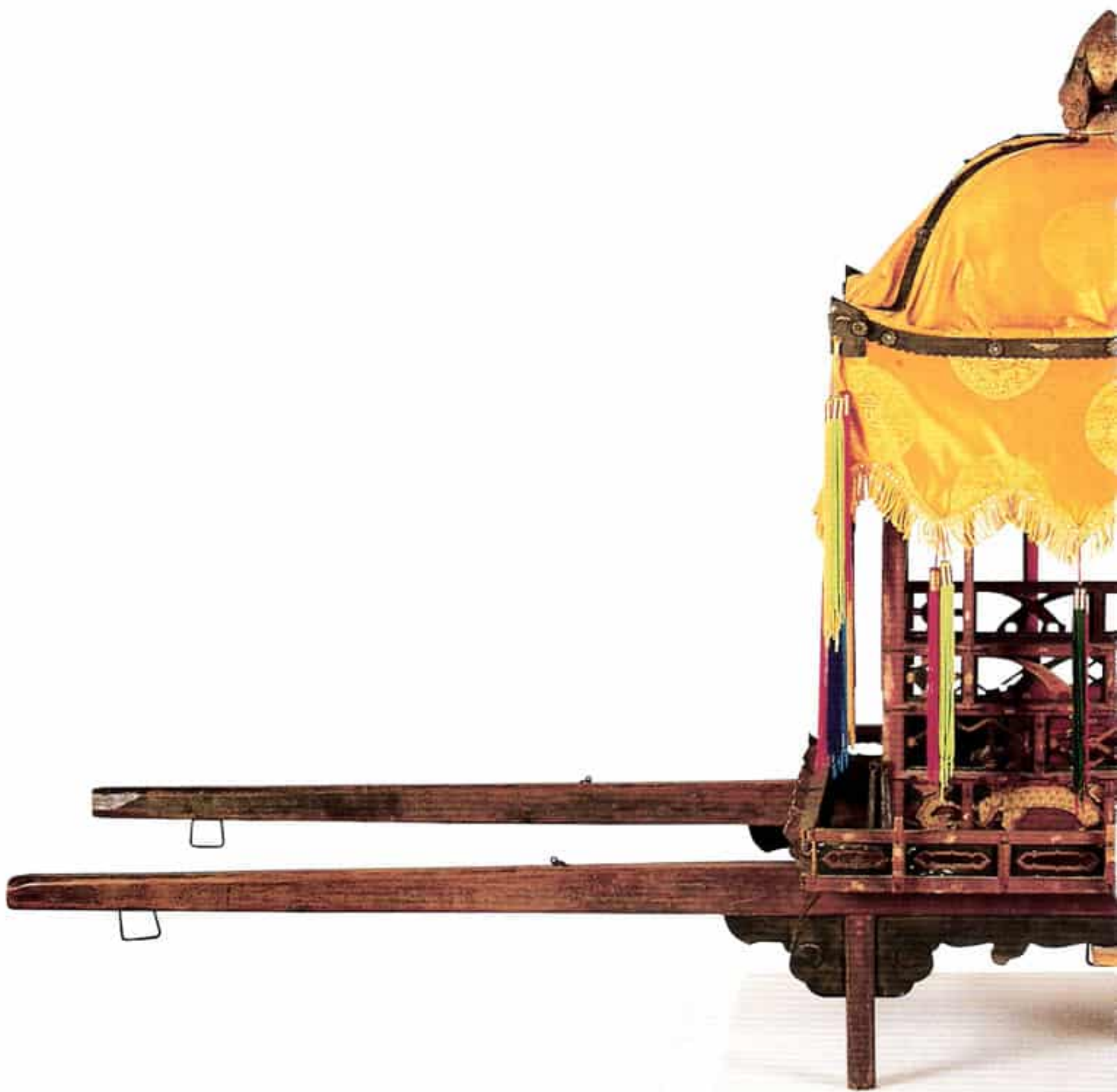
불경을 읽을 때나 법회 法會를 할 때 사용되는 불구로 원래 동, 철, 옥, 돌로 만든다. 주로 대를 만들어 걸어두거나 법상 法床 위에 두고 당목 檀木으로 치는데, 모양은 밥그릇과 종의 중간적인 형태이다. 경자를 치는 목적은 계존 戒尊을 경각 警覺시키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무명의 긴 잠으로부터 깨우는 데 있다.



139 | 수타사 바라 壽陀寺鉢鐘, 조선전기, 지름 53.4cm

수타사 바라

원래 악기의 일종이었으나 불교 의식 때 범구로 전용되었다. 심벌즈와 비슷한 모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동받銅鉢을 만들어 썼는데 중심부가 둥글게 솟아올랐고, 테두리가 넓다. 가운데 움푹 솟은 곳에 구멍을 내고 끈을 달아서 좌우 손에 한 개씩 들고 서로 비벼 치면서 소리를 낸다. 불전에 향을 올릴 때, 설법할 때, 큰 집회를 행할 때, 천도제나 49재를 하거나 새로운 주자를 맞아들이는 의식 때 수행자가 울었다고 한다. 바라 안쪽면에 '水積寺'라는 묵서명이 보이므로 수타사가 이러한 명칭으로 쓰이던 세조 2년(1437) 이후에서 '壽陀寺'로 고쳐진 고종 15년(1878)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타사 불연의 정면 문



수타사 불연의 뒷면



수태사 불면 청상의 연봉오리 장식



수태사 불면 난간의 길상문



영은사 불연

정상부에는 양화(仰花) 받침 위에 정병(淨瓶)이 올려져 있으며, 1층 난간에는 사방으로 용두형 장식이 5열씩 배치되어 있고, 난간 아래에는 4마리의 사자가 불연을 받치고 있다. 네 기둥과 난간에 모두 꽃문양의 장식이 화려하게 투각되어 있으며 손잡이의 용두장식 또한 매우 생동감 넘치는 뛰어난 수작이다.





141 | 양근사 불전 觀音寺 佛殿, 조선시대, 높이 146.0cm, 폭 74.0cm, 총길이 336.0cm



구룡사 소동

소동鼓筒은 불교 의식 때 발원 내용을 읽고 나서 그것을 말아 넣는 통으로 불단 좌우에 놓는다. 연꽃이나 운룡, 극락조 등의 문양을 무각한 직사각형 통이며, 받침대는 연화좌, 사자좌 등이 받치고 있거나 난간을 두르기도 한다. 원주 구룡사에서 이운된 유물이다.



1421 구룡사 소동 龍觀寺 蘇童, 조선 후기, 높이 107.0cm



143 | 보덕사 업경대 佛捨寺 業鏡臺, 조선 후기, 높이 119.0cm

보덕사 업경대

병부전 병마왕 鎭摩王 廟에 있다는 가운데, 죽은 이를 여기에 비추면 생전에 지은 선악의 행업 行勳이 그대로 나타난다고 한다. 병부전 佛府殿의 불단에 봉안된다.



144 | 구룡사 일월문편봉 龜龍寺 日月文扇, 조선 후기, 길이 217.0cm

구룡사 일월문편봉

속의 시련의식용侍禮儀式用 법구로 원주 구룡사에 전래된 것이다.



③



②

월정사 목패

목패는 불·보살의 명호나 발원 내용 등을 적어 놓은 나무패를 말한다. 일반적인 형태는 내용이 적힌 패를 연화대 위에 놓는 것인데 패 주위를 구름 모양 혹은 보주형 등으로 조각하고 그 안에 꽃, 용, 구름 등으로 화려하게 조각한다. 용도나 명문의 내용에 따라 불패佛牌, 경패經牌, 삼보패三寶牌, 원패願牌, 위패位牌 등으로 구분된다. 월정사 목패는 각기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殿下壽千秋'라 적혀 있어 임금, 왕비, 세자 삼전三殿의 목패 3점이 한 조를 이룬다. 조선 후기 법당의 불단에 놓이는 목패 중에는 이와 같이 삼전의 만수무강萬壽無疆을 기원하는 삼전패三殿牌를 봉안하는 예가 많다. 모두 외형은 구름 모양이고 상중하로 구분되는데, 임금의 위패는 상부에는 봉황, 나머지는 구름 모양이 새겨져 있다. 왕비와 세자의 위패는 테두리를 연봉오리가 감싸고 있고 그 안에는 채운彩雲을 그려 넣었다. 현재 패를 꽂았던 좌대는 모두 결실되어 있다.

145 ① 월정사 목패 月精寺 木牌, '主上殿下壽萬歲' 조선시대, 높이 70.0cm
146 ② 월정사 목패 月精寺 木牌, '王妃殿下壽齊年' 조선시대, 높이 68.5cm
147 ③ 월정사 목패 月精寺 木牌, '世子殿下壽千秋' 조선시대, 높이 68.3cm





월정사 목패

구름 사이로 봉황이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운봉문 목패로 좌대가 결실되어 있다.

보덕사 목패

운봉문 목패로 도식적인 형태의 구름과 용이 얽혀 있는 형상이며 영월 보덕사에서
이운된 유물이다.



151 | 월정사 목패 月精寺 木牌, 조선시대, 높이 49.0cm

152 | 보덕사 목패 報德寺 木牌, 조선시대, 높이 63.0cm

월정사 삼전패

삼전의 위패를 한꺼번에 새겼다. 받침대가 결실되어 있고 패 주위에 운문(雲龍)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다.





154 | 부석사 무량수전 녹유전 浮石寺 無量壽殿 綠釉硯, 고려시대, 14.0×14.5×6.4cm, 제천 김연호 선생의 기증 유물

부석사 무량수전 녹유전

부석사 무량수전에 깔았던 녹유전硯軸體이다. 표면에 반투명의 녹유가 남아 있다.

만력년명 암막새

조선시대 전형적인 형태의 암막새로 일부 결손되었으나 '萬曆三十'까지는 남아 있으므로 1602년~1611년 사이에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흥천 수타사에서 수습한 유물이다.

범자문 숫막새

흥천 수타사에서 수습한 유물이다.



155 | 안력년명 임익세 萬曆年結 平瓦甍, 조선중기, 22.0×18.0cm



156 | 범자문 순막세 梵字文 圓瓦甍, 조선후기, 19.8×19.0cm

만자문 석화

곡물을 찧는 데 쓰는 용구이다. 양쪽에는 홈을 파서 만든 손잡이가 있고 정면에는 만자문卍字文, 그리고 뒷면에는 보화문寶華文이 새겨져 있다. 아마도 부처님의 은혜가 곡식에 깃들길 바라는 염원으로 조각된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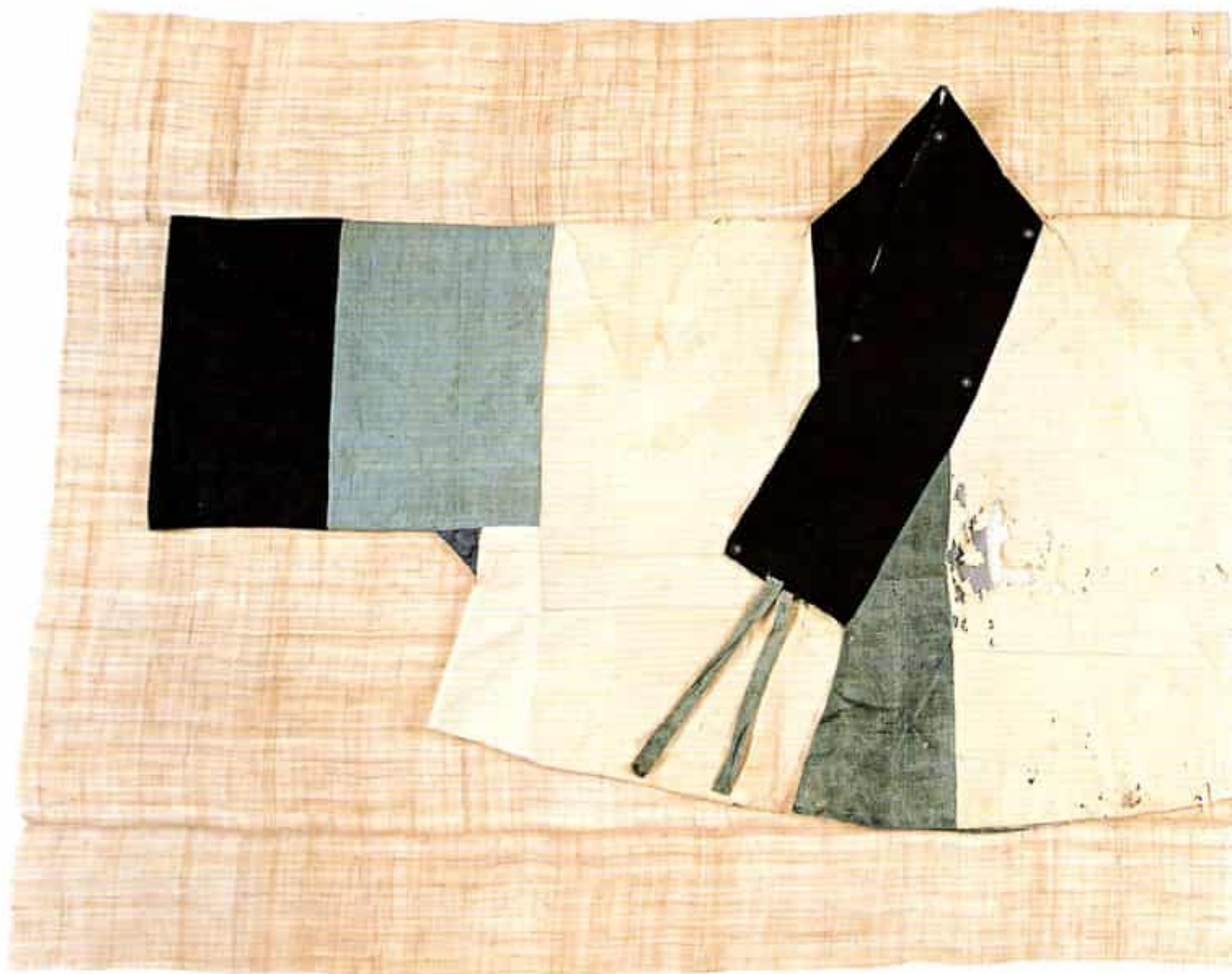
157 | 만자문 석화 卍字文 石槌, 조선후기, 높이 36.0cm, 폭 54.0cm

용두문 밧돌

곡물류를 가공하는 생활 용구로 뒷편에는 백사(龍首)의 의미로 도깨비 문양이 새겨져 있고 아랫편 돌신에는 용의 비늘이, 그리고 갈린 곡물이 나오는 입구는 용두(龍頭)가 조각되어 있다. 장식성이 두드러지며 아마도 사찰에서 사용하였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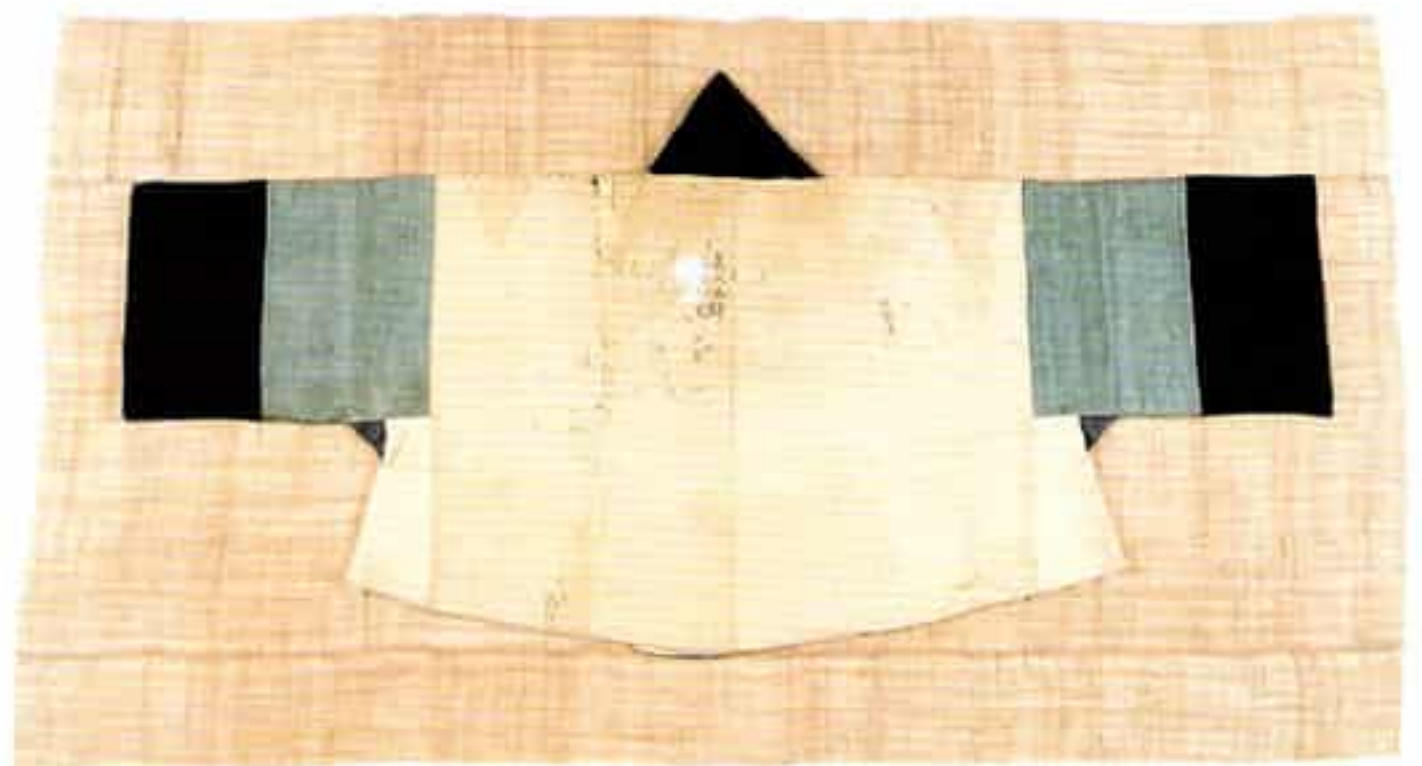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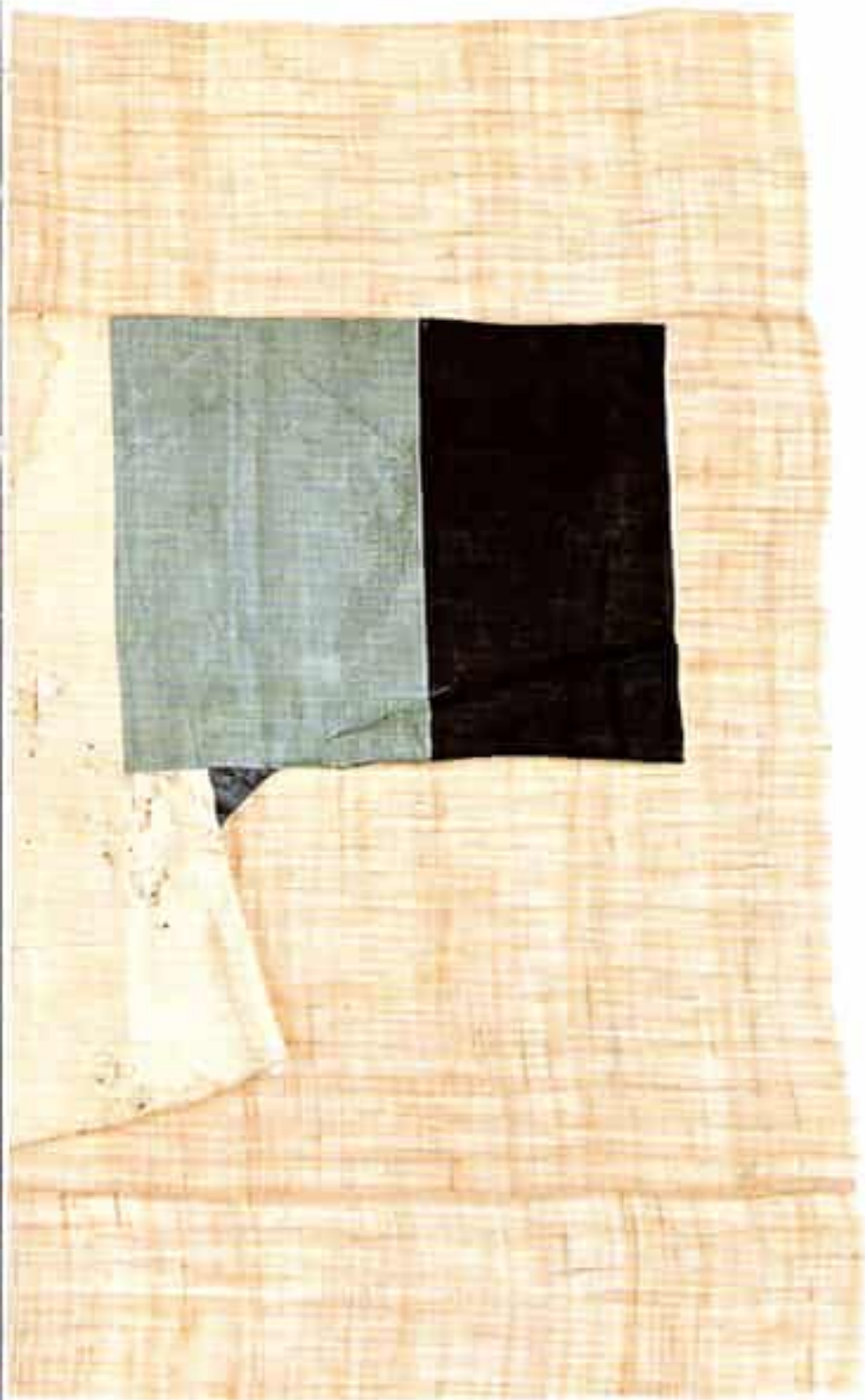
158 | 용두문 龍頭文 밧돌, 조선 후기, 총높이 49.5cm, 폭 54.0cm (뒷편: 지름 23.0cm, 높이 8.5cm)
 159 | 용두문 龍頭文 밧돌, 조선 후기, 총높이 45.7cm, 폭 52.0cm (뒷편: 지름 26.0cm, 높이 8.2cm)



160 | 백조희장저고리 白鳥回裝赤古裳
조선중기로 추정, 길이 52.4cm, 폭 34.0cm, 중앙민속자료 제219호

백초회장저고리

깃과 칼동, 실과 옷고름 등에 짙은 배색을 한 회장저고리(回裝赤古里)이다. 저고리의 전체적인 구성은 조선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통적인 쪽을 염색을 하였으며 각기 농도가 다른 흰색 천을 교대로 배치하여 배색 효과가 두드러진다.



금니대련

오대산 중대 적멸보궁에 전해지던 대련對聯으로 총 10폭이 있었으나 현재는 2폭만 전해진다. 감지紺紙에 금니金泥로 그린 회귀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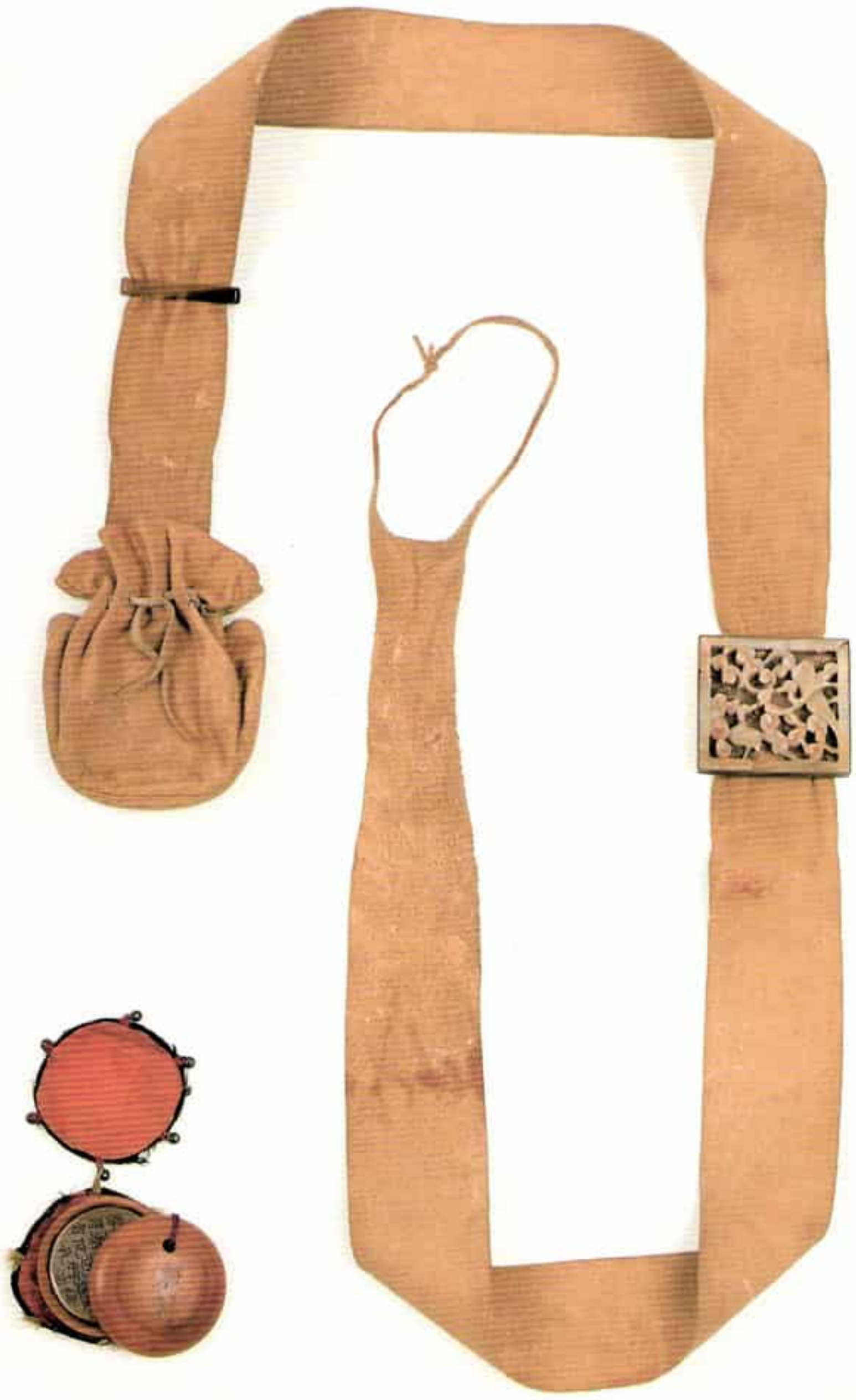


일부와 밀부주머니

조선 예조總司에서 원정사 주지에게 사어賜與한 유물로 사슴가죽 주머니와 띠로 구성되어 있다. 작은 원형 동판에 명문을 앞뒤로 새기고 나무 상자에 넣었으며, 이것을 가죽 주머니에 넣었다. 앞면에는 '江原道五臺山中臺寂滅宮守護禪教兼八道釋品第一都院長密符者', 뒷면에는 '禮判下 庚申正月日國幸教是時上言內新鑄給信圖'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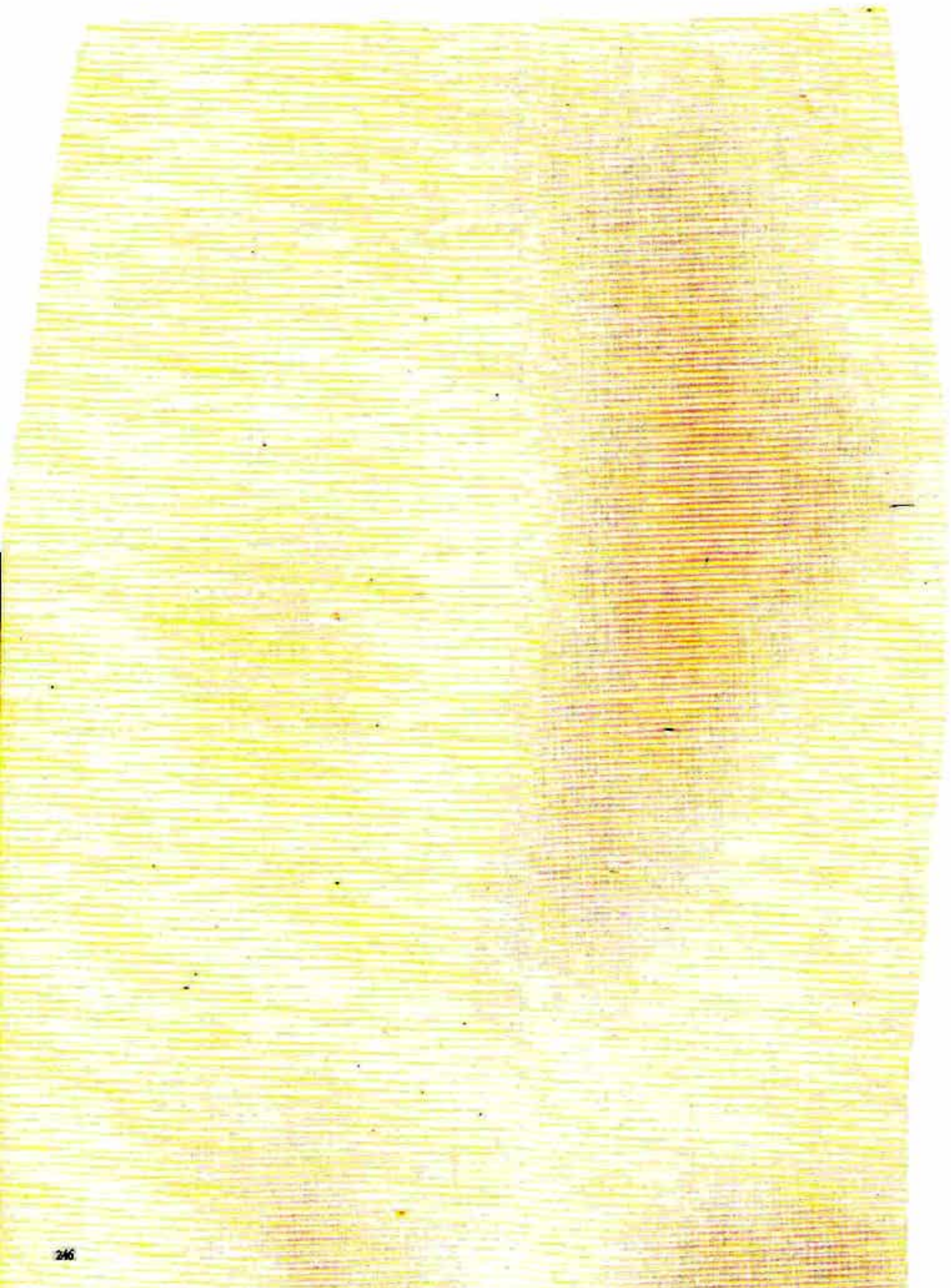


162 | 일부 순符, 조선후기로 추정.
일부·지름 5.3cm, 일부주머니·띠길이 165.0cm, 주머니 폭 9.0cm





부록 Appendix



월정사성보박물관의 개요 및 연혁

1. 월정사성보박물관의 건립 취지

월정사성보박물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약 60여 개의 전통 사찰에 봉안된 성보문화재들을 도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며, 문화재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축적시켜 일반인 및 학계와 더불어 성보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관광객 및 불교신도들에게 유물 전시를 통하여 보다 열린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건립되었다.

2. 월정사성보박물관의 건립 경위

오대산 월정사는 643년 신라 선덕여왕 12년 자장율사에 의해 창건된 천년고찰로 수많은 성보문화재들을 간직하고 있었다. 또한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강원도 남부 60여 개의 전통 사찰에도 다수의 문화재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화재와 도난 등으로 많은 유물이 유실되어 사라진 것이 현실이다. 특히 1950년 한국전쟁에 의한 문화재 유실의 대표적인 지역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이에 1974년 만화대선사에서 불교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월정사 경내에 진열장과 보관 시설을 갖춘 정면 3칸 측면 2칸 맞배지붕을 한 18평 규모의 '보장각寶藏閣'을 건립하신 것이 월정사성보박물관의 전신이다. 이후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성보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은 월정사 뿐만 아니라 교구 내 전통 사찰에 있는 문화재들의 안전한 보관의 필요성이 더욱



중대됨에 따라 현재 월정사 주지 현해스님의 원력으로 월정사성보박물관 건립이 구체화되었다. 이에 1995년 건립 추진안이 본사 총무회의에서 결의되었으며, 다음 해 말 공사에 착수하여 1998년 12월 정면 7칸 측면 3칸 2층건물에 206평 규모의 박물관이 완공되었다. 이후 수장고 내부에 최신식 보관 장비와 전시 시설을 완비한 월정사성보박물관은 1999년 10월 13일 개관을 맞이하게 되었다.

3. 월정사성보박물관의 시설과 규모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지상 1층 지하 1층의 한식 콘크리트 건물로 총건평 206평의 실내 공간에 1층과 지하의 전시 공간과 학예연구실, 수장고, 창고, 기계실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수장고 시설은 6면 모두 오동나무로 시공하여 보관 유물의 충해 및 습도의 자체 조절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항온항습기를 24시간 가동하여 박물관이 내륙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건조함과 급격한 온도 변화에 따른 유물의 손상을 최소화하였다. 이에 덧붙여 9개의 전시장과 박물관 실내 공간에도 공조시설을 하여 전시 중에도 유물의 손상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최신식 보안 장치를 시설하여 유물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이는 그동안 보존에 어려움이 많았던 소장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말사에 있는 문화재들의 위탁 보관을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박물관 소장 문



탄허스님필 보물지 현판

화재의 안전한 교류를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지상 1층, 지하 1층의 전시실에서는 불佛·법法·승僧 삼보三寶를 전시 주제로 삼아 불교 문화 유산들을 전시하고 있다. 불보실에는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사리구와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그리고 강원도 남부 60여 개 전통 사찰의 불상, 불화를 전시하고 있으며, 법보실에는 상원사증창권선문과 월인석보, 그리고 월정사 팔만대장경 등 각종 필사본 및 인쇄본 경전 및 문서를 전시하고 있다. 승보실에서는 고승진영을 비롯하여 근대 한암漢岩·탄허呑虛 스님의 유품을 소중히 전시하고 있다. 또한 1년에 약 석달간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 사리를 불자들이 친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2000년 “고려시대 금동보탑” 등 특별 전시와 용금루 상설전시장에서 사진 전시를 통해 다양한 불교 문화 및 신행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성보박물관 전시실 내부

4. 월정사성보박물관의 주요 활동 사항

월정사성보박물관의 현재까지의 활동을 살펴보면 상설 전시 이외에 활발한 학술 조사와 문화계 보존 사업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전을 개최한 바 있다. 우선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약 5년에 걸쳐 대한불교조계종 문화부·성보문화재연구원과 공동으로 “4교구 성보문화재 기초 및 정밀조사”를 시행했으며, 2000년 보물 제139호 월정사석조보살좌상의 보수, 보물 제793호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및 중요민속자료 백초화장저고리 보존처리 사업 등에서 사찰의 입장을 대변하여 간여하였다. 또한 2000년 10월 “고려시대 금동보탑”특별전,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어제와 오늘” 사진전, 2001년 4월 “상원사문수동자상 복장 진신사리 친견전”을 비롯하여 “강원도 성보유물 특별전”, “유리원관 사진으로 보는 100년전의 오대산 성보문화재”전을 개최한 바 있다. 이외에도 2000년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종합적 검토”와 2001년 “강원도 성보문화재의 종합적 검토” 등 개관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소장 유물의 학술적인 가치를 한층 심화·추적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월정사성보박물관 학술총서”를 발간하여 성보박물관이 단순한 유물 전시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도록 하였다.

monk Manhwa acknowledged the significance of Buddhist cultural assets and constructed the Bojang-gak which was covered with a Gambrel roof and was composed of three chambers on the front and two chambers on the side. And the Bojang-gak became the very origin of Seongbo Museum. For twenty years or so, many people raised the necessity for safe storage of the cultural assets of Woljeong-sa Temple and of all the Buddhist temples of the Fourth Buddhist parish of Jogye order. Recognizing this call, Woljeong-sa Temple Chief Priest Hyunhae rose to the occasion and started to materialize a dream that has long been treasured. As a result, the Woljeong-sa Temple official meeting agreed upon a resolution to construct the Seongbo Museum in 1995. The actual construction commenced in late 1996 and ended in December of 1997 when the three-story Seongbo Museum (approximately 814 square yard), consisting of seven chambers on the front and three chambers on the side, was first revealed to the world. Afterwards, various state-of-the-art facilities for storing and displaying the cultural assets were installed. And finally, on October 13th of 1999, the Seongbo Museum opened its doors to the public.

3. Facilities of Seongbo Museum

The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is built as a Korean-style concrete building and is composed of the Arts & Science Research Lab, a storehouse, a warehouse, a machinery room etc.

In particular, all six surfaces (floor, roof and 4 walls) of the storehouse were made of paulownia tree so as to prevent vermin damage and to enable automatic humidity control. In addition, a temperature/humidity chamber is in operation 24 hours a day in order to minimize or even eliminate the potential threat posed to the cultural assets by the sudden change in temperatures or dryness caused by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the Museum. For the same purpose, air-conditioning systems are in place in all of the nine exhibition halls and other indoor areas. Also, high-tech security devices have been implemented with a purpose to safely secure all cultural assets in the Museum.

All of these facilities have been installed with the aim to efficiently manage Buddhist cultural assets in Seongbo Museum, to store cultural assets from other Buddhist temples, and to safely exchange cultural assets with other museums at home and abroad. The exhibition hall (two stories) is subdivided into Buddha Hall, Dharma Hall and Sangha Hall. The Buddha Hall exhibits the Sarira Reliquary from the Octagonal Nine-storied Pagoda of

Woljeong-sa Temple, Relics from the Wooden Sculpture of Manjusri as a Young Boy at Sangwon-sa Temple, and numerous Buddhist sculptures and paintings from the 60 or more Buddhist temples in south Gangwon-do Province. The Dharma Hall displays the Writings on the Reconstruction of Sangwon-sa Temple, Song of the Moon's Reflection on the Thousand Rivers and Biography of the Buddha, the Goryo Tripitaka of Woljeong-sa Temple and other various Buddhist scriptures or writings. The Sangha Hall shows portrait paintings and remaining possessions of Hanam and Tanheo.

In addition, for three months per year, Buddhist believers get the opportunity to view, with their naked eyes, the Relics from the Wooden Sculpture of Manjusri as a Young Boy at Sangwon-sa Temple. Then, there



Interior of Seongbo Museum

are special exhibitions on Gilt-Bronze pagodas of the Goryo Dynasty in 2000 and the photo exhibition that all enable Buddhist culture and religious belief to flourish one again.

4. Major Accomplishments

In addition to their normal exhibitions, the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has focused on conducting research, operating projects on cultural assets, and opening special exhibitions.

From 1996 to 2000, Seongbo Museum carried out a close examination on the Buddhist cultural assets of the Fourth Buddhist parish of Jogye order in conjunction with the culture division of Jogye order and various research institutes. Furthermore, The Seongbo Museum advocated and spoke on behalf of the Woljeong-sa Temple in projects such as the renovation of

Stone Seated Buddha of Woljeong-sa Temple (Treasure of Korea No. 139) in 2000, the Relics from the Wooden Sculpture of Manjusri as a Young Boy at Sangwon-sa Temple (Treasure of Korea No. 793), Baekchohoejang Jacket etc.

Seongbo Museum, thus far, has held numerous special exhibitions such as the "Special Exhibition on Gilt-Bronze pagodas of the Goryo Dynasty" in October of 2000, "The Past and Present of the Octagonal Nine-storied Pagoda of Woljeong-sa Temple," "Special Exhibition on the sacred surira of the Relics from the Wooden Sculpture of Manjusri as a Young Boy at Sangwon-sa Temple" in April 2001, "Special Exhibition on Buddhist Cultural Assets of Gangwon-do Province," "Photo Exhibition on Buddhist Cultural Assets of Odae-san Mountain."

Seongbo Museum also exerted their might in holding seminars such as the "Comprehensive Review on the Octagonal Nine-storied Pagoda of Woljeong-sa Temple" in 2000 and the "Comprehensive Review on the Buddhist Cultural Assets of Gangwon-do Province" in 2001. Through in-depth discussions and debates, these seminars have enabled the Museum to elevate their understanding on and to appreciate the value of the Buddhist cultural assets.

By all means, Seongbo Museum has truly grown into a hub of research on Buddhism and into the heart and soul of Korean Buddhism. Seongbo Museum also published the "Collection of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which is part of their endless effort.

월정사성보박물관 연혁

- 1974년 18평 규모로 보장각 건립
- 1995년 국가보조비, 자부담 등 예산 확보로 건립 추진안 결의
- 1996년 10월 문화재관리국 설계 승인
- 1996년 11월 4교구 본·말사 불사심의위원회 통과
- 1996년 12월 신축 보장각 기공식
- 1997년 4월 신축 보장각 착공식
- 1997년 12월 신축 보장각 상량식
- 1998년 6월~7월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출토 유물 및 상원사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 전시
- 1999년 10월 13일 신축 "보장각 월정사성보박물관" 개관식
- 2000년 7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공동 4교구 본말사 성보 정밀 조사
- 2000년 7월 3일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문화관광부에 1종 전문박물관 등록
- 2000년 9월 한국박물관협회 정회원 가입
- 2000년 10월 2일 "한국석탑 그 細長의 美" 사진전 (50일간)
- 2000년 10월 5일 "고려시대 금동보탑" 특별전 (30일간)
- 2000년 10월 18일 개관 1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월정사팔각구층석탑의 종합적 검토"
- 2000년 12월 31일 월정사성보박물관 학술총서 1집 발간
- 2001년 4월 부처님오신날 기념 "진신사리 친견법회"
- 2001년 10월 1일 "사진으로 보는 100년 전 오대산 성보문화제" 사진전 (60일간)
- 2001년 10월 6일 "강원도 성보유물 특별전" (50일간)
- 2001년 10월 12일 개관 2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개최 "강원도 불교문화제의 종합적 검토"

Chronicle

1974	Construction of Bojang-gak (approximately 72 square yards)
1995	Resolution to construct the Seongbo Museum (fund raise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by Woljeong-sa Temple)
October 1996	Approval given by the Korean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November 1996	Approval given by the deliberative council of Buddhist temples of the Fourth Buddhist parish of Jogye order
December 1996	Ceremony for newly constructing Bojang-gak
April 1997	Ground-breaking ceremony for newly constructing Bojang-gak
December 1997	Roof-raising ceremony for newly constructing Bojang-gak
June-July 1998	Exhibition on relics from the Octagonal Nine-storied Pagoda of Woljeong-sa Temple and the Wooden Sculpture of Manjusri
October 13, 1999	Opening Ceremony for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July 2000	Joint examination on Buddhist cultural assets conducted by Jogye order Culture Division and Buddhist temples of the Fourth Buddhist parish of Jogye order
July 3, 2000	Registered to the Korean Ministry of Culture & Tourism as a first-rated
September 2000	Museum in accordance with the Museums & Galleries Promotion Act Admitted to the Korean Association of Museums
October 2, 2000	Photo exhibition titled "The Elegant Beauty of Korean Pagodas" (50 days)
October 5, 2000	Special Exhibition on Gilt-Bronze pagodas of the Goryeo Dynasty
October 18, 2000	Comprehensive Review on the Octagonal Nine-storied Pagoda of Woljeong-sa Temple
December 31, 2000	First edition of "Collection of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published
April 2001	Special Exhibition on the sacred sarira of the Relics from the Wooden Sculpture of Manjusri as a Young Boy at Sangwon-sa Temple
October 1, 2001	Photo Exhibition on Buddhist Cultural Assets of Odae-san Mountain
October 6, 2001	Special Exhibition on Buddhist Cultural Assets of Gangwon-do Province
October 12, 2001	Comprehensive Review on the Buddhist Cultural Assets of Gangwon-do Province

도판 목록

- 1
월정사팔각구층석탑
月精寺八角九層石塔
고려시대(10세기), 높이 19.25m, 국보 제48호
- 2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은제도금여래입상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銀鍍鎏金如來立像
고려시대(10세기), 높이 9.7cm, 폭 4.5cm
- 3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사물문경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靑銅四龍文鏡
고려시대(10세기), 지름 11.9cm
- 4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쌍룡문경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靑銅雙龍文鏡
고려시대(10세기), 지름 19.5cm
- 5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과문경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靑銅波文鏡
고려시대(10세기), 지름 11.5cm
- 6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무문경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靑銅無文鏡
고려시대(10세기), 지름 11.6cm
- 7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은제사리내함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銀鍍舍利內盒
고려시대(10세기), 높이 5.6cm, 지름 9.2cm
- 8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청동사리외함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靑銅舍利外盒
고려시대(10세기), 높이 10.0cm, 지름 18.4cm
- 9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전신사리경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全身舍利經
고려시대(10세기), 상하폭 5.7cm
- 10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사각수라향낭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四角繡羅香囊
고려시대(10세기), 15.5×6.9cm
- 11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금동발형향합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金銅方形香盒
고려시대(10세기), 4.35×4.1×0.6cm
- 12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수정사리병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水晶舍利瓶
고려시대(10세기), 높이 5.5cm, 지름 1.5cm
- 13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사리구 주색보자기
月精寺八角九層石塔 舍利具 朱色雜
고려시대(10세기)
- 14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조선시대(1466년), 높이 98cm, 폭 74.5cm, 국보 제221호
- 15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의승공주발원문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德讓公主發願文
寫年: 조선시대(1466년), 朱砂寫, 크기: 31.5×24.0cm,
달장 1枚, 材料: 明緬深青色, 보물 제795-1호
- 16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등 중수발원문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等 重修發願文
寫年: 조선시대(1499년), 朱砂寫, 크기: 34.6×29.1cm,
달장 1枚, 材料: 明緬靑綠色, 보물 제795-2호
- 17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백지묵서제전언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白紙墨書諸真言
寫年: 조선시대(1465년) 寫, 크기: 41.8×51.8cm
13葉 연결, 총길이 41.8×679.3cm,卷子1軸,
寫記: 天順七年癸未 七月 初八日 梵道禪宗禪師 乃法興手
寫香積首拜, 보물 제795-3호
- 18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대방광불화엄경 권28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大方廣華嚴經 卷二十八
寫年: 고려시대(13세기 중반), 板式: 上下華邊, 板高
23.2cm, 無界, 1葉 24行17字(1折6行), 보물 제795-4호
- 19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오대진언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五大真言
寫年: 조선시대 (1485년), 板式: 四周雙邊,
半郭 18.1×12.2cm, 有界, 半葉 8行15字, 上下大黑口上下
內向黑魚尾,
寫文: 成化二十一年乙巳孟夏 山人原學權敬錄, 合詞: 善驗

略抄木板本, 靈驗略抄諸解乙亥小字, 보물 제793-5호

20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소자본 묘법연화경 권1-7 上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小字本 妙法蓮華經 卷一~卷七
刊年: 조선시대(1499년) 初刷, 板式: 四周單邊, 半郭 18.6 × 12.5cm, 無界, 半葉 14行24字, 無魚尾.
跋文: 建文元年己卯七月日 純忠住命開國功臣崇政大夫脩文殿學士宜寧君南在跋, 特徵: 1382年版 覆刻 小字本, 보물 제793-6호

21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세소자본 묘법연화경 권1-7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小字本 妙法蓮華經 卷一~七

刊年: 조선시대(1404년) 初刷, 板式: 上下單邊, 板高 18.5 × 8.5cm, 無界, 半葉 12行29-31字, 全高 24.3 × 43.0cm,
刊記: 永樂二年甲申十月日誌 同願 龍潭大禪師 專悟 等, 보물 제793-7호

22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을해자본 묘법연화경 권6-7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乙亥字本 妙法蓮華經 卷六~七

刊年: 조선시대(1466년) 이진) 刊, 板式: 四周單邊, 半郭 27.2 × 19.6cm, 有界, 半葉 9行16字, 上下內向黑魚尾, 特徵: 乙亥活字本, 校正印, 보물 제793-8호

23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화암사판 묘법연화경 권1-3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華岩寺板 妙法蓮華經 卷一~三

刊年: 조선시대(1443년) 後刷, 板式: 四周單邊, 半郭 20.8 × 13.4cm, 無界, 半葉 10行20字, 無魚尾.
跋文: 正統八年癸亥五月日 僧錄大夫判中樞院事昌寧成達 生蓮跋, 刊記: 全羅道高山地佛名山花岩寺開板, 特徵: 黃板稱書(卷3木), 보물 제793-9호

24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회방사판 묘법연화경 권5-7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會方寺板 妙法蓮華經 卷五~七

刊年: 조선시대(1561년) 初刷, 板式: 四周單邊, 半郭 20.2 × 13.5cm, 有界, 半葉 10行20字, 無魚尾,
刊記: 嘉靖四十年辛酉正月日 慶尙道豐基地小伯山會方寺 開板, 보물 제793-10호

25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을유자본 원각경언해 상2-2-3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乙酉字本 圓覺經諸解 上二二~三

刊年: 조선시대(1465년) 刊, 板式: 四周單邊, 半郭 19.0 × 13.3cm, 有界, 半葉 大字 6行13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特徵: 乙酉活字本, 보물 제 793-11호

26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신흥사판 원각경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新興寺板 圓覺經 刊年: 조선시대(1564년) 初刷, 板式: 四周雙邊,

半郭 18.3 × 13.3cm, 有界, 半葉 8行16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刊記: 嘉靖四十三年甲子六月日 智異山神興寺開刊, 보물 제793-12호

27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영제암판 육경합부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永濟岩板 六經合部 刊年: 조선시대(1472년), 板式: 四周單邊,

半郭 19.5 × 13.5cm, 無界, 半葉 8行17字, 無魚尾,
刊記: 正統五年庚申 華岳山永濟岩開板, 跋文: 成化八年夏 六月初吉 甲寅小字 金守溫跋文,
合韻: 大方廣佛華嚴經人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大佛 頂首舊藏神祝, 觀世音菩薩讚文, 佛說阿彌陀經,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보물 제793-13호

28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화암사판 육경합부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花岩寺板 六經合部 刊年: 조선시대(1488년), 板式: 四周單邊,

半郭 19.0 × 13.0cm, 無界, 半葉 8行17字, 無魚尾,
刊記: 弘治元年戊申四月日 全羅道高山地花岩寺開板, 보물 제793-14호

29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중대사판 육경합부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中臺寺板 六經合部 刊年: 조선시대(1460년), 板式: 四周單邊,

半郭 19.5 × 12.5cm, 無界, 半葉 8行17字, 無魚尾,
刊記: 全羅道靈安地中臺寺開刊, 보물 제793-15호

30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명주적삼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明軸赤衫 朝鮮시대(15세기), 길이 72.0cm, 폭 189.0cm, 보물 제793-16호

31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생명주적삼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生明軸赤衫 朝鮮시대(15세기), 길이 65.0cm, 폭 197.5cm, 보물 제793-17호

32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황초복자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黃楸幅子 朝鮮시대(15세기), 57.0 × 58.0cm 보물 제793-18호

33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백색수집보병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白色水晶寶瓶 朝鮮시대(15세기), 지름 4.5cm, 보물 제793-19호

34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후명원통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喉鈴圓筒 朝鮮시대(15세기), 길이 10.8cm, 지름 4.0cm, 보물 제793-23호

35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무공수정주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無孔水晶珠 朝鮮시대(15세기), 높이 3.3cm, 폭 4.0cm, 지름 3.7cm, 보물 제793-20호

- 36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화주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火珠
조선시대(15세기), 지름 0.9cm, 보물 제793-22호
- 37
상원사목조문수동자과상 복장 사리
上院寺木造文殊童子坐像 覆藏 舍利
조선시대(15세기), 지름 0.2cm, 보물 제793-21호
- 38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과상
中臺 獅子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조선시대, 높이 38.0cm, 폭 29.5cm
- 39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과상 개금발원문
中臺 獅子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改金銀願文
근대(1908년), 29.0×30.0cm
- 40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과상 범서
中臺 獅子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梵書
조선시대(1456년), 27.0×40.0cm
- 41
중대 사자암 목조비로자나불과상 중수발원문
中臺 獅子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重修發願文
근대(1895년), 36.0×30.0cm
- 42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이래과상
月精寺 北臺 孤雲庵 木造釋迦如來坐像
조선시대(1710년), 높이 43.5cm, 폭 27.5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 43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이래과상 복장 조성기
月精寺 北臺 孤雲庵 木造釋迦如來坐像 覆藏 造成記
조선시대(1710년), 35.0×65.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 44
월정사 북대 고운암 목조석가이래과상 복장 후명봉
月精寺 北臺 孤雲庵 木造釋迦如來坐像 覆藏 喉鈴筒
조선시대(1710년), 높이 6.2cm, 지름 3.5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1호
- 45
영원사 목불과상
靈巖寺 木佛坐像
조선시대, 높이 63.0cm, 폭 42.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 46
영원사 목불과상 복장 족자
靈巖寺 木佛坐像 覆藏 楮子
조선시대, 녹색족자 25.5×26.0cm, 적색족자 25.5×
20.5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 47
영원사 목불과상 복장 후명봉
靈巖寺 木佛坐像 覆藏 喉鈴筒
조선시대, 높이 10.0cm, 지름 3.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 48
영원사 목불과상 복장 간경도감판 능엄경언해
靈巖寺 木佛坐像 覆藏 刊經都監板 楞嚴經諺解
刊年: 刊經都監板, 조선시대(1462년), 梨樹, 卷7張1~56
存, 板式: 四周雙邊, 半郭 21.3×18.0cm, 有界, 半葉 9行17
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刊記: 天順六年八月二十
一日,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 49
영원사 목불과상 복장 쌍계사판 교법연화경언해, 권2
靈巖寺 木佛坐像 覆藏 雙溪寺板 妙法蓮華經諺解, 卷二
刊年: 조선시대(1545년), 板式: 四周雙邊, 半郭 21.8×
18.0cm, 有界, 半葉 9行17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刊記: 嘉靖二十四年乙巳仲春 全羅道羅州南面中峰山雙溪
寺開板,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0호
- 50
운흥사 목조아미타불과상
雲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조선시대(1791년 개금), 높이 43.5cm, 폭 27.5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 51
운흥사 목조아미타불과상 복장 후명봉
雲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覆藏 喉鈴筒
조선시대(1791년 개금), 높이 5.9cm, 지름 3.6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 52
운흥사 목조아미타불과상 복장 개금불사발원문
雲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覆藏 改金佛事發願文
조선시대(1791년 개금), 35.0×65.0cm, 1枚,
造成記: 乾隆五十六年辛亥三月日 改金于太白山雲興寺校
者慶泰安于大寺也,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 53
운흥사 목조아미타불과상 복장 회암사판 교법연화경 권1
雲興寺 木造阿彌陀佛坐像 覆藏 檜岩寺板 妙法蓮華經 卷一
刊年: 조선시대(1659년 後刷), 四周雙邊, 半郭
22.8×16.0cm, 有界, 半葉 8行13字,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檜岩寺 止子 山人道開開刊 喪禮湖書, 庚辰二日刷 雙玉 墨
書: 順治十六年己亥四月日 印經,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2호
- 54
금동육수관음보살과상
金銅六手觀音菩薩坐像
조선초기 혹은 명대, 높이 45.0cm, 폭 23.5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53호
- 55
보덕사 관공현 석조아사이래과상
報德寺 觀風軒 石造阿彌如來坐像
조선후기, 높이 31.5cm, 폭 22.0cm
- 56
지장암 목조지장보살불감
地藏庵 木造地藏菩薩佛龕
조선시대, 상감높이 20.0cm, 개문폭 34.0cm, 폐문폭 15.0cm

97

오대산사적 갑본

五臺山事跡 甲本

조선시대(1442년), 特徵: 四周烏線, 內高 30.3×21.0cm, 半葉 8行22字, 外高 39.2×28.4cm

寫記: 大德十一年二月日 宣授領列大夫翰林直學士匡靖大夫咨議都金議司事延英殿大司學提修史判文翰書事閔讀記, 寫記: 皇慶二年秋 奉使而東到五臺山月精社訪五顯祖聖蓮住老無公出閣相公所撰傳記一通一,

寫記: 建文二年庚辰十月初五日 太上王親到月精社一,

寫記: 宣德九年甲寅三月日 都觀察兼沙使兼兵馬都副使使憲大夫知教寧府事趙,

寫記: 正統七年壬戌八月十八日 太上王親行五臺山事蹟 年久字剝社主海品 請命改書 故附錄事籍之本

98

오대산사적 을본

五臺山事跡 乙本

조선시대(1442년), 特徵: 四周朱線, 內高 37.7×30.5cm, 半葉 8行22字, 外高 43.5×36.2cm, 紅色表紙

寫記: 正統七年壬戌八月十八日, 寫記: 光武六年壬寅秋分越三日 蓮葉山人大覺登塔萬化寬後譯跋

99

오대산상원사중창사적

五臺山上院寺重創事蹟

조선시대(1833년), 表題: 上院寺重創事蹟, 月精寺記室所, 特徵: 四周烏線, 內高 39.0×24.0cm

半葉 7行23字, 外高 45.5×29.5cm, 寫記: 肅光十三年癸巳 暮春 紀蹟撰於本寺樓樓者

已有某年則爲風雨之所侵蝕 爲不實之境 故敎使本府貢生 成若仁 繕寫書 以爲永世龜藏

100

오대산중대적멸보궁불량문-갑본

五臺山中臺寂滅寶宮佛糧文-甲本

조선시대(1814년), 表題: 中臺佛糧文, 寶宮留藏, 并題: 五臺山中臺寂滅寶宮佛糧文, 序題: 五臺山中臺寂滅寶宮佛糧文, 特徵: 四周烏線

內高 27.8×23.0cm, 半葉 8行16~20字, 外高 34.5×26.6cm

序記: 歲開逢 茂甲戌 林鍾月 時時下嶺南沙門警諒謹書, 寫記: 甲戌年六月日 寂滅寶宮中書

101

오대산중대적멸보궁불량문-을본

五臺山中臺寂滅寶宮佛糧文-乙本

조선시대(1825년), 表題: 中臺佛糧文, 寶宮留藏, 并題: 五臺山中臺寂滅寶宮佛糧文, 序題: 五臺山中臺寂滅寶宮佛糧文, 特徵: 四周烏線

內高 30.0×12.0cm, 半葉 8行14字, 外高 41.4×29.6cm

寫記: 道光五年乙酉六月上番 雲峯慈註謹識 化王兼大施主 北丘信云

102

오대산사고동록

五臺山史庫錄

조선시대(1901년), 特徵: 半葉 8行13字, 外高 29.0×27.5cm, 寫記: 辛丑九月日

103

범일국사전영

梵日國師眞影

조선시대(1788년), 비단에 채색, 94.5×63.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0호

104

사명당대선사전영

四冥堂大禪師眞影

조선후기, 비단에 채색, 95.5×65.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41호

105

경파당대선사전영

鏡波堂大禪師眞影

조선후기, 비단에 채색, 100.0×61.0cm

106

화곡당대선사전영

華谷堂大禪師眞影

조선후기, 비단에 채색, 92.5×54.5cm

107

화곡당대선사전영

華谷堂大禪師眞影

조선시대(1882년), 면에 채색, 116.2×72.8cm

108

월암당대선사전영

月巖堂大禪師眞影

조선후기, 비단에 채색, 95.5×54.0cm

109

명허당대선사전영

明虛堂大禪師眞影

조선후기, 면에 채색, 95.5×71.6cm

110

한암스님 명정

111

한암스님 일월도자수홍가사

漢岩 日月圖刺繡紅袈裟

일제강점기, 109.5×206.5cm

112

한암스님 일월도자수홍가사

漢岩 日月圖刺繡紅袈裟

일제강점기, 83.0×316cm

113

한암스님 일월도자수가사

漢岩 日月圖刺繡袈裟

일제강점기, 101.4×233.0cm

114

한암스님 낙자

漢岩 落字

일제강점기, 35×68cm

115

한암스님 금란가사함과 금란가사

漢岩 金欄袈裟函과 金欄袈裟

116

한암스님 금란가사

漢岩 金欄袈裟

일제강점기(1930년), 113.4×243.2cm

117

- 한암스님 발우
漢巖鉢盂, 일제강점기
발그릇: 지름 19cm, 높이 9.0cm,
국그릇: 지름 17.5cm, 높이 8.0cm,
청수그릇: 지름 17cm, 높이 7.0cm,
찬그릇: 지름 16cm, 높이 6.0cm
- 118
한암필 사곡병풍
漢巖筆 四曲屏風
각쪽: 94×26cm
- 119
단허스님 영경
- 120
단허스님필 원훈
呑虛筆 院訓
현대, 43.5×48.5cm
- 121
단허스님필 십곡병풍
呑虛筆 十曲屏風
현대, 각쪽 178×44cm
- 122
단허스님 비루
呑虛 甌
현대, 44.5×30.5×12.0cm
- 123
단허스님 두루마기
呑虛 圓裳
현대, 길이 113.3cm, 폭 107.0cm
- 124
단허스님 인장
呑虛 印章, 현대
- 125
단허스님 은관문화훈장
呑虛 銀冠文化勳章, 현대
- 126
단허스님필 횡액 '향상일로'
呑虛筆 橫額 '向上一路'
현대, 32.0×134.5cm
- 127
단허스님 원고 및 필기구
呑虛 原稿 및 筆記具, 현대
- 128
상원사 동종
上院寺 銅鐘
통일신라(725년), 높이 167.0cm, 입지름 91.0cm,
국보 제86호
- 129
윤다사 동종
龍多寺 銅鐘
조선시대(1787년), 높이 51.0cm, 입지름 31.0cm,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33호
- 130
선림원 종편
禪林院 鐘片
통일신라(804년), 좌: 높이 11.0cm, 폭 12.6cm, 우: 높이
9.0cm, 폭 18.0cm
- 131
선림원 동종
禪林院 銅鐘
통일신라(804년), 높이 122.0cm, 폭 68.0cm
(손상되기 전의 모습)
- 132
선림원 동종 비천상 부분 탁본
禪林院 銅鐘 飛天像 部分 拓本
- 133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상륜부 청동장식
月精寺八角九層石塔 相輪部 靑銅裝飾
고려시대, 길이 31.8cm, 폭 26.0cm
- 134
월정사팔각구층석탑 종탁
月精寺八角九層石塔 風鐸
고려시대
종강: 길이 31.0cm, 폭 7.0cm,
종탁상: 길이 11.5cm, 폭 16.0cm
- 135
월정사 금강지
月精寺 金剛柱
고려시대, 길이 20.6cm
- 136
월정사 금강지
月精寺 金剛柱
고려시대, 길이 11.2cm
- 137
월정사 요령
月精寺 腰鈴
조선후기, 높이 18.0cm
- 138
월정사 경자
月精寺 磬子
조선후기, 높이 17.5cm, 지름 10.0cm
- 139
수타사 바라
壽陀寺 鉢羅
조선후기, 지름 53.4cm
- 140
수타사 불연
壽陀寺 佛龕
조선후기, 높이 140.0cm, 폭 68.0cm, 총길이 200.0cm
- 141
영은사 불연
靈隱寺 佛龕
조선시대, 높이 146.0cm, 폭 74.0cm, 총길이 336.0cm
- 142

List of Plates

- | | | |
|---|---|---|
| 1
The Octagonal Nine-storied
Pagoda of Woljeong-sa
Goryeo Period (10th C.), h,
19.25m, National Treasure No. 48 | Gilt-bronze Incense Case of a
Square, Goryeo Period (10th C.),
h, 4.35cm × w, 4.1cm × t, 0.6cm | cm, Treasure No. 793-6 |
| 2
Gilt Silver Standing Buddha
Goryeo Period (10th C.),
h, 9.7cm × w, 4.5cm | 12
Crystal Sarira Bottle, Goryeo
Period (10th C.), h, 5.5cm, d,
1.5cm | 21
Lotus Sutra in Small Type
Volumes 1-7, Joseon
Period(1404), h, 18.5cm × w,
8.5cm, Treasure No. 793-7 |
| 3
Bronze Mirror with Four Dragons
Design, Goryeo Period (10th C.),
d, 11.9cm | 13
Red Silk Wrap, Goryeo Period
(10th C.) | 22
Lotus Sutra, Eulhae Type Version,
Volumes 6-7, Joseon
Period(1466), h, 27.2cm × w,
19.6cm, Treasure No. 793-8 |
| 4
Bronze Mirror with Double
Dragons Design, Goryeo Period
(10th C.), d, 19.5cm | 14
Wooden Sculpture of Manjusi as
a Young Boy at Sangwon-sa
Joseon Period(1466), h, 98.0cm,
National Treasure No. 221 | 23
Lotus Sutra, Hwaam-sa edition,
Volumes 1-3, Joseon
Period(1443), h, 20.8cm × w,
13.4cm, Treasure No. 793-9 |
| 5
Bronze Mirror with Wave
Patterns, Goryeo Period (10th C.),
d, 11.3cm | 15
Prayer Text by Princess Ulsuk
Joseon Period(1466), silk, h,
31.5cm × w, 24.0cm,
Treasure No. 793-1 | 24
Lotus Sutra, Huihang-sa edition,
Volumes 5-7, Joseon
Period(1561), h, 20.2cm × w,
13.5cm, Treasure No. 793-10 |
| 6
Bronze Mirror without Design,
Goryeo Period (10th C.),
d, 11.6cm | 16
Prayer Texts upon Restoration of
Manjusi and Others, Joseon
Period(1599), silk, h, 34.6cm × w,
29.1 cm, Treasure No. 793-2 | 25
Mahavaipulya-Purnabuddha Sutra
With Korean Punctuation, Eulyu
Type Version, Volumes Sang2-2-
3, Joseon Period(1465), h, 19.0cm
× w, 13.3cm, Treasure No. 793-11 |
| 7
Silver Inner Sarira Case, Goryeo
Period (10th C.), h, 5.6cm,
d, 9.2cm | 17
Dharanis Written in Ink on
White Paper, Joseon
Period(1463), h, 41.8cm × w,
679.3 cm, Treasure No. 793-3 | 26
Mahavaipulya-Purnabuddha Sutra,
Sinheung-sa edition, Joseon
Period(1564), h, 18.3cm × w,
13.3cm, Treasure No. 793-12 |
| 8
Bronze Outer Sarira Case, Goryeo
Period (10th C.), h, 10.0cm,
d, 18.4cm | 18
Avatamsaka Sutra Volume 28
Goryeo Period(mid-13th C.), h,
23.2cm, Treasure No. 793-4 | 27
Compilation of Six Sutras,
Yeongje-am edition, Joseon
Period(Carved in 1440, printed in
1472), h, 19.5cm × w, 13.5cm,
Treasure No. 793-13 |
| 9
Dharani Sutra, Goryeo
Period(10th C.), h, 5.7cm | 19
Sutra of Five Dharanies, Joseon
Period(1485), h, 18.1cm × w,
12.2cm, Treasure No. 793-5 | 28
Compilation of Six Sutras,
Hwaam-sa edition, Joseon
Period(1488), h, 19.0cm × w,
13.0cm, Treasure No. 793-14 |
| 10
Four-Cornered Embroidered
Incense Pocket, Goryeo Period
(10th C.), h, 15.3cm × w, 6.9 cm | 20
Lotus Sutra in Small Characters
Volumes 1-7, Joseon
Period(1399), h, 18.6cm × w, 12.5 | |
| 11 | | |

- 29
Compilation of Six Sutras, Jungdae-sa edition, Joseon Period(1460), h, 19.5cm × w, 12.5 cm, Treasure No. 793-15
- 30
King Sejo's Silk Jacket, Joseon Period, w, 189.0cm × h, 72.0cm, Treasure No. 793-16
- 31
King Sejo's Silk Jacket, Joseon Period, w, 197.5cm × h, 65.0cm, Treasure No. 793-17
- 32
Yellow Silk Sarira Wrap, Joseon Period(15th C.), w, 58.0cm × h, 57.0cm, Treasure No. 793-18
- 33
White Crystal Bottle, Joseon Period(15th C.), h, 4.5cm, Treasure No. 793-19
- 34
Cylindrical Brass Container, Joseon Period, h, 10.8cm × d, 4.0cm, Treasure No. 793-23
- 35
Crystal Jewel Bead, Joseon Period, h, 3.5cm × w, 4.0cm × d, 3.7cm, Treasure No. 793-20
- 36
Fire-bead, Joseon Period, d, 0.9cm, Treasure No. 793-22
- 37
Sarira, Joseon Period, d, 0.2 cm, Treasure No. 793-21
- 38
Wooden Seated Vairocana from Jungdae Saja-am, Joseon Period, h, 38.0cm × w, 29.5cm
- 39
Prayer upon Gilding the Statue, Joseon Period(1908), h, 29.0cm × w, 50.0cm
- 40
Buddhist Scripture, Joseon Period(1456), h, 27.0cm × w, 40.0cm
- 41
Prayer upon Restoration, Joseon Period(1895), h, 36.0cm × w, 30.0cm
- 42
Wooden Seated Sakyamuni from Woljeong-sa Bukdae Goun-am, Joseon Period(1710), h, 43.5cm × w, 27.5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1.
- 43
Building Prayers, Joseon Period(1710), h, 35.0cm × w, 65.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1.
- 44
Cylindrical Container, Joseon Period(1710), h, 6.2cm × d, 3.5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1.
- 45
Wooden Seated Buddha from Yeongwon-sa, Joseon Period, h, 63.0cm × w, 42.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0.
- 46
Green Silk Wrap, Joseon Period, h, 25.5cm × w, 26.0cm, Red Silk Wrap, h, 25.5cm × w, 20.5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0.
- 47
Cylindrical Container, Joseon Period, h, 10.0cm × d, 3.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0.
- 48
Surangama Sutra with Korean Translations, Printed from Gankyongdoga, Joseon Period(1462), h, 21.3cm × w, 18.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0.
- 49
Lotus Sutra with Korean Translation, vol. 2, Ssanggye-sa edition, Joseon Period(1545), h, 21.8cm × w, 18.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0.
- 50
Wooden Seated Amitabha Buddha from Unheung-sa, Joseon Period(Gilding 1791), h, 43.3cm × w, 27.5 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2.
- 51
Cylindrical Container, Joseon Period(1791), h, 5.9cm × d, 3.6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2.
- 52
Prayer Text Gilding the Statue from Unheung-sa, Joseon Period(1791), h, 35.0cm × w, 65.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2.
- 53
Lotus Sutra Vol. 1, Hoeam-sa edition, Joseon Period(1659), h, 22.8cm × w, 16.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2.
- 54
Gilt-bronze Seated Avalokitesvara Bodhisattva from Yuksu-am, early Joseon Period or Ming, h, 45 cm × w, 23.5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53.
- 55
Seated Stone Bhaisajyaguru at Bodeok-sa, late Joseon Period, h, 31.5 × w, 22.0cm
- 56
Votive Shrine of Ksitigarbha Bodhisattva, Joseon Period, h, 29.0cm × w, 34.0cm(open), 15.0 cm(closed)
- 57
Vairocana Platform Painting at Yeongwon-sa, Joseon Period(1759), colors on silk, h, 178.5cm × w, 204.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4.
- 58
Platform Painting from Bodeok-sa and Container, Joseon Period(1868), colors on silk, h, 178.0cm × w, 227.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9.
- 59
Sakyamuni Platform Painting from

- Bongbok-sa, Joseon Period(1913), colors on silk, h. 162.0cm × w. 209.0cm
- 60
Amitabha Buddha Painting from Baekryeon-am, Joseon Period(1856), colors on silk, h. 96.0cm × w. 146.0cm
- 61
Amitabha Buddha Painting from Sinheung-sa, Joseon Period(1875), colors on silk, h. 172.0cm × w. 135.0cm
- 62
Tanka Buddhist Painting from Yeongeun-sa, Joseon Period(1856), colors on silk, h. 840.0cm × w. 503.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08.
- 63
Avalokitesvara Bodhisattva Painting from Unsu-am, Joseon Period(1790), gold lines on black silk, h. 61.0cm × w. 40.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7.
- 64
Trinity Ksitigarbha Bodhisattva Painting from Guryong-sa, Joseon Period(1727), colors on silk, h. 170.0cm × w. 251.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6.
- 65
Sixteen Arhats Painting from Bohyeon-sa, Joseon Period(1882), colors on silk, h. 100.5cm × w. 194.0cm
- 66
Nectar Ritual Painting from Yeongwon-sa, Joseon Period(1759), colors on silk, h. 138.0cm × w. 165.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5.
- 67
The Great Dipper Painting from Bodeok-sa, Joseon Period(1876), colors on silk, w. 213.5cm × h. 129.0cm
- 68
The Great Dipper Painting from Bongjeong-sa, Andong, Joseon Period(1893), colors on silk, w. 79.0cm × h. 93.0cm
- 69
Ten Kings Painting from Baekun-sa, Joseon Period(1879), colors on silk, w. 101.5cm × h. 116.0cm
- 70
Heavenly Dragon Painting from Unheung-sa, Joseon Period(1755), colors on ramie, w. 85.0cm × h. 98.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8.
- 71
Hermit Painting from Guryong-sa, dates unknown, Colors on paper, h. 65.0cm × w. 37.0cm
- 72
Mountain Spirit Painting from Bodeok-sa, dates unknown, h. 101.7cm × w. 90.0cm
- 73
Song of the Moon's Reflection on the Thousand Rivers and Biography of the Buddha, Volume 17–18, early Joseon Period(1459), h. 20.4cm × w. 17.0cm, Treasure No. 745.
- 74
Koryo Tripitaka, Haein-sa edition, Joseon Period(1865),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54.
- 75
Commentary on the Avatamsaka Sutra, Vols. 5-6, Yeongguk-sa edition, Joseon Period(1686), h. 22.0cm × w. 16.5cm
- 76
Commentary on the Avatamsaka Sutra, Jingwang-sa edition, Joseon Period(1700), h. 22.0cm × w. 14.5cm
- 77
Commentary on the Avatamsaka Sutra, Daewon-am edition, Joseon Period(1690), h. 22.5cm × w. 16.0cm
- 78
Lotus Sutra, Cheongryong-sa edition, vols. 4-7, Joseon Period(1574), h. 20.5cm × w. 13.5cm
- 79
Lotus Sutra, Tongdo-sa edition, vols. 6-7, Joseon Period(1649), h. 19.0cm × w. 13.5cm
- 80
Lotus Sutra, Cheongryong-sa edition, Joseon Period(1688), h. 20.5cm × w. 16.7cm
- 81
Lotus Sutra with Korean Translation, vol. 6, Songgwang-sa edition, Joseon Period(1799), h. 22.5cm × w. 18.5cm
- 82
Diamond sutra, Kwangheung-sa edition, Joseon Period(1530), h. 26.5cm × w. 18.5cm
- 83
Diamond sutra, Unidentified text, Joseon Period(16th C.), h. 22.2cm × w. 16.0cm
- 84
Original Vows of Ksitigarbha Sutra, Bingul-am edition, Joseon Period(1616), h. 17.3cm × w. 13.4cm
- 85
Filial Piety Sutra, Whaeum-gul edition, Joseon Period(1591), h. 19.0cm × w. 14.7cm
- 86
Index of Buddhist Sutras from Myeong Dynasty, vol. 1, Unheung-sa edition, Joseon Period(1690), h. 22.7cm × w. 12.0cm
- 87
Collection of Dharmies, Ansim-sa edition, Joseon Period(1569), h. 18.8cm × w. 13.0cm
- 88
Kyeongdeokjeon-deungrok Vols. 28-30, Ssanggye-sa edition, Joseon Period(1614), h. 19.3cm × w. 15.0cm
- 89
Daemitacham-yakchoyoram-bokwonyeombulmun, Yongmun-sa edition, Joseon Period(1704), h. 19.5 × w. 19.0cm
- 90
Suryukmucha-pyeongdeungjaeui-

- chwalyo, Beopheung-sa edition, Joseon Period(1488), h. 19.2cm × w. 13.0cm
- 91
Cheonjimyonggyang-saryukjaeui-beomeumsanbojip, Jungheung-sa edition, Joseon Period(1721), h. 23.6cm × w. 18.4cm
- 92
Printed Pattra Sutra, dates unknown, h. 5.0cm × w. 20.0cm
- 93
Incised Pattra Sutra, dates unknown, h. 5.0cm × w. 29.5cm
- 94
Hand-written Pattra Sutra, dates unknown, h. 17.0cm × w. 52.0cm
- 95-96
Writings on the Reconstruction of Sangwon-sa, Joseon Period(1464), h. 30.0cm × w. 12.0cm, National Treasure No. 292
- 97
Traces of Odae-san (Mountains), Gap edition, Joseon Period(1442), h. 39.2cm × w. 28.4cm
- 98
Traces of Odae-san (Mountains), Eul edition, Joseon Period(1442), h. 43.5cm × w. 36.2cm
- 99
Records of the Reconstruction of Sangwon-sa in Odae-san(Mountains), Joseon Period(1833), h. 45.5cm × w. 29.5cm
- 100
Document Donating Commodities of Jungdae-jeokmyeolbogung in Odae-san(Mountains), Gap edition, Joseon Period(1814), h. 34.5cm × w. 26.6cm
- 101
Document Donating Commodities of Jungdae-jeokmyeolbogung in Odae-san(Mountains), Eul edition, Joseon Period(1825), h. 41.4cm × w. 29.6cm
- 102
Recordings of Historical archives in Odae-san, Joseon Period(1901), h. 29.0cm × w. 27.5cm
- 103
Portrait painting of National Master Beomil, Yeongeun-sa, Joseon Period(1788), colors on silk, h. 94.5cm × w. 63.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40.
- 104
Portrait painting of Great Master Samyeongdang, Yeongeun-sa, Joseon Period, colors on silk, h. 95.5cm × w. 65.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41.
- 105
Portrait painting of Great Master Kyeongpadang, late Joseon Period, colors on silk, h. 100.0cm × w. 64.0cm
- 106
Portrait painting of Master Hwagokdang, late Joseon Period, colors on silk, h. 92.5cm × w. 54.5cm
- 107
Portrait painting of Great Master Hwagokdang, late Joseon Period(1882), colors on cotton fabric, h. 114.2cm × w. 72.8cm
- 108
Portrait painting of Great Master Wolamdang, late Joseon Period, colors on silk, h. 95.5cm × w. 54.0cm
- 109
Portrait painting of Great Master Myeongheodang, late Joseon Period, colors on cotton fabric, h. 95.5cm × w. 71.6cm
- 110
Portrait of Priest Hanam
- 111
Red Ritual Robe with Embroidery of Sun and Moon worn by Priest Hanam, modern time, h. 109.5cm × w. 206.5cm
- 112
Red Ritual Robe with Embroidery of Sun and Moon worn by Priest Hanam, modern time, h. 83.0cm × w. 316.0cm
- 113
Ritual Robe with Embroidery of Sun and Moon worn by Priest Hanam, modern time, h. 101.4cm × w. 233.0cm
- 114
Antaravasa worn by Priest Hanam, modern time, w. 35.0cm × h. 68.0cm
- 115
Ritual Robe with gold Embroidery worn by Priest Hanam, modern time(1930), h. 113.4cm × w. 243.2cm
- 116
Ritual Robe with gold Embroidery worn by Priest Hanam and it's case
- 117
Set of Wooden Buddhist Bowls used by Priest Hanam, modern time, A: h. 9.0cm × d. 19.0cm, B: h. 8.0cm × d. 17.5cm, C: h. 7.0cm × d. 17.0cm, D: h. 6.0cm × d. 16.0cm
- 118
Four-fold Screen written by Priest Hanam, modern time, h. 94.0cm × w. 104.0cm
- 119
Portrait of Priest Tanheo
- 120
Temple's Admonitions written by Priest Tanheo, present time, h. 48.5cm × w. 43.5cm
- 121
Ten-fold Screen written by Priest Tanheo, present time, h. 178.0cm × w. 440.0cm
- 122
Inkstone used by Priest Tanheo, present time, h. 30.5cm × w. 44.5cm × t. 12.0cm
- 123
Overcoat worn by Priest Tanheo, present time, h. 113.3cm × w. 107.0cm
- 124
Seal used by Priest Tanheo, present time
- 125
Silver Cap Culture used by Medallion written by Priest

- Tanhae, present time
- 126
Writing by Priest Tanhae, present time, h. 32.0cm × w. 134.5cm
- 127
Writing Utensils used by Priest Tanhae, present time
- 128
Bronze Buddhist Bell of Sangwonsa, Unified Silla(725), h. 167.0cm × d. 91.0cm, National Treasure No. 36.
- 129
Bronze Buddhist Bell of Yonggasa, Joseon Period(1787), h. 51.0cm × d. 34.0cm, Gangwon Provincial 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33.
- 130
Fragment of Bronze Buddhist Bell from Seonrimwon, Unified Silla(804), h. 11.0cm × w. 12.6cm(left), h. 9.0cm × w. 18.0cm(right)
- 131
Bronze Buddhist Bell from Seonrimwon (before damaged)
- 132
A rubbed copy of Bronze Buddhist Bell from Seonrimwon
- 133
Copper Ornament from the Octagonal Nine-storied Pagoda of Woljeong-sa, Goryeo Period, h. 31.8cm × w. 26.0cm
- 134
Copper Chimes from the Octagonal Nine-storied Pagoda of Woljeong-sa, Goryeo Period, Chime; h. 31.0cm × w. 7.0cm, Tongue; h. 11.3cm × w. 16.0cm
- 135
Vajra of Woljeong-sa, Goryeo Period, h. 20.6cm
- 136
Vajra of Woljeong-sa, Goryeo Period, h. 11.2cm
- 137
Brass Hand-bell of Woljeong-sa, Joseon Period, h. 18.0cm
- 138
Brass Hand-chime of Woljeong-sa, late Joseon Period, h. 17.5cm × d. 10.0cm
- 139
Brass Cymbals used in Buddhist Ritual of Suta-sa, late Joseon Period, d. 53.4cm
- 140
Buddhist Sedan Chair of Suta-sa, late Joseon Period, h. 140.0cm × w. 68.0cm × l. 290.0cm
- 141
Buddhist Sedan Chair of Yeongeun-sa, Joseon Period, h. 146.0cm × w. 74.0cm × l. 336.0cm
- 142
Wood-carved Container for Written Prayers of Guryong-sa, late Joseon Period, h. 107.0cm
- 143
Karma Mirror Stand of Bodeok-sa, late Joseon Period, h. 119.0cm
- 144
Wooden with Design of Sun and Moon from Guryong-sa, late Joseon Period, h. 217.0cm
- 145
Wooden Votive Tablet of Woljeong-sa, Joseon Period, h. 70.0cm
- 146
Wooden Votive Tablet of Woljeong-sa, Joseon Period, h. 68.5cm
- 147
Wooden Votive Tablet of Woljeong-sa, Joseon Period, h. 68.3cm
- 148
Wooden Votive Tablet of Guryong-sa, Joseon Period, h. 71.0cm
- 149
Wooden Votive Tablet Guryong-sa, Joseon Period, h. 49.0cm
- 150
Wooden Votive Tablet Guryong-sa, Joseon Period, h. 61.0cm
- 151
Wooden Votive Tablet of Woljeong-sa, Joseon Period, h. 49.0cm
- 152
Wooden Votive Tablet of Bodeok-sa, Joseon Period, h. 63.0cm
- 153
Wooden Votive Tablet of Woljeong-sa, Joseon Period, h. 58cm
- 154
Green-glazed Floor Tile from Buseok-sa Muryangsujeon, Goryeo Period, h. 14.0cm × w. 14.5cm × t. 6.4cm
- 155
Roof Tile with 'Manryeok-nyeon' inscription, Joseon Period, h. 22.0cm × w. 18.0cm
- 156
Roof-end Tile with Sanskrit Letter, late Joseon Period, h. 19.6cm × w. 19.0cm
- 157
Stone Mill with 'il' ideography, late Joseon Period, h. 36.0cm × w. 54.0cm
- 158
Stone Hand Mill with Dragon-head design, Joseon Period, h. 49.5cm × w. 54.0cm
- 159
Stone Hand Mill with Dragon-head design, Joseon Period, h. 45.7cm × w. 52.0cm
- 160
Baekchohoejang Jacket, Joseon Period, h. 52.4cm × w. 34.0cm, Important Folklore Materials No. 219.
- 161
Orchid Painting in Gold ink on Dyed Paper, dates unknown, h. 127.8cm × w. 29.0cm
- 162
Identification Seal and Pocket Contained in a Belt, Joseon Period, Seal; d. 5.3cm, Belt; h. 165.0cm × w. 9.0cm





국내의 명산 중에서도
여기가 가장 좋은 곳이요
불법이 길이 번창할 곳이다.

國內名山此地最勝
佛法長興之處云云

일연·憨스님 지, 「삼국유사三國遺事」,
「대산원정사출山并精寺 오류성중五類聖衆」 중에서



Collection of Woljeong-sa Temple Seongbo Museum

끝